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5월 1일 화요일 (주간) 제 317 호

금주법구

"하늘 위나 하늘 아래서
내가 가장 존귀하도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태지서응본기경-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종교계 손잡고 '국토청정'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소속 환경단체들이 범종교적으로 연대기구를 결성해 환경운동에 적극 나선다.

불교환경교육원을 비롯 원불교 천지보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갖고 종교간 환경운동의 연대 필요성에 공감, '종교환경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2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출범할 종교환경단체협의회는 각 단체간 환경 관련 정보와 자료교환을 비롯해 지리산 개발, 새만금 간척사업 등 환경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 등을 모색하게 된다.

기존의 연대기구처럼 이름만 띄우는 방식을 자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운동가와 실무자 위주로 구성되는 이 협의회는 각 교단의 종교시설과 신도들을 활용한 환경운동 캠페인 및 교육, 종교사상에 입각한 세미나 개최, 환경윤리강령 채택 등 종교사상에 입각한 생명운동을 펼칠 예정이어서 환경운동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종교시설 건축에 대한 지침 제시 등의 활동은 무분별한 종교시설 증축과 건립 등으로 그간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온 종교계의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9일 국정홍보처의 '2001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종교환경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인 종교환경단체협의회의 출범은 일단 4개 종교가 주축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교의 환경 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될 전망. 사찰-성당-교회-교당에서 펼칠 수 있는 생명환경운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종교적인 심성으로 환경 캠페인



을 전개해 시민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이 협의회의 간사단체인 불교환경교육원의 유정길 사무국장은 "종교간 상호이해의 계기가 될 이 협의회의 발족은 지난해 시작된 지리산댐 백지화 및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에 종교계가 동참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면서, "종교계의 풍부한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으로 시민환경운동의 외연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경(취재 1부 기자)

"사회 · 문화 제현상 포용 불교학 영역 확대"

本紙 초파일 특별 좌담 참석자 한목소리

☞관련기사 5 · 6 · 7면

불교 자체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온 지난 세기의 학문 틀에서 벗어나, 여타 학문이나 사회와 문화의 제 현상을 아우르는 시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가 4월 21일 '불교학이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신규탁 교수(연세대)는 "불교는 인간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종교가 돼야 한다"며 "불교학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 공간 즉, 현실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우성 교수(경희대)도 "불교학은 이제 추상적인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현실 속에서 역동하는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학은 삶과 수행의 구체적인 공간인 현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깨달음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역시 교리의 분석에만 의존해 풀기보다는 사회나 문화와의 연장선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깨달음의 문제는 수행뿐만 아니라 현실적 삶의 문제와도 긴밀히 얽혀있다는 데 주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은 "불교가 사회와 문화 현상에 주목하는 방법으로써 응용불교를 생각할 수 있다"며 "불교 자료를 우리말로 옮기고, 전산화를 통해 응용불교학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는 "다원화 정보화로 말할 수 있는 21세기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응용불교학은 필요하다"며 "타학문 분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제간 연구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0년 간 발간된 6만 3천여 건의 불교학 논저 중 50% 이상이 역사, 사상, 인물, 종단사를 밝히는 데 집중돼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응용불교는 불교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그 방법론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4월 29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조계사에 이르는 구간에서 펼쳐진 제등행진에 참가한 10만여 불자들이 각종 장엄물과 연등을 밝히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연등축제 10만불자 동참

60여 도시서 제등행진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가 4월 29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스님 신도 등 10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동대문운동장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6개 종단 총무원장과 100여개 사찰의 스님과 신도 등 5만여명이 동참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법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대형 장엄물과 오색깃발을 앞세우고 조계사 앞까지 제등행진을 벌였다.

이날 낮 12시부터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불교단체들이 연등만들기, 전통문양 탁본 체험마당, 목탁전시, 우리농산물 장터 등을 마련해 축제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부산 대구 광주와 전국 60여개 도시에서도 28, 29일 연등축제와 제등행진을 봉행했다. 정성운 기자

2085명 특별가석방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2천여명의 모범수들이 4월 30일 특별가석방됐다.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대상 인원을 월례 가석방 인원의 4배 이상으로 확대, 2085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화합 상생의 시대 열자"

전국사암 봉축법요식

불기 2545년 봉축법요식이 1일 서울 조계사와 봉원사 관문사 탑주심인당을 비롯 전국의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은 오전 10시 부처님 오신날을 알리는 28번의 타종으로 시작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등 종단 지도자와 민주당 김중권 대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송석구 등국대 총장 등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관불, 헌화, 봉축사, 김대중 대통령 봉축메시지 낭독, 법어 봉독 등의 순서로 1시간여 동안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대스님은 봉축사에서 "이분법의 분별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과 사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살려나가는 최선의 길, 바로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남북 '발원문' 동시 봉독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남북(북남) 불교도 공동발원문이 부처님 오신날인 1일 남 북의 사찰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서 동시에 봉독됐다. 공동발원문은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북한도 보현사 등 60여 사찰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낭독됐다.

정성운 기자

"불교는 나라의 버팀목"

김대통령 봉축메시지

김대중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일 봉축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봉축메시지에서 "불교는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종교이며, 높은 정신적 성취를 통해 민족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지금도 우리 불교는 나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국민대화합과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심오한 지적 진리와 창의성의 전통과 화합단결의 역사를 이끌어온 불교계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너무도 크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부처님 오신날 특집 40면 발행

이 난국, 부처님 처방은	3면
한국불교학 어제와 오늘	5면
좌담 불교학이 가야할 길	6 · 7면
1사찰 1홈페이지 운동 '확산'	15면
시방세계 무문관 용맹정진	17면
가까이서 본 큰스님 관응 스님	18 · 19면
연등축제 화보 · 이모저모	20 · 21면
책으로 만나는 부처님	23면
佛田3代 권정학씨네	24면
불교동화 나는 어른들이 밉다	35면
최서남단 가거도의 초파일	38면

장 군 죽 비

◇ '달리는 불심-운전불자연합회'를 비롯 직장 직능 불교단체들이 전문성을 활용한 대사회봉사에 적극 나섰다. (8면)

◇인방에서 부처님을 만나세요. '인터넷 불교'와 '현대불교신문'이 펼치는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 열기 확산. (15면)

◇'부처님 오시는 길' 밝히는 종로거리 환희심으로 가득. 이 땅이 곧 극락임을 비로소 알겠네. (20~21면)

◇부처님 품속 문화유산 도난범들에 무방비 노출. 탐심으로 가득한 시대의 검은 손에 부처님 가슴은 멍들어 가는데…. (39면)

지역불교 문화기행 취재 9면

다음주 신문 쉽니다

TrekSta

"봉축" 부처님 오신 날!
고마우신 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공용(225㎜~265㎜)

- 천연가죽 뉴벅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남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 자석 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수 있습니다

- 본 사: 02-320-0602~3
- 유 통 지 점: 02-320-0795
- 동서울지점: 02-320-0622
- 남서울지점: 02-320-0781 (대전영업소:042-582-1892)
- 호 남 지 점: 062-511-8377
- 영 남 지 점: 051-309-7112 (대구영업소:053-964-5476)



성불화-자비로

Only One Number One
(주)트렉스타
본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88-1 TEL: 051-309-3663(代)
FAX: 051-309-3666 서울영업소/ 02-863-2566
www.trekSta.co.kr

봉축사설

불국토 장엄 서원 다지는 계기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열린 날,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진리의 광명이 빛나는 땅에 살게 되었다. 법신불이야 오고 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 본래 진리가 충만한 세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진리에 눈 어두운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참다운 생명으로 사는 길을 실현하고 가르쳐 주신 부처님. 그 은혜를 어디에 비기랴! 그 오심을 봉축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며, 또 가르침에 따른 삶 살기를 다시금 서원하는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인 것이다.

우선은 우리들이 참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우리를 위해 경축해야 한다. 그 기쁨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부처님 앞에 우리의 기쁜 몸짓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날이어야 한다. 부처님 은혜를 함께 받은 이들, 부모 앞에 형제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듯, 함께 모여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축제의 마당을 열자.

그 속에는 부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부끄러움까지도 담기리라. 부처님 앞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불자들의 삶이 어찌 오늘의 모습에 머물겠는가. 또 불교계가 어찌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모습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 오신 날에는 그 상주하심을 잊었던 것을 참회하고, 우리 눈 앞에, 또 마음 속에 다시금 부처님을 모시는 날이어야 한다. 부끄러움에 대한 참회가, 항상 부처님을 모시겠다는 커다란 서원으로 전환되어 단단히 서는 날이어야 한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모든 불자들이 이 서원에 함께 하는 날이 되도록 하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 하나를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으로 삼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우리 불교계의 모습이 부처님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교의 참된 모습을 세우는 것을 나의 화두로 삼는 불자들이 되기를 서원하자.

이(理)로 본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은 이미 불국토로 완성되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신행으로써 그 세계를 장엄하는 것은 그 세계를 사(事)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올바른 신행은 거듭 불국토를 완성시키는 일이요, 거듭 거듭 부처님을 오시게 하는 일이다. 부처님의 뜻에 따르는 삶 하나 하나로 이 세상에 부처님을 거듭 거듭 모시는 일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환희에, 부처님의 크신 공덕을 찬탄하는 불자들이 이 땅을 메울 때 바로 이 세계의 불국토가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 우리의 불교계는 걷어내야 할 미망이 너무도 많고, 우리 불자들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채 입으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뇌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부처님 오신 날은 이러한 미망을 털고 참되게 부처님을 거듭 오시게 하는 서원을 다지는 날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의 큰 은혜를 찬탄하며, 불법을 접한 희유한 인연에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하여 해마다 해마다 그 찬탄이 증폭되어 온 누리가 부처님 오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로 이어지게 해야 하리라.

우리의 신행이 중생심의 무명으로 가려지는 날도 있고, 불교계가 긴 역사의 질곡을 털기에 부침이 계속되는 나날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이 실현하여 보여주신 참생명의 이상이 있고, 그 참생명들이 어우러져 사는 밝고 아름다운 세계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고,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면서 새롭게 바른 길을 찾아들게 된다. 그러한 이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다는 말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나날일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 함께 이룩해 나가야 할 밝은 세계의 이상을 주시어 우리를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부처님! 그 세계로 나아가는 수많은 탈 것들까지 마련해 주시지 않았는가. 근기에 맞는 탈 것을 선택하여 하루하루 향상일로(向上一路)에 있는 것으로 그 크신 은혜를 갚아 나가도록 하자. 이러한 우리들의 서원의 연화대 위에 부처님이 거듭 오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기원한며, 다시 한번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4월 26일 열린 민족화해기원대법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통일을 발원하며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통일정토 세우자" 발원

김대통령 · 교계지도자 등 1천여명

롯데호텔서 '민족화해기원' 대법회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4월26일 서울 롯데호텔 특설법회장에서 봉행한 '민족의 화해 · 협력과 조국 통일 기원대법회' 참석자들은 "후세에 물려줄 통일된 조국에서 민족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불국정토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과 각 종단 대표, 김대중 대통령 내외, 김중권 민주당 대표, 김태호 한나라당불자회장,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신도 대표 등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육법공양, 정대스님과 김 대통령 내외의 관불의식으로 시작됐다.

정대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 조국통일은 절대절명의 시대적 화두"라고 강조하고 "우리 불자들은 통일을 위한 민족적 소명을 다할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오늘의 법회는 남북의 화해 · 협력과 평화통일의 희망을 다지는 귀중한 자리"라며 "불자들의 높은 애국심과 화합정신은 21세기 일류국가 도약과 통일을 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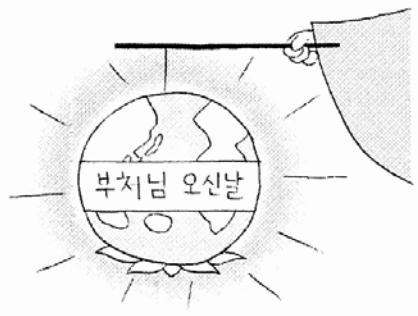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기원문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조국의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 남북 화해 · 협력과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원했다.

이어 법회에 참석한 각 종단 대표와 신도 등 1천여 불자들은 진각종 성초 통일원장이 낭독한 '불자의 다짐'을 통해 "오늘의 법회를 통해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의 문을 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정성운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온 누리에 자비 광명이…

한국禪불교문화 '원더풀'

전등사 국제캠프 7개국 15명 참가

등만들고 발우공양 · 예불 체험

"연등의 꽃잎이 아름답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국의 전통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대 상운) 주최로 강화도 전등사에서 4월23일부터 5월6일까지 개최되는 붓다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한 영국인 샤리 레윌린(23세, 디자이너)은 미국 영국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등 7개국에서 온 15명의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봉축연등을 만들며 부처님 오심의 기쁨을 함께 했다.

이번 붓다워크국제캠프에 참가한 7개국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강화 전등사와 연등선원에서 조계종 국제포교사와 산중스님들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발우공양및 새벽예불 등 불교의식체험과 연등 만들기및 메달기 봉사, 지역봉축행사준비, 서울 연등축제 행사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참가자들은 4월25일과 26일 전등사에서 학봉스님과 한국불교와 관련한 자유토론, 연등선원 외국인스님들과 '선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서강스님(전등사 재무)은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전통사찰 체험을 통해 불교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강화=김원우기자



◇붓다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한 7개국 15명의 대학생들이 전등사에서 연만들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복장유물 도난 · 훼손 안된다"

김대통령 방지대책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4월 27일 최근 드러난 대규모 국보급 문화재 도난 사건과 관련 "정부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절취범들에 의해 도난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불교계와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특히 전국 사찰의 봉상 안에 보관돼 있는 복장유물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교황청 · 기독교교회협 봉축메시지

천주교 주교회의가 부처님 오신날 봉축메시지를 발표(20일)한 데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로마 교황청에서도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KNCC 김동완 총무는 4월24일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앞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김 총무는 메시지에서 "불교는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서 헤쳐나왔고 빛나는 문화와 수행의 전통이 있다"면서 "새천년에 처음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은 과거 1천500년 전통에서 한민족에게 한을 넘어 희망을 주어 온 것 같이 더욱 밝은 등불로 세상을 환히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또 "지역감정과 어려운 경제현실의 극복은 물론 평화통일과 인간성이 살아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모든 종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은 "해마다 찾아오는 이 축제가 전세계 불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선사하기를 기도한다"며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인류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교황청의 봉축메시지를 4월27일 종단협의회에 전했다.

정성운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청정 나라청정
心 淸 淨 國土淸淨

삼보에 귀의하옵고,
부처님 오신날 2천만 불자님과 함께 봉축하오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 : 김태호, 김진재, 하순봉, 정재문, 김기배, 김찬우, 김영일, 박헌기, 전용원, 최돈웅, 김용갑, 이상배, 이해봉, 임진출, 정문화, 강신성일, 김용균, 김용학, 김학송, 도종이, 손희정, 엄호성, 윤두환, 이원형, 이인기, 최병국, 황승민
한나라당불교신도회장 함종한 외 불교신도회원 일동

한나라당 홈페이지 : www.hannara.or.kr / 한나라당 도움전화 : 전국어디서나 ARS 700-2021 한통화에 1만원의 정성으로 세상이 편해집니다.

혼란스럽다는 말도 이제는 식상하다. 사회 어느 분야고 온전한 곳 없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사람들은 작금의 현실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한다. 어디서부터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할 지경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은 늘 풍성한데 정작 '살만한 세상'은 요원하기만 하다.

부처님께서 오늘 여기에 계신다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고 있는 우리의 고질적 병폐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 부처님께서는 나와 남이 둘 아닌 하나임을 깨닫고 실천할 때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사는 지혜가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정치·경제·교육·환경 등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네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부처님이 제시하는 해법을 듣는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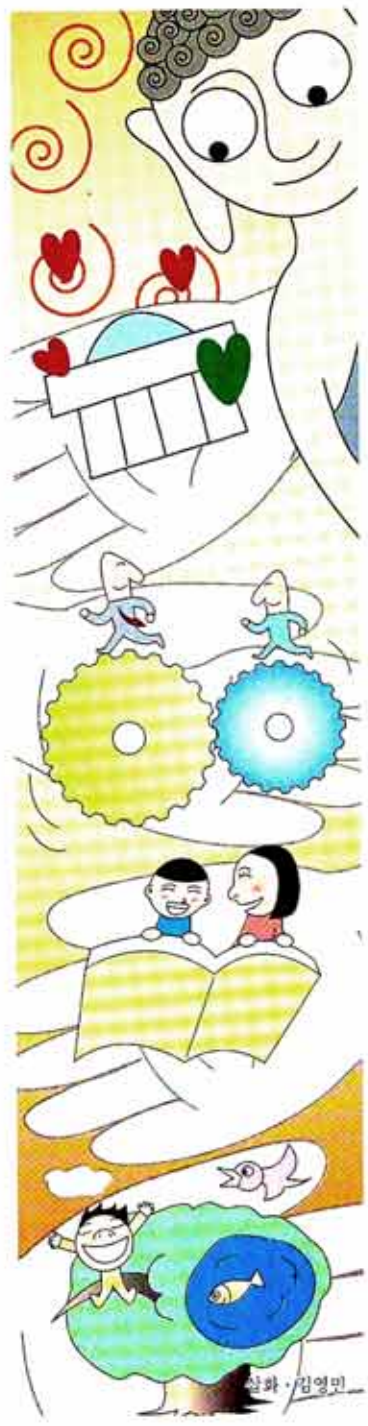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5년

오늘의 난국 부처님 말씀으로 풀어요

'나와 남 둘 아닌 하나' … 명심하고 실천



삽화 · 김영민

정 치 "대화정치로 국민화합 이끌자"



정천구 〈영산대 국제학부 교수〉

부처님은 오늘의 한국 정치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 놓으실까? 왕궁을 떠나 출가하신 분이라 정치를 나 몰라라 하실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진리의 길에 전념하신 것이지 정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대왕과 대신들의 귀의를 받아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지도하셨고 국제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전쟁을 예방하시기도 했다.

부처님께 오늘의 정치에 대해 법문을 청하면 먼저 대화정치와 국민화합을 말씀하실 것 같다. 외침의 위협에 처한 발지국에서 부처님은 나라를 지키는 일곱 가지 법(七支法)을 설하셨다.

그 중 첫째가 '국민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올바른 정사(政事)를 논의하는가'이고, 그 둘째가 '군신이 서로 화순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존경하는가'인 것이다. 먼저 대의정치의 장(場)인 국회에서 대화정치를 복원하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바른 정치를 논의토록 하라. 또한 지도층이 솔선하여 계층과 계층간, 지역과 지역간에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라고 부처님은 설하실 것 같다.

칠지법의 나머지는 3법과 예의 준수 4부모, 스승, 어른에 대한 효도와 공경 5종묘와 조상 경배 6여성의 정결 7성직자의 존중과 봉양 등인데, 일곱 가지 중 한 가지만 지켜도 타국이 공격하여 탈취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부처님은 또한 지나친 부의 불균형 상태를 경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

부처님은 대통령에게 남북한 정상이 서로 만나 화해·협력을 논의한 것을 평가하고, 상호불신의 원인을 잘 살펴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할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부처님은 특히 대통령에게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하여 노여움을 내지 말며, 남의 충언을 잘 가려 들으라 말씀하지 않을까.

교 육 "이기심 떨치고 지혜교육으로"



서명석 〈동국대 교육철학 강사〉

한 불자가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 누구나 우리 교육이 문제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큰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이를 들고 부처님은 드디어 말문을 여셨다.

"자 들어보게. 교육이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모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깨우침을 베푸는(下化衆生) 것이라네. 이 두 가지가 가르침과 배움의 활동 속에 침투되어 있어야 하네. 여기서 스승과 제자라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나. 이 만남을 선(禪)에서 줄탁동시(啐啄同時)로 압축시켜 놓았지. 그런데, 우리 교육이 지금 그런가. 나를 진정으로 깨우쳐주는 스승과 그런 스승을 받들어 모시는 제자가 얼마나 될까. 요즈음 아이들을 보세. 그들은 지금 지식-정보-기술 섬위의 노예로 전락되어 있다네. 가르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세. 그들은 이것들의 배달부로 안위하고 있지. 대다수 사람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이것들만을 밤낮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이것이 교육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라네. 여기에는 못난 나를 지워나가면서 더 큰 존재로 커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장치가 근원적으로 없다네. 하지만 나의 마음 속으로 회광반조하여 들어가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교육의 세계도 분명 있지.

인간은 원래 나와 같은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존재존적 숙업성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으로 살수밖에 없지. 이런 어리석음과 이기적임이 교육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깨닫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 속에서 인간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 탈각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혜교육이라네. 이것이야말로 교육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교육을 지혜교육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 말일세. 이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화두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부처님은 홀연히 자리를 뜨셨다.

경 제 "노-사 대립 아닌 공존의 동반자"



박승원 〈새시대불교포럼 대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구조조정'이다. 이는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노사관계가 갈등구조로 고착화된 것은 고대노예사회 이래로 노동을 상품가치로만 평가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물은 세 가지 다른 본성을 가진 존재로 나타난다고 하여 이를 삼성이라 한다. 즉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이 그것이다. 의타기성이란 남에게 의존해서 나타나는 사물의 본성으로, 연기라고도 한다. 변계소집성은 주객의 대립 속에서 허망한 분별로 나타나는 성질이며, 원성실성은 분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인식하는 사물의 참 모습이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보면, 누구나 보고 있는 면을 앞면, 보이지 않는 면을 뒷면으로 생각한다. 눈을 감고 종이를 몇 번씩이나 뒤집어 놓아도 마음속에 표리의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때 손으로 종이를 집어 올려 보자. 3차원의 세계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그 종이에 대한 표리의 구별은 사라지게 된다. 이때야 비로소 종이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노사관계는 종이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처럼 더 이상 분별대립관계가 아니라, 그냥 통틀어 기업이라는 하나의 실체일 따름이다. 그리고 미래지식사회는 개체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개체를 존중하는 유기체적 사회이다. 노사는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의 본질을 자각하고 상호실체를 존중함으로써 원성실성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단지 노사관계만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는 곧 경영자의 가치이며, 주주의 가치이기도 하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의 지나친 부의 증가는 곧 다른 한 편에서의 빈곤으로 직결됨을 인식한다면,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연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의 경제를 이룰 때이다.

환 경 "생명있는 모든것 더불어 살라"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새만금의 대합과 철새가 죽는 것, 그린벨트의 숲이 베어지고 풀벌레, 새들과 짐승이 사라지는 것, 댐으로 수장되는 무수한 땅의 벌레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할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부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 그러나 하나의 사건이 저지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진다. 수직적인 개발과 경제성장, 지금의 죽임의 행렬은 도저히 정지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집단적 자살 앞에 부처님은 뭐라고 하실까?

불살생 계율은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다. 인간이 지구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며, 나아가 겸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연과의 이치로 보아 결국 나와한 생명의 죽음은 인간도 조금씩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작은 것의 죽음이 결국 큰 것의 죽음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이다. 부처님이 농경제에 참여하셔서, 밭가는 농부의 땀, 농부의 채찍을 맞는 소의 고통, 쟁기 끝에 고통받는 벌레, 그것을 쪼아먹는 새를 보면서 큰 고뇌를 하셨다. '어떻게 만생명이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처님은 출가하셨다. 인간만의 행복만을 고민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생명위기시대에 불교는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이전의 환경문제는, 유한한 자원을 무한하다는 전도몽상의 가치관속의 인간들에게 전환적인 깨달음을 강제하는 메시지였다. 자신만을 위한 행위가 결국 인간 스스로를 죽이는 집단자살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물로 알리는 부처님의 메시지이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행위의 과보이지만 그래서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인 것이다. 과거에는 소수의 선지식만 깨달았지만 이제 전지구사람들이 한꺼번에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질병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잘못된 섭생과 생활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질병이라면 스스로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 수행을 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라고 알면, 아주 좋은 깨달음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위기는 메시지인 것이다.

마음청정 나라청정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은 心淸淨 國土淸淨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혼탁한 사회와 세상을 맑히기 위해 정진하겠읍니다

불기 2545년 사월초파일



중 정	혜 암
원로회의의장	법 전
총무원장	정 대
중앙종회의장	지 하
호계원장	월 서

대한불교조계종

생사열반과 지옥천당 꿈속의 꿈일세

불교지도자 봉축법어

조계종 해암 종정



허망한 나 버리고
참나 깨닫자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 왕궁에 내려 오셨으며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이미 중생제도 마치셨도다. 부처님의 동체대비는 무량무애(無量無碍)하여 항하사수의 중생들이 억만겁을 찬탄한다 하여도 다 설할 수가 없다

모든 인류는 절대평등한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자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 일체법(一切法)이 청정하여 청정이라는 이름조차 찾아 볼 수 없으니 광대무변한 우주법계의 한량없는 유정 무정(有情 無情) 부처님께 이(理)와 사(事)로 불공하라.

본래마음(本心)의 밝은 달(明月)이 일체(一切)를 밝게 비추니

이 사바세계가 곧 정토(淨土)요, 마군(魔群)과 제불(諸佛)이 본래 한 몸이로다

선악시비와 이해득실은 거품위에 거품이요, 생사열반과 지옥천당은 꿈속의 꿈이로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무리들이여!

허망한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달아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이 장엄한 세계를 바로 볼지어다

꾀꼬리 시냇물 태평을 노래하니
푸른 솔 흰 바위 덩실덩실 춤을 추네
아—악!

태고종 덕암 종정



서로의 허물용서
진정 화합 이루자

부처님께서는 지혜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쳐 밝게 해주시고 자비광명으로는 어둠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명예나 재물에 의해서, 또는 제도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이 차별대우를 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나 풍토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우리들의 생활 현실 속에는 아직도 이러한 불행한 현상이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에 의하여 소외되고 실직을 하고 설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아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과 자유와 삶의 기쁨을 갖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던 증오심과 시기를 버리고 그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위하는 이타정신과 화합정신을 발휘하여 그 동안에 있었던 분열과 다툼을 과감히 불식하며 아집과 아상 아만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차별하고 경멸하여 분쟁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바로 이 아집과 아상 아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태종 도용 종정



대립과 갈등 풀고
자비사상 실천

부처님은 우주·인생의 실상을 열어 보이시고 인간의 존엄성 주체성을 천명하시고 확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누구나 지니고 있는 밝고 청정한 불성을 계발하여 스스로 밝은 사람이 되고 밝은 생활을 창조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죄악과 고뇌와 불안과 모순과 불평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광명사회, 정복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첫째 지혜로운 인간, 불성을 자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본래 지닌 존엄성 곧 불성을 자각한 슬기로서 인간의 주체성 존엄성을 확립하여 실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자비사상을 실천하여 이웃을 위하고 국가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자(慈)란 남을 위하고 남을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며, 비(悲)는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알고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남의 슬픔과 괴로움을 뿌리뽑아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도우며 서로가 화합하는 사회가 부처님의 이상세계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일삼고 약육강식과 부정부패가 충일한 오늘의 사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화합 화평하는 평화의 낙토가 되기를 기원합시다.

진각종 각해 총인



육바라밀 실천
불국토 이상 실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법신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법신 부처님은 우주의 가장 중심자리에 계시면서 진리 그 자체로 만중생을 평등의 인과로써 고르게 거느리고 계십니다.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지심으로 자신의 신행을 돈독히 하면 그 맑고 고요한 마음속에 여실한 부처님의 모습이 시현되고, 법신부처님의 서원대로 이 시방정토에 그대로 정화된 불국토의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의 무명을 제거하는 등불이며 또한 진리의 위치를 가르치는 영원한 법입니다. 진리는 시방삼세를 초월하여 모든 삼라만상의 근본을 묶는 거룩한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그 충만한 기쁨을 사회에 회향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여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때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곳마다 본연의 진면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성취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민족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져 남북의 불교교류 활성화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서원합니다.

동국학원 녹원 이사장



부처님 자비정신
현실속에 실천을

거룩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미혹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른 깨달음이란 우주의 실상과 생명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입니다. 깨달음의 법은 항상 큰 바다와 같이 출렁거리고 있으며, 영원한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의 밝은 빛이 차별 없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과 같이, 정각의 빛도 역시 시공을 초월하여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부처'라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처는 깨달은 인간이고 중생은 미혹하여 생사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굳게 믿고 큰 원력으로 정진하여, 부처님의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데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참뜻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이 현실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데 소홀히 했음을 반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이타행을 통하여 정법의 종소리로 이 세계를 정토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다시 굳게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법륜종 정각 종정



모두가 한생명 공동체

부처님의 탄생은 '천지여아동근 만물여아일체(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라는 대진리의 설파입니다. 부처님의 참진리를 통해서 모두가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물질만능과 전도된 가치관으로서는 새 시대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청정 법신 비로자나의 세계, 광명변조의 가르침인 부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확실한 대답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탐진치 삼독의 어두운 업연을 끊고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나서 공생공영 대화합의 세계를 다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총지종 록정 종령



선행은 수행 밑거름

부처님 오신 날을 좀더 대아적(大我的)인 연등불사로 맞이합시다. 등불을 밝힐 때 나의 개인적인 서원 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인류를 위하는 대승적 서원을 세워봅시다. 또한 대서원과 끊임없는 대정진 불공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작은 행이라도 몸소 베풀고 실천하여 봅시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선행(善行)하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밑거름이요, 소원성취를 위한 제일의 행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마음을 닦고, 진정한 보살로서 실천을 제일로 하는 행자로 거듭 나도록 합시다.

관음종 홍파 종정 대행



망상없애 깨침 얻자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집착과 망상을 버리고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는 깨침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생명과 우주 만유는 그대로 일체 공덕을 갖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이것을 깨달은 화신부처님이요, 우리들은 앞으로 깨달을 미래부처님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기에 천상천하유아독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과학문명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시점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선도하여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는 영원한 인류의 희망입니다.

보문종 혜안 종정



번뇌털면 불성 밝아

오늘의 봉축의식은 일과성의 점등행사가 아니라 번뇌에 덮여있는 불성에 불을 지펴 무명을 밝히고 갈애를 고갈시키는 발심용 등불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밝히는 등불은 우리 모두가 '여래의 씨알'이라는 가르침을 가슴깊이 절실히 받아들이고 체득하기 위한 발심의 등불이어야 하며 이웃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전법의 등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자리에서 밝히는 점등의식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땅에 출현하신 일대사 인연에 수순하는 길이며, 탄생게의 이념을 계승하는 참다운 불자의 길입니다.

총화종 동광 종정



등 밝혀 국민 앞날 밝게

世尊此出世 法界大光明 比如千日出 照曜大千開(세존차출세 법계대광명 비여천일출 조요대천개)

家家戶戶 一燈燭 國民前途有光明(가가호호 일등촉 국민전도유광명)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매
온 천지가 큰 빛을 내어
마치 태양이 천지를 비추는 것과 같도다.
집집마다 연등을 밝혀
우리 국민의 앞날을 밝게 하리라.

원융종 일공 종정



원융 화합해 국난 극복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명을 밝혀 중생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니, 우리 불자들은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과 지혜의 빛을 받아 스스로 깨우쳐 원융화합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회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자비와 지혜로써 광명을 밝히셨듯이 각자의 작은 소망과 성심으로 등불을 밝혀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비와 나눔의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반종 해곡 종정



탐진치 씻고 자아 찾자

룸비니동산에서 오색 꽃비의 봉축속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땅에 나투시었네. 생노병사로 인한 번뇌의 화두로써 인연이라는 고(苦)의 원인을 찾았으며, 고행이라는 수행 그 6년, 견성 성불하시어 일체의 중생을 위한 고뇌로써 자비라는 화두를 찾아서 그 45년 자비의 생을 실천하며 열반에 이르셨네. 쿠시나가라에서 지·수·화·풍으로 불생불멸의 길을 보여주셨네. 청정한 수행정진으로 탐진치 삼독을 정화하여 자아를 찾아서 내가 주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자 부처님 나투시었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大韓佛教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팩 스 (031)470-3116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리 산5-2 Tel : 043-877-5000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산 142-7번지 Tel : 052-244-0884 Fax :052)244-0182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illegible]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5-342-6630/6639, 055-345-9900 Fax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044-1321 Fax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042-532-1481 Fax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illegible]-99 Tel : 054-275-3163 Fax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번지 Tel : 033-6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555-8871 Fax :054) 556-1986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LA.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01-1359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ap. Fed CP1406,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Prv.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str. 102, D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THAILAND (태국 지원) 43 pattanavet Sukhummvit soi 71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6425

불교학 화두 '회통불교' … 응용불교학 관심고조

한국불교학 어제와 오늘

1600여 년에 이르는 한국불교의 특징을 정체성 규명이라는 학문적 노력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100년을 헤아리게 된 한국불교학의 역사를 4세대로 나누어 세대별 대표 학자를 중심으로 일별해 보았다. 그 동안 한국불교학은 6만 3천여 건의 논저라는 연구성과를 축적했으며, 이제는 불교라는 종교와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권상로


◇이능화


◇김동화


◇조명기


◇고익진


◇김영태

한국불교의 정체성으로 인식되어 온 지 있다면, 당연히 회통불교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다. 회통불교란 서로 다른 교리나 사상을 갈등이나 대립 없이 하나로 엮어내는 이론으로,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원효스님만의 사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표현은 다를지라도 지눌스님의 정혜쌍수(定慧雙修), 의천스님의 교관병수(敎觀竝修), 서산스님의 선교일치(禪敎一致) 등과 같이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선과 교, 정토와 진언간의 대립을 회통시킨 예는 많다.

이렇듯 회통불교는 관념적 담론이 아니라 1천 600여 년이라는 한국불교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격 증단인 조계종 역시 선불교의 맥을 잇고 있지만, 선과 교를 겸수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해주스님(동국대 교수)은 "조계종의 선·교 겸수는 선(禪)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교(敎)를 향한 문을 닫지 않는, 회통적 선, 회통적 교'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회통에 있음을 강조했다.

禪과 敎 보완관계

또한 회통불교는 사찰이라는 신행공간에서도 나타난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선문의 불상 안치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선(禪)을 수용했다지만, 실상사나 보림사와 같은 선문들은 화엄종 식으로 불상을 봉안하고 탑을 세웠다. 이는 중국 당나라 송나라 때의 선종 사찰이 법당만 건립하고 불상을 봉안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은 이에 대해 "중생 제도라는 불교의 본원을 원만히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체(體)와 용(用)이 절묘하게 결합한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회통불교라는 말은 최남선의 '조선불교-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위치'라는 논문에서 처음 사용됐다. 최남선은 이 논문에서 원효스님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한국불교 역사를 관통하는 사상으로 회통불교에 주목했다.

그런데 최근 학계 일각에서 "회통불교를 한국불교의 정체성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회통불교의 사상적 배경인 '화쟁'이 한국불교만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장구한 역사와 다양한 얼굴을 가진 한국불교를 '회통'이라는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이봉춘교수(동국대)는 "회통불교에 대한 비판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긍정적 자기 인식을 위한 당연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치밀한 학문적 탐구로 회통불교론을 역사와 현실 앞에서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불교학의 역사도 이제 100여 년을 헤아리지만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1천600여 년을 관통하는 '정체성'을 단언적으로 규명한다는 자체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지한 학문적 탐색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대적 의미의 한국불교학의 시작은 일본의 식민통치와 맞물려 시작되었다. 초기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불교 연구는 노골적으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국불교에 대한 왜곡과 폄하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는 자연히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독자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촉발시켰고, 차츰 깊이와 넓이를 더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1910년을 전후로 시작해서 21세기의 초입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의 시기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불교학의 자취를 인물중심으로 일별해 본다. 언급되는 불교학자들은 한국불교학 연구에 큰 자취를 남긴 인물들이며 세대 구분은 일제강점기, 8·15광복에서 6·25이후,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고도 성장기, 90년에서 2000년까지로 나눴다.

식민사관 극복노력

한국불교학을 태동시킨 1세대는 일제강점기에 학문을 연마한 학자들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우선 권상로와 이능화를 꼽을 수 있다. 권상로는 한국불교사 전체의 윤곽과 역사적 전개를 처음으로 서술한 〈조선불교사약사〉를 펴냈다. '약사'라고는 하나 부록까지 포함하여 300쪽을 넘는 결코 작지 않은 책이다.

여러 종교의 교리를 불교와 비교한 〈백교회통〉이나 한국불교에 관한 사료를 집대성한 〈조선불교통사〉를 펴낸 이능화는 '근대 최고의 불교사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불교 종파사의 맥을 잡아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 논문인 '오교양종에 대하여'를 쓴 김영수, 〈석문의범〉을 정리한 안진호 스님 등도 하나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교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 시기에서는 드물게 독일의 벌쓰볼륵대에서 유학한 백성욱도 빼놓을 수 없다. 불교의 현대화에 노력한 그는 학위논문 '불교순전철학'을 통해, 불교에 대한 서구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중국불교사〉를 펴낸 장원규는 불교사 뿐만 아니라 경학·율학·논학과 중국 13종의 종학 등에 업적을 남겼다.

한국불교학의 2세대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불교학자와 사학자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일본식 학문방법에 따라 주로 고승이나 중요한 경전을 연구 과제로 삼았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학자는 불교 입문서인 〈불교학 개론〉과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를 쓴 김동화와 조명기 등이다. 김동화는 불교를 토대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연구해 일본 식민 통치의 잔재를 없애는 데 노력했고, 조명기는 중국이나 일본불교와 대비해 한국불교를 연구했다. 한우근과 이기백 등은 각각 조선 및 신라 시대의 정책을 연구하여 불교와 현실 정치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황성기는 구사, 유식학과 불교 논리학인 인명학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고, 〈법화경〉 연구로 '비구·대처분쟁'을 이념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했던 홍정식은 한국불교학회를 창립하는 등 불교학 발전에 족적을 남겼다.

불교학의 여러 분야를 사실상 개척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3세대인데, 김영태와 고익진 등이 대표적인 학자다. 이능화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불교사〉를 펴낸 김영태는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불교의 신앙적 특성을 밝히는 데 힘을 쏟았는데, 〈삼국유사〉를 토대로 신라인의 신심을 밝힌 연구 성과가 돋보인다. 고익진은 신라의 교학 연구를 비롯하여 불교문헌학 연구를 통해 〈한국불교사상사〉, 〈한국찬술불서의 연구〉를 펴냈다.

불교연구 변화움직임

또한 〈한국불교전서〉 편찬실장의 소임을 맡아 8권의 전서를 발간했다. 〈원효사상〉으로 집성된 이기영의 원효 연구도 이 시기 불교학의 우뚝한 성과물이다. 안계현은 교단사와 교리사를 유기적으로 연구, 한국 불교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불교문학에 대한 연구의 물꼬를 튼 운학스님은 〈신라불교문화연구〉을 썼고 서경수는 인도철학과 불교를 깊이 있게 연구해 〈인도불교사〉를 펴냈다.

90년대부터 불교는 불교학자들만의 연구 주제가 아닌 다른 학문 전공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연구 분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불교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한국선학회 등의 전국 규모의 교계학술단체에서 불교를 다룬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한국문화와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심리학이나 물리학 환경 관련 연구에도 불교와 접맥을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불교의례의 현대적 계승에 노력하는 학자들도 주목에 값하는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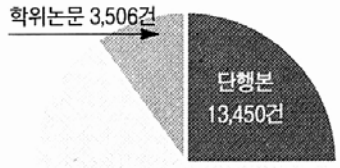
'원효 화쟁사상' 연구주제로 가장 인기
권상로·이능화 '근대불교학' 기초다져
'한국불교전서' 1600년 불교사 집대성

불교논저 현황

100년간 6만3천여건 발표

1902년 발간된 학술 자료인 〈국내사찰현행세칙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불교학 논문과 저술의 수는 총 6만3천769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단행본은 1만3천450건, 일반논문은 4만6천813건, 석·박사학위논문은 3천506건으로 집계됐다. 주제별로는 '교리'와 '역사·전기' 분야가 각각 1만3천939건, 1만5천10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학계가 사상과 교리 연구에 집중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물연구에서도 원효, 지눌, 일연, 서산, 사명, 기화 등 특정 인물의 사상과 행적을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어, 연구 범위의 확장과 심화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밖에도 '불교어문학' 8천850건, '불교예술' 8천192건, '종파' 4천699건, '경전' 4천62건, '종교일반·비교종교' 3천886건, '인도·티베트' 1천783건, '불교다도' 1천249건, '불교풍수' 1천641건, '불교아동' 36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이철교(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씨의 색인본 전산 자료와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논저 목록 CD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001년에 발간된 학계 성과물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전산 상의 집계라는 한계로 논문 발표 후 단행본으로 펴낸 경우나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동일한 논문에 의한 허수는 가려내지 못했다.



주제별 불교학 성과물

1	교리	13,939건
2	경전	4,062건
3	역사·전기	15,104건
4	종파	4,699건
5	종교일반·비교종교	3,886건
6	불교예술	8,192건
7	불교어문학	8,850건
8	인도·티베트	1,783건
9	불교다도	1,249건
10	불교아동	364건
11	불교풍수	1,641건
	총 계	63,769건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원로원부원장 송 산
원로원 위원 선명, 효계
중앙종의회의장 성 관
중앙종의회부의장 천호, 인관
중앙종의회의원 정광, 혜광, 선덕, 진언, 체명, 체정, 석천, 성욱, 보선, 혜민

승정원장 보 인
규정원장 평 신
포교원장 성 견
문화원장 정 관
교육원장 벽 봉
중앙비구니회회장 대 월

총무원장 최법륜
총무부원장 선 진
총무부장 보 광
총무부장 대 월
재무부장 체 인
사회부장 체 도
사업국장 보 월

인천종무원장 법 원
충남종무원장 체 의
광주종무원장 혜 림
전남종무원장 호 연
부산종무원장 도 광
경남종무원장 은 혜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화 : 02) 853-0531 / FAX : 02) 853-0532



부처님 오신날

불기2545년

"'지구촌 불교'로 거듭나도록 학문적 지원"

특별좌담 불교학이 가야할 길

불교학의 발전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불교의 역할을 바로 볼 때 가능하다. 불교학의 연구 대상은 불교이지만 구체적인 공간, 즉 사회와 문화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학이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좌담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학문으로 불교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불교학이 가야할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보광스님, 허우성교수, 신규탁교수, 유승무 교수(왼쪽부터).

참석자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 선학과)
허우성 교수(경희대 · 철학과)
신규탁 교수(연세대 · 철학과)
사회 :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 포교사회학과)

일시 : 2001년 4월 21일
장소 : 본사 불교사랑방

"응용불교학 21세기 중요역할" 보광 스님
"깨달음의 목표 명확하게 제시" 허우성 교수
"역사 문화 토대 불교학 세우자" 신규탁 교수

사회자 – 서구에서도 불교와 같은 전통종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불교학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광 스님 – 우선 우리의 불교학이 제 역할에 충실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불교학은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학은 수행의 방법과 과정을 추적하고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란 바로 불교학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불교학과 서양의 불교학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학은 수행자의 본분을 가슴에 안고 깨달음을 향하는 제도적인 방법입니다.

허우성 교수 – 깨달음이란 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생활공동체를 만들며, 그 목표를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아주 명료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연구하는 불교학 역시 방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가와 재가의 수행이나 신행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는 중생을 대상으로 한 불교가 존재해야 하는 명분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규탁 교수 –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불교학도 그런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사회 속에 불교는 편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학은, 현대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우리 아닌 다른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떻게 21세기를 준비했는가? 등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한자문화권이라는 테두리에서만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세 말 아편전쟁을 계기로 '天下(천하)'에서 'The world(세계)'로 그 체제가 변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 중국의 사유 체계로만 보았던 불교지만, 지금은 서양의 사유 체계와 만나는 과정 속에서 불교를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현대사회에서 불교학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주목해야 한다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세계의 불교학의 경향을 점검해 보죠.

보광 스님 – 일본의 불교계는 메이지 유신과 함께 현대적인 교육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그 체제 하에서 교육받은 스님들은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문학 · 사학 · 철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75개의 불교 종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들 대학에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택대나 용곡대와 같은 종합대학에서는 불교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참다운 불교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특정 종단에서 불교 인재만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규모 대학에서는 한 차원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응용불교학과 같이 현실 사회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신규탁 교수 – 불교학은 시대적 측면만 아니라 지역적 측면까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선불교는 당나라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연구 주제는 불교만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허우성 교수 – 글쎄요. 지역성보다는 보편성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89년도에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불교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수강생들은 지역적, 역사적 얘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ㅁ국의 서점가에서 다양한 불교 서적들이 진열되고, 달라이 라마나 틱낙한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보아도, 세계를 보는 눈으로써 불교의 보편성에 주목한 것입니다.

신규탁 교수 – 서양에서 일고 있는 불교에 대한 관심은 불교 자체보다는 자기 문화를 반성하는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중국불교를 연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그 속에 내재된 중국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역사, 문화, 언어를 초월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허우성 교수 – 지역학 역시 중요합니다. 인간 내면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미국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호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불교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규탁 교수 – 불교의 보편성이란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 지역과 언어가 달라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의 불교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광 스님 – 불교학은 고전문헌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공부할 때 중국불교를 강의하셨던 교수님은 당대의 지도를 펴놓고 강의하셨습니다. 원전만을 보는 것보다 더 알차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 교수님의 지적처럼 지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헌학 중심의 공부에 있어서도 시대와 지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탁 교수 – 역사를 보고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우리의 문화는 역동적입니다. 이런 문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불교학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불교학계에 대해 '문헌학 연구가 부족하다', '기초 자료가 부실하다' 등의 비판이 있는데, 이 역시 시대를 간과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성스님의 불교운동은 구국운동 차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분들에 있어서 문헌적인 연구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구에서 문헌학이 일차적인 것은 제국주의 산물로써 불교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문헌학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닥친 문제입니다.

사회자 – 시대적 배경을 염두해 두고 불교학을 보아야 한다는 신교수님의 지적입니다. 이제 현재와 미래의 불교학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허우성 교수 – 종합대학이라면 불교 전공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주요 종합대학에서조차 불교 전공자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보광 스님 – 종합대학의 인문대학에 유교나 도교를 전공한 학자는 들어가는 데 불교전공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국문학이나 사학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유교는 종단과 같은 조직도 없는데도 동양철학 속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거대한 종단이 있는 불교는 없습니다. 교단에서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규탁 교수 – 우리 나라는 중국에서 전래된 불교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동양을 지배하고자 했던 서양의 동기와는 달리 순수한 종교성에 따른 것이다. 불교학은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불교의 이상세계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불교학과 수행 즉, 교(敎)와 선

☞ 7면으로 계속

봉축 부처님 오신날

■ 봉축법어

敦頌(염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未離兜率(미리도솔)하고 已降王宮(이강왕궁)하였으며 未出母胎(미출모태)하고 度生已畢(도생이필)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 정반왕궁에 下降(하강)하였으며 마야부인의 胎中(태중)에서 나오시지도 않으시고 一切衆生(일체중생)을 제도해 마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의 本分(본분) 消息(소식)입니다. 오늘 四月 八日을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에 있어 부처란 도솔천에서 하강하실 수도 없는 것이며 마야부인에게 入胎(입태)니 혹은 出胎(출태)니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 부처 나기 전에 圓相(원상)하나 뚜렷했네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어찌 전할소냐" 부처란 그야말로 不生不滅(불생불멸)이오 不垢不淨(불구부정)이오 不增不減(부증불감)인 것입니다. 盛衰(성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뜻으로 볼 때 석가세존의 八相(팔상) 示現(시현)은 중생교화를 위한 權化方便(권화방편)이며 化身現跡(화신현적)인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실히 말하자면 오늘은 인간 석가세존이 사바세계에 降誕(강탄)하신 날입니다. 그럼에도 本分(본분)의 부처는 강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분의 부처란 眞理(진리)이며 마음이며 우주의 힘이기 때문에 生滅(생멸) 遷流(천류)에 물들지 않고 去來(거래) 往復(왕복)에 動搖(동요)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無形無相(무형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奧妙(오묘) 甚深(심심)한 뜻을 體達(체달)하여 우리들의 本來(본래)의 面目(면목)을 바로 찾고 塵累(진루)의 業障(업장)에서 解脫(해탈)하자는 것이 오늘을 맞는 가장 중대한 意義(의의)라 생각합니다.

워대하신 석가세존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皮相的(피상적)인 喜悅(희열)에 陶醉(도취)되어 自家反省(자가반성)이 薄弱(박약)하다거나 본래의 부처님을 忘却(망각)혹은 精進(정진)이 懈怠(해태)되어서는 진정 이 날을 맞는 큰 뜻을 喪失(상실)하게 됩니다. 석가세존께서는 삼천년전 그 밝고도 슬기로운 눈으로 부처를 보셨는데 우리들은 석가세존께서 부처보는 방법을 자세한 설명과 간절하신 指導(지도)를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부처를 보지 못하고 苦海(고해)의 波浪(파랑)에서 生死出沒(생사출몰)의 고통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어찌 痛憤(통분)과 悔恨(회한)치 않을 수 있겠는가? 부처와 중생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大原理(대원리)를 생각해 볼 때 다 같은 부처의 자격과 본질을 가지고도 다만 眞如(진여) 法性(법성)을 바로 볼 줄 아는 슬기로운 눈을 가지지 못해 우리들은 한 없는 먼 세월을 業海風浪(업해풍랑)에 시달리고 生死輪廻(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둡고 어리석은 중생의 위치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起信論(기신론)에 보면 順流門(순류문)이 있고 反流門(반류문)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류문이란 것은 생사윤회의 고해속에 언제든지 업풍이 부는 대로 둥둥 떠 흘러가는 것을 말한 것이며, 반류문이란 것은 무한한 세월을 生死業海(생사업해)에 漂流(표류)하다가 한 생각 돌이켜 自性(자성)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또 찾으러 발심 분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시 바삐 반류문으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誕身節(탄신절)을 맞음에 있어 등 밝히고 共養(공양) 올리고 노래 부르고 한갖 축제의 틀뜬 기분으로 남의 탄신을 축하하는 행사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이것이 진정 축하가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삼천년전 석가모니께서는 반류문으로 들어가 벌써 成佛(성불)의 頂上(정상)에 올라 가셨는데, 우리들은 다 같은 資格(자격)과 本質(본질)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순류의 업장에 시달리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大奮心(대분심)을 일으켜 지금 부터라도 석가모니께서 걸던 그 길을 바로 걷고 석가모니께서 시키는 방법대로 修行(수행)과 精進(정진)을 열심히 하여 더러운 중생의 위치에서 깨끗한 부처의 위치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 오늘을 맞는 참 뜻이 되는 것이며 廣大無邊(광대무변)한 佛恩(불은)에 萬分(만분)의 一(일)이라도 報答(보답)하는 길이며 또한 참다운 祝賀(축하)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기 2545년 4월 8일

財團法人 大韓佛敎一鵬禪敎宗 總務院長 東奉 合掌

■ 초대법왕 서경보 일붕존자
■ 제 3대 종정 무찰 김태현 대종사
■ 총무원장 동봉 정대룡 종사
■ 부원장 혜천 최산봉
■ 부원장 용암 최용길
■ 종회의장 정관 이영우
■ 호계원장 지공 엄외출
■ 포교원장 화엄 김광옥
■ 교육원장 법운 이대연
■ 감사원장 대륜 진억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서울시 강북구 수유 5동 440-27호 엄지빌딩 4층
전화 : 02) 998-8161,2 / FAX : 02) 998-8384



"'불교의 가치'와 '삶의 질' 조화 절대적 과제"

☞ 6면에서 계속

(禪)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도 불교학의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불교의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말씀해주십시오.

보광 스님 – 고려 불교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행결사체나 수행결사체말고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는 지금의 한국불교가 200, 300년 후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시사적입니다. 종단사가 남겠습니까? 아니면 신행이나 수행결사체가 남겠습니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행 방법은 재편돼야 합니다. 최근 간화선에 대한 한계와 효용이 문제시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새로운 수행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돼야 합니다.

신규탁 교수 – 선종(禪宗)은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던 당나라의 지식인들에게 적합한 불교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정혜쌍수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불교를 연구할 때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선사들이 이를 어떻게 타개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은 시험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사교입선 역시 경전을 열심히 읽고 통찰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진실한 동기'를 찾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교(禪敎)의 관계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허우성 교수 – 과거에는 불교의 범위를 절집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어떻게 보고 이끌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간디는 인도, 남아프리카, 영국 등지에서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국주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도 사회를 분석하고,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동기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상적인 깨달음만을 주입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현대에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광 스님 – 일본에서 공부할 때, 제가 "성불하십시오"라는 말을 하자 정토종계 일본인 스님이 깜짝 놀라며 "금생(今生)에 깨달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자신은 깨달음보다는 대중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자력신앙인 선(禪)은 '성불병'을 좇다 사회를 망각하기 십상입니다. 염불을 주로 한 정토 신앙도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생각입니다. 물건을 보는 것은 눈이지만 빛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융합할 수 있는, 지혜를 용(用)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허우성 교수 – 비체지용(非體智用)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 후에 깨달음을 향한 정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봉사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 불교가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동국대는 석·박사과정에 응용불교학 교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지만,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용불교'라 했을 때 응용의 영역을 불교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광 스님

"불교학의 목표 깨달음 이르도록 도움주는 학문"



허우성 교수

"한국불교 세계화 나라별 특성고려 보편성에 주목"



신규탁 교수

"시대별 연구 충실 순수 종교성 추구 이상세계 탐구"



유승무 교수

"불교학자뿐 아니라 타전공학자 연구물 자료로 적극활용"

보광 스님 – 응용불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현재, 미래의 불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학문들은 서구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잖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의 학자들이 응용불교를 학문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아동학, 불교경영학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문의 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응용불교학 분야가 있고, 장기적인 응용불교학 분야가 있습니다. 아동, 문화재 관련 분야는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에 불교전문대학원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가 있는 국제포교사, 국제역경사, 선치료사 등을 양성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건국대학의 경우 음악 치료로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용불교를 전문분야로 만들고 이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응용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기초를 다져가야 합니다.

사회자 – 불교 전공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도 끌어들여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광 스님 – 그렇습니다. 여기에 응용불교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연구회와 같은 소그룹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교단에서는 이들 소그룹에서 나오는 자료집을 집대성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허우성 교수 – 역시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했을 때, 100년 전과 지금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생은 깊은 신심을 가졌다면 지금의 중생은 소비자로서 자본주의에 물든 소비자입니다. 즉 자본주의적 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용불교학은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학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대만이나 일본은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그 속에서 불교계의 활동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논의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보광 스님 – 참여불교는 응용불교학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불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양성될 때 가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치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자 – 성공한 CEO(최고경영자)들의 가치관을 조사해 봤는데, 21세기형 경영의 리더십은 불설의 패러다임 그 자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광 스님 – '제행무상(諸行無常)'이나 사성제, 팔정도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교계에서 응용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 체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자 – 불교학의 지평을 사회 속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보광 스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허교수님의 지적처럼, 현실적인 논리와 불교의 가치들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허우성 교수 –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대안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인드라망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구의 근대화와 함께 나타난 자본주의가 야수성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식민이었던 대중을 시민으로 해방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교단에서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 논리와 불교의 가치 사이의 괴리감을 없애는 방편도 됩니다. 조계종을 가리켜 '남성위주의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먼저 이런 전근대적인 요소를 없애는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외에 기복성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보광 스님 – 기복성을 제외하고 종교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복'을 긍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는,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실화하는가, 그렇지 않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현상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으로만 다룰 수 없습니다.

신규탁 교수 – 응용불교학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는 학문이고 또한 자본주의 틀 속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방법,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오늘날 불교는 세속적인 삶 이외에도 행복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간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불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읽다보면 상상으로만 가능한 세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부처님은 세간의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중생들의 눈을 돌리고 집착과 탐욕을 여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응용불교학은 바로 그러한 상상의 세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우성 교수 – 수행자는 어떤 시대이든지 세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남다른 삶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삶을 하나씩 펴내는 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는 인류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불기 2545년 성탄절(부처님 오신날) 봉축

봉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불교도 공동발원문** 축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희망의 새세기 21세기의 첫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뜻깊은 이날 남과 북(북과 남)의 전체 사부대중들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조국통일기원 법회를 열고 장엄한 범종의 울림에 실어 우리의 간절한 민족통일의 발원을 올립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의 미혹중생들을 구제하여 온갖 고로부터 해탈시키려고 이 땅에 오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우리 불교도들은 5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나라와 민족의 분열이라는 가슴아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고는 고 중에서도 가장 큰 고이며 이 고에서 해탈하는 유일한 방도는 조국통일입니다.
우리 불교도들과 7천만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오매불망 희구하여 왔으나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북남) 최고지도자들의 역사적인 만남과 6·15 남북(북남) 공동선언의 발표로 굳게 닫혔던 통일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루빨리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고 남북(북남) 삼천리 조국강산에 융성번영하는 통일된 나라, 화합된 조국을 세우기 위하여 6·15 남북(북남)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겨레 모두입니다.

우리들은 6·15 남북(북남) 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행에 나서겠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지혜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불교도들은 우리 민족의 결집된 역량과 공조로 통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우리 불교도들은 남과 북(북과 남), 종단과 단체를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나 불법을 받들어 행하는 불자답게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화합하여 올해를 우리 민족이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밝혀나갈 것을 굳게 서원하면서 이 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불기 2545년 5월 1일
불기 2545년 성탄절(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 불교도 동시법회 참가 사부대중 일동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 합장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화종, 일승종, 보문종, 원융종, 총지종, 원효종, 법화종, 조동종, 염불종, 법상종, 진언종, 용화종, 법륜종, 본원종, (재)일붕선교종, 대승종, 삼론종, 열반종, 미타종, 여래종, 대각종

일주문



10일 봉원사서 취임법회

혜초 태고종 총무원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봉원사에서 제21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갖는다. (02)745-2030



'오늘의 현실' 강연회

중원 현대불교사회문화원장은 8일 '오늘의 사회현실, 어떻게 바로잡나' 를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재소자 위한 봉축법회

성운 삼천사 주지는 4월 27일 서울 구치소에서 재소자를 위한 봉축법회와 독경대회를 봉행했다.



격주간 법무교화신문 창간

혜철 불교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은 교정교화사업의 일환으로 4월 24일 격주간 '법무교화신문' 을 창간했다.



사형제 폐지위원장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는 4월 17일 조계종 사형제도폐지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노인 1000명 위문잔치

정수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장은 4월 18일 관내 노인 1000명을 초청,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경로잔치를 열었다.



백제불교회관 학술회의

장곡 대전 백제불교회관장(갑사 주지)은 4월 29일 개관기념 학술회의 및 문학 발표회를 개최했다.



무사고 기원 연등 보시

호명 염불사 주지는 4월 24일 안전운행기원 호신 연등 2000개를 수락산역에서 운전기사들에게 나눠줬다.



5일 이화여대서 특강

현각 영주 현정사 주지는 5일 오후 3시 이화여대에서 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참다운 종교란 무엇인가' 를 강의한다.



동국문학인회 새회장

홍신선 동국대 국어국문학부 교수는 4월 24일 열린 동국문학인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비지정 문화재 보호 앞장"

신임 노태섭 문화재청장



"사찰 소장 비지정 불교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태파악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조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문화재밀매단 사건이 터지는 등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인지, 4월 18일 새로 부임한 노태섭 문화재청장(50)은 민족문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불교문화재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조사사업은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우선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과 도난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비지정 불교문화재 가운데 이미 조사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료 전산화 작업과 함께 문화재로 지정·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노 청장은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과장, 청소년 국장을 거쳐 취임 전까지 문화관광부 예술국장을 지냈고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장, 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등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다.

문화관광부 예술국장 시절 판단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말 많은 문화예술 지원업무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재보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문화재청장에 임명된 것도 그 '뚝심' 을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날로 조직화, 지능화, 전문화 되고있는 사찰 문화재의 절도, 도굴, 밀매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삼 강조한 노 청장은 비지정문화재 보호강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사범 전담조직 실치 및 단속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 봉정사 극락전 등 허술한 문화재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원형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원형 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한국불교 해외전파 도움되길"

'영어 천수경' 1만질 보시 서병후 씨



"한국불교 세계화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영어 천수경 〈수리수리 마하수리〉 저자 서병후(팝 칼럼니스트)씨는 4월 26일 도레미미디어 박남성 사장과 함께 국제포교를 위한 영어 천수경 〈수리수리 마하수리〉 1만 질, 시가 2억원어치를 국제포교사회에 기증했다.

지난 99년 출판된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책 1권에 카세트테이프 3개가 1질로 천수경의 한문원문과 우리말과 영어 번역·해설, 그리고 자세한 용어설명을 담고 있어 한국불교를 알려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서병후씨는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반야심경' '밀교' 등 영문판 불교서적을 집필중이다"며 "앞으로는 젊은 외국인층을 겨냥하여 10대 힙합영어를 구사하여 한국의 불교문화를 전파하는 작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혜인 정사



◇수성 정사



◇혜명 정사



◇의현 정사

진각종 통리원·교육원 부·국장 인사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4월 27일 통리원, 교육원의 새 집행부 부장 및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새 부장 및 국장은 다음과 같다.

◇통리원= △총무부장 혜인 △재무부장 수성 △포교부장 혜명 △문화사회부장 무외 △건설부장 법정 △총무국장 호당 △포교국장 회성 △통리원장 비서실장(국장급) 원명

◇교육원= △종학연구실장 효봉 △교법부장 관증 △교육부장 의현 ◇진각대학 △학장 혜정(교육원장 겸임) △교무처장 덕정

"흥겨운 불교 춤 배워보세요"

봉축율동 개발 시연한 이성훈 씨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불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율동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3월부터 4가지 봉축율동을 개발하고, 10대부터 40대의 남녀불자 8명으로 이뤄진 불교 치어리더단을 구성하여 교육에 전념해 온 이성훈(36,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국장)씨.

이씨가 개발한 율동은 29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가한 3만여 불자들의 호응과 동참 속에 시연됐다.

이씨는 "불자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단조로우면서도 불교적 색채가 묻어나는 율동개발에 주안점을 뒀다"며 "봉축행사 뿐 아니라 일반 사찰에서 포교방법으로도 율동이 응용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성훈씨는 선재이벤트를 94년 설립했으며, 서울소년원 종교지도위원으로 위촉돼 8년 간 불교학교 개최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김원우 기자

새 문화재 위원 59명 위촉

문화재청은 문화재 정책 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임기가 4월 25일로 끝남에 따라 임기 2년인 새 문화재위원 59명과 전문위원 120명을 4월 26일자로 위촉했다.

교계에서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을 비롯해 김동현 전 문화재연구소장, 정영호 한국교원대 교수, 정재훈 전 문화재관리국장, 심우성 공주민속극 박물관장 등 5명이 재임명됐고, 불교조각 전공의 김리나(홍익대) 교수가 새로 2분과위원에 위촉됐다.

△제1분과(건조물문화재, 민속가옥)= 김동현 김은영 김일진 맹인재 윤복자 정영호 주남철 홍성목 △제2분과(동산문화재)= 강경숙 강우방 범하스님 안휘준 이난영 이동환 이수건 전상운 정양모 최승희 김리나 △제3분과(사적)= 김일진 정동오 정옥자 정재훈 조유전 최영희 한영우 심봉근 장경호 이성무 김광수 이만열 △제4분과(무형문화재)= 강경숙 곽대웅 백대웅 서연호 신찬균 심우성 이성천 이종철 정해조 허영일 임돈희 김지회 △제5분과(명승, 천연기념물)= 김수진 김윤식 송준임 안봉원 우한정 원종관 윤일병 이인규 전상린 △제6분과(매장문화재)= 김동현 김병모 심봉근 이기동 정영화 조유전 최몽룡 최숙경 지건길 정징원 △박물관분과(박물관, 미술관 등록)= 김병모 김윤식 김종규 송준임 안휘준 이종철 전상운 정양모 주남철 최만린



제3회 부산불교합창제 개최

부산불교합창단연주회는 4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날 범어사 한마음선원 혜원정사 합창단 등 30여 합창단에서 〈범종〉 〈보현행원〉 〈이 공양 받으소서〉 등 찬불가를 공양했고 이찬우, 배천종, 김성국 등 성악가들이 〈초파일 봉축의 노래〉 등을 선보였다.



은하사 신어범종 회향법회

은하사(주지 대성)는 4월 22일 신어범종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 스님,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 김영일 국회의원, 송원복 김해시장을 비롯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회향법회는 대성스님이 30년 동안 이어온 은하사 개보수 불사의 회향식을 겸해 의미를 더했다.



정읍 불교청년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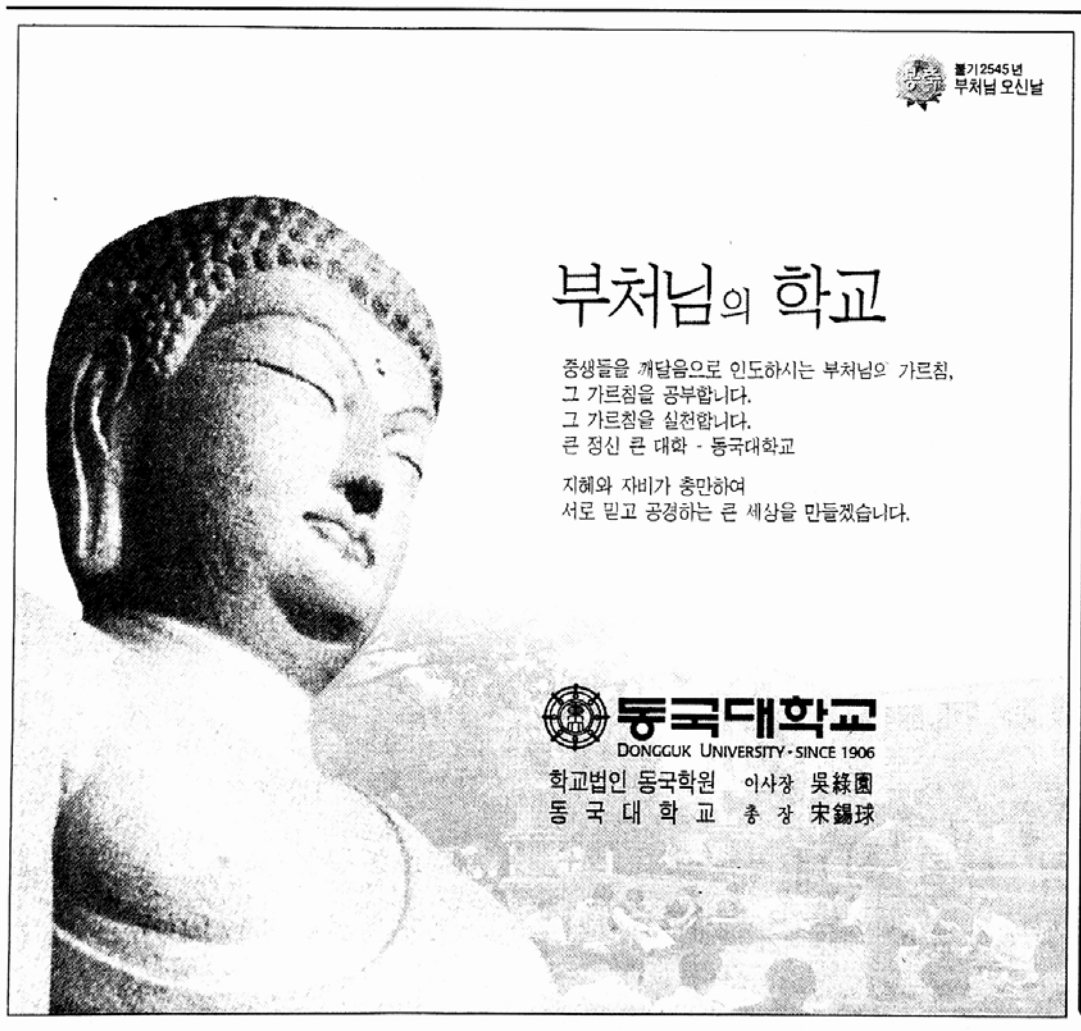
정읍불교청년회(회장 백낙종)는 정읍사암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후원으로 4월 21일 정읍시청 옆 충무공원에서 제6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봉행했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일광사 주지 승천, 법인사 주지 남강, 혜봉사 주지 진허 스님과 대불청 전북지구 정인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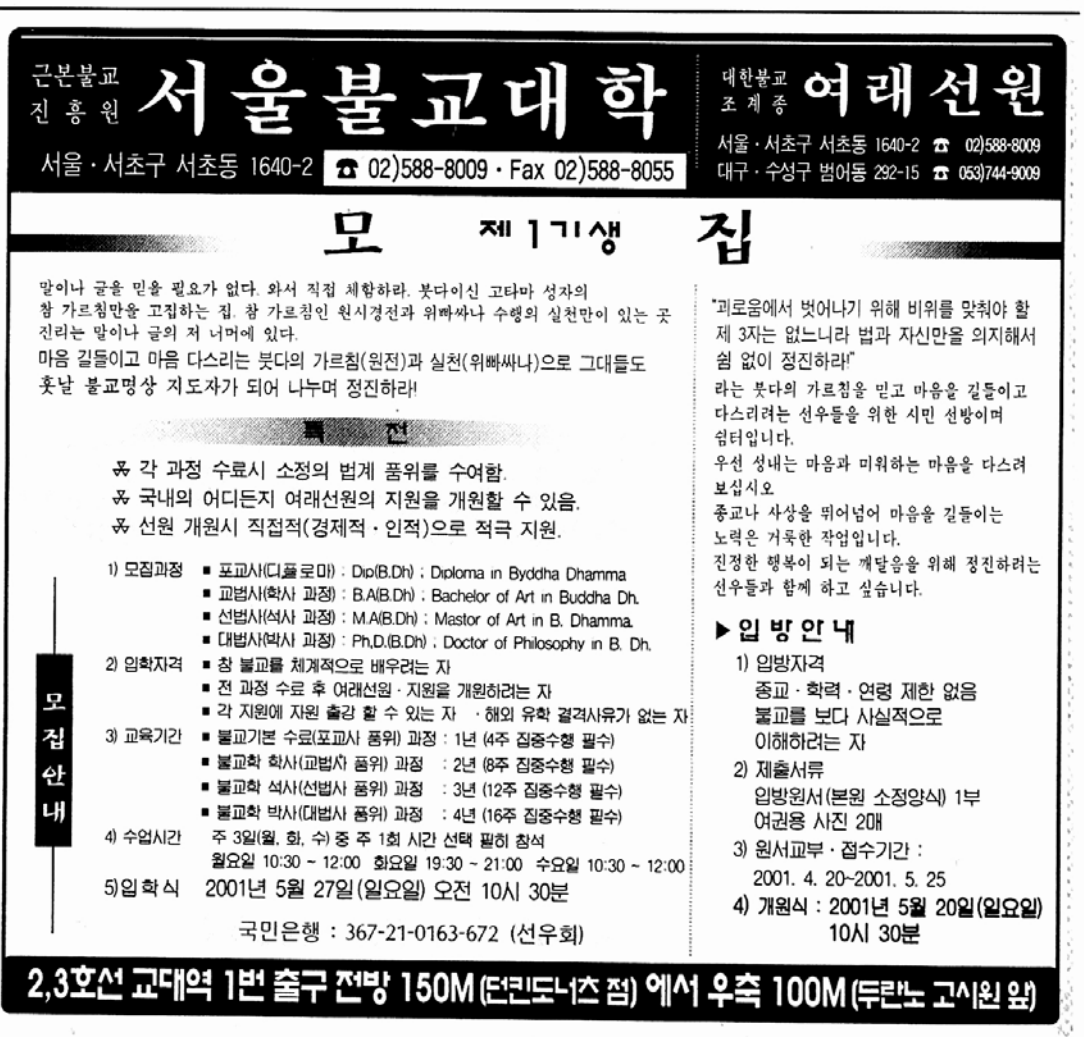
조기식 전북지사장



불교보건복지대-소방본부 자매결연

불교보건복지대학(명예학장 성오)은 4월 23일 부산소방본부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명예학장 성오 스님, 김형현 소방본부장, 황보선 부학장을 비롯 소방대원과 불교보건복지대학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오 스님은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매결연 불자회 '신심두배'

병불련-공불련 서산서 주민 의료 봉사

운불련-생명나눔회 장기기증·화장 적극 홍보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4월8일 충남서산에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함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최근 서로 다른 직종의 직장직능 불자회들이 자신들이 가진 업무 특성을 살려 합동행사를 펼치는 등 포교 · 신행활동에 상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교류를 통해 기복적인 신행에서 탈피해 대 사회적인 방향으로 신행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 · 이하 병불련)는 4월 8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 이하 공불련)와 함께 충남 서산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실시한 의료봉사와 달리 공불련이 진료장소, 차량 섭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었기에 보살행이 더욱 수월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2차례 공불련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달리는 포교사인 한국운전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는 불교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와 4월 8일 충남 수덕사 황하루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생명불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 생명나눔 홍보판 2천개를 기증받은 운불련은 앞으로 회원들의 택시 뒷좌석에 홍보판을 설치해 팸플릿을 비치하는 등 생명나눔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장기기증 154건, 사후 화장서약 91건을 신청하며 부처님 자비도 실천했다.

PC통신 불자모임인 유니텔 부처님나라와 나우누리 부처님마을도 4월 29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제등행렬에 공동으로 참석했다. 그밖에 많은 직장직능불자회들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친목도모는 물론 회원들의 신심을 높이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김병주 신도계장은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의 교류는 소속회원들에게 불자로서 자긍심을 심어주어 자연스레 법회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어 종단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불교인권위 양심수 석방·노동자탄압 중지 촉구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 지원 · 한상범)는 4월 24일 서울 안국동 길상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양심수 석방 및 정치범 수배해제, 노동자 탄압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민가협후원회, 전국연합 대표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관스님은 "김대중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감옥에 있는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관스님은 또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자행한 이무영 경찰청장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영화 · 다도 등 테마 소모임 결성"

나우누리 부처님 마을 7대시삽 정재평씨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는 신행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21일 나우누리 불교동호회 부처님마을 제 7대 시삽으로 선출된 정재평(33)씨는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다소 침체되어 있는 부처님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 시삽은 PC통신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펼쳐지는 신행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온 · 오프라인 모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수련회에 회원들의 참석을 유도해 신심을 키우고 영화, 다도 등 주제가 있는 소모임을 결성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질 방침이다. 또한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수행과 자비실천을 통해 침체된 부처님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이다. 김두식 기자

우리 모임에선

의왕시청 법우회 창립

의왕시청법우회(회장 김창렬)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용주사 주지 정락, 신륵사 주지 세영스님과 주혜란 경기도지사 부인, 박용철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법우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병원 환자위문공연

경찰병원직원불자회(회장 원용섭)는 병원 경승실, 한마음봉사회와 공동으로 경승 법당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27일 병원 1층 로비에서 봉축기념법회 및 입원환자 위문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 병원 경승실장 혜광스님과 전 · 의경 및 경찰 입원환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펼쳐진 위문공연은 남강수, 명국환, 현당 등 불자가수와 LMB성어즈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됐다.

승만부인회 전통등 전시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부인들의 모임인 승만부인회(회장 이정옥)는 21일 성북역 1번홈에서 열차안전운전기원 및 전통등 전시회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혜, 기원사 주지 상현스님과 성북지역관리역장 양석옥씨, 수도권 전철운영팀장 박종덕씨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승만부인회 회원들은 지난 3월 전시회를 위해 성북구 기원사에 모여 전통등을 제작했다.

교정인 관음보살상 중수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회창)는 4월 18일 춘천교도소 대운등장에 모셔진 관세음보살 중수공사를 마치고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과 재가 불자 및 재소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춘천교도소 관세음보살은 1995년 오회창 회장이 소장으로 재임시 조성했으나 훼손이 심해 지난해 10월 중수공사에 착수했다.

교불련 봉축 학술대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12일 불교회관 1층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과 김용표 교수,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가 불교 교육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02)720-6618

천년고찰 禪의 향기 '듬뿍'

두번째 불교문화기행 40여명 참가



◇대각암 주지 묘각 스님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영산홍을 배경으로 선암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이후 16국사를 모신 승보사찰로 역대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수도정진 했던 유서깊은 고찰입니다.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정진했던 역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4월 22일 오후 2시 송광사 대웅전. 현대불교신문사가 3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지역불교문화기행'에 참가한 40여 불자들은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의 감로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법문이 끝난 후 스님은 국사전(국보 제56호), 승보전, 대웅보전, 부도탑 등 당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경내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역사와 문화재적인 가치를 자상하게 설명했다.

이어 선화가인 묘각스님(대각암 주지)의 안내로 하얀 매화꽃과 붉은 영산홍 등 봄꽃들이 만개해 절정을 이룬 선암사도 같이 배했다.

이번 기행에 참가한 홍미리씨는 "사찰 답사를 몇 번 다녀봤지만 선암사처럼 형형색색의 꽃들과 옛 건축물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사찰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차(茶)축제 현장을 찾아서

5월: 쌍계사 · 국사암 · 제다실습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5월. 지리산 자락 하동땅에 싱그럽게 펼쳐진 차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월은 우리나라 차의 시배지인 쌍계사를 찾아갑니다. 쌍계사에 들어서면 신라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한 차 시배지와 이 절의 창건주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 47호), 대웅전(보물 제 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또 한번 불을 지펴 놓으면 49일 동안이나 온기가 식지 않았다는 아자방(亞字房)으로 유명한 천년 고찰 칠불사도 참배합니다. 국사암 진감선사 부도비(보물 제380호) 앞에서 처음 열리는 '다례제'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차를 직접 만드는 제다실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이번 문화기행에서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5월 26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조식 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 (주)한화여행

게시판

알림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2일 일산 주엽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관 1주년을 맞아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031)919-8677

▲전통예술 경연대회=청소년교화연합회는 13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 14회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실시한다.(02)735-8165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CD 2001 시연회=고려대장경 연구소는 14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CD 2001' 시연회를 갖는다.(02)797-0585

강좌

▲불교기본교육=조계사는 5월 15일부터 3개월과정 불교기본교육 강좌를 개최한다. 조계사 스님들이 강의할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등을 배우게 된다. 강의는 매주 화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는 주간반과 오후 7시 야간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토요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02)720-1390

모집

▲시카고 불타사 주지스님=미국 시카고 불타사는 사찰을 운영할 주지스님을 모신다. 비구계 수지 10년 이상의 조계종 스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조계종 승적증명서, 비구계수지증명서, 본사주지스님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수행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이다. 5월 26일까지 서울 상도동 약수암으로 연락하면 된다.(02)823-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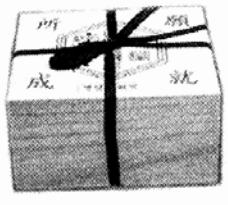
이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빌딩으로 이전했다. 전화번호는 (02)733-7277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서울 종로구 화동 정목도서관 앞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3-1884

가정을 지켜주는 명당 육기(氣)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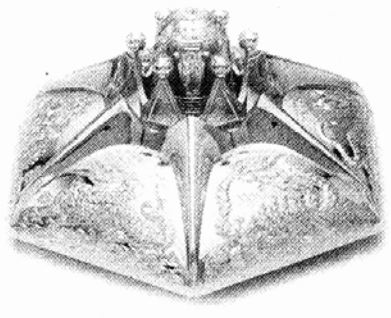
氣 란?현실 입니다.
氣란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돌게하고
거짓말 같이 믿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이든 대도시 마을 가정을 보아도
좋은 기류가 흐르고 모이고 뭉친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모여들고
큰돈이 움직입니다.
명당육氣방은 氣가 뭉쳐 있으므로 가정에
놓아 두신분들은 기류에 따라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 나고 있습니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기(氣)란 : 현실이다



– 항상 가정에 좋은 기운을 받아 좋은 명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 속 깊숙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할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고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속사정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곡 가정에 두십시요.

※ 주지스님 친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명 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 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라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神將)이 항상 수호해 주므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 "보이지 않는다하여법칙을 어기지말라." ◆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고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명당 육氣방이 확달라 졌습니다.

◆ 사용처 ◆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사찰, 암자, 철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기원정사
주 지 도 영
신도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79-116

대한불교 조계종
강화 선원사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259호
회 주 보 각
주 지 성 원
신도회장 조원태, 배발심화 합장
사부대중 일동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692-5
TEL 032)933-8234/8834
■선원사 한증막,기와황토불 한증막(무료운영)
TEL 032)933-8985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주 지 박종하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FAX 02)597-3510

대한불교 조계종
각원사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봉안도량
주 지 신법인
총 무 서대원
대중일동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TEL 041)561-3545
FAX 041)556-1425

개화산 약사사
주 지 영 대
조 실 종 진
부주지 영 수 총 무 무 문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2번지
TEL 02)662-2551
FAX 02)664-2550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주 지 보 혜
신도일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
TEL 033)682-1933

만불(지장보살)조성 도량
대성사 원융원
주 지 법 신
신 도 일 동
■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40-8
■ 경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2리 2번지
TEL 031)584-1541 (대성사)
02)2237-9796 (원융원)

대한불교 조계종
운문사 운문승가대학
학장 명성 주지 혜은
홈페이지
www.unmoonsa.or.kr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2-8800

관음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만의사**
주 지 김성직
신 도 일 동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TEL 031)376-6005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망 해 암
주 지 법 두
봉사회일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 19번지
TEL 031)443-5559

재단법인 선학원
대한불교 조계종 **법륜사**
관 장 우주화
대중일동
■ 대전시 중구 옥계동 173-47
TEL 042)284-4278
법동사회종합복지관
TEL 042)633-1141~3

대한불교 조계종 **법수사**
회 주 의 성
주 지 법 수
총 무 혜 월
사부대중일동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 303-1
TEL 041)555-3243

참선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백운암**
주 지 본 우
신 도 일 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210번지
TEL 033)763-1514
FAX 033)763-1528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 지 진 관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02)359-8410

(사)대한불교법사회
성보사 포교원
원장 구윤회
신 도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28
TEL 02)381-1234/2727
FAX 02)371-1065
사찰음식문화연구원
부설 : 콩사랑 민속두부 전문점
TEL 02)381-6405~6

대한불교 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회 주 송월주
주 지 일 원
부설(관인)영화유치원
■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9번지
TEL 02)444-4321/444-7215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주 지 호암 지성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TEL 055)672-0100/0481
FAX 055)672-0481

우주정사
주 지 법 현
기적의 손 부처님의 기를
전달하여 디스크환자 팔 다리 마비환자
신경통, 관절염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의 손을 가진 스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8-2
TEL 031)251-2871/252-1766

옥수동 미타사
주 지 재 호
교 무 명 수
재 무 법 련
대중일동 신도일동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395
TEL 02)2297-1992/3360
FAX 02)2297-3367

인과선원
주 지 정 덕
신 도 일 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TEL 02)993-3706
02)907-3706

대한불교 본원종
삼각산 연화정사
주 지
총무원장 범해 이 대화
신 도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6호
TEL 02) 379-1965/391-4376

정 각 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신 도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742-1231

사단법인 21세기
한국사회봉사회 천불장학회
이사장 이설산
임직원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TEL 02)303-0024~5

정법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청소년수련원 **신흥사**
주 지 오성일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TEL 031)357-2695/357-3916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崔光永
法華三部經講院
■ 대구시 동구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TEL 053) 952-8711

치악산 구룡사
주 지 (慈光) 李遠行
신 도 일 동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번지
TEL 033) 732-4800~3
FAX 033) 732-1211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 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대 중 일 동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덕대산극락사
지장기도 도량
주 지 김법륜
신도회 일동
TEL 055) 352-7224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주 지 지 광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02)577-5800
FAX 02)577-0052

대한불교 조계종
황금절 수국사
회 주 한자용
주 지 김중건
신도회장 김자비심
찬불합창단장 문안락행
수국사 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번지
TEL 02)356-2001~2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원각사**

주 지 석 대혜
신도회장 이 반야행
봉사단장 조성남
문화유적답사단장 허향구
어린이 법회단장 박만숙, 김춘옥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TEL · FAX : 054) 481-2363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선원장 지 공
신도회장 장 지혜안

■ 대구시 동구 효목 2동 541-1 효목빌딩 3층
TEL : 053) 744-0150~1
- 지장기도 복지 도량 -

두류산 관음사

주 지 김성호

신 도 일 동

■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1273-7
TEL : 053) 653-4846

금 용 사

신 도 일 동

■ 대구시 달서구 성당 1동 198-10
TEL : 053) 628-5404

복지도량 건립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주 지 무 공

■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TEL : 053) 581-0770
FAX : 053) 581-1770

재단법인 선학원
여 여 원

대 중 일 동

■ 대구시 달서구 송현 1동 1982-4
TEL : 053) 622-0336

재단법인 선학원
수 도 사

대 중 일 동

■ 대구시 수성구 범어 2동 136-44
TEL : 053) 743-7070

재단법인 선학원
대한불교 조계종 **보광사**

대 중 일 동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652-1
TEL : 053) 781-5794

대한불교 조계종
불 광 사
불광불교대학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 대구시 남구 대명 2동 1820-1
TEL : 053) 656-6766

대한불교 조계종 **통 천 사**

주 지 선 지

■ 대구시 동구 효목 1동 3-1
TEL : 053) 941-3503

재단법인 선학원
광 덕 사

신 도 일 동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1
TEL : 053) 767-2266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및 석공사 전문 건설업체

대 표 탁희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 054)955-8200~1

한일 무대 설비 공사

무대막, 전동시설, 스크린,
커텐, 무대 특수 조명 제작

대 표 황의웅

■ 대구시 중구 봉산동 90번지
TEL : 053) 425-9575
FAX : 053) 581-7885

대한불교 조계종
의성 봉림산 등운사

주 지 용 각

■ 경북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 효동 657
TEL : 054) 833-1082

대한불교 조계종 **남 장 사**

주 지 이성웅

■ 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
TEL : 054) 534-6331
FAX : 054) 531-0047

대한불교 조계종 **유 가 사**

주 지 혜 승
신도회장 도덕행

■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114
TEL : 053) 614-5115

화신기획인쇄공장

■ 맥 기획인쇄 ■ 변호 · 법무서식
■ 카다록/팜플렛/포스트/청첩장
업무양식/봉투 ■ 고속 · 칼라복사
■ 제본/코팅 ■ 명함/씨링/전단
■ 인장/고무인 ■ 책자/카렌다/다이어리
■ 상패/명패/깃발/현수막

TEL : 053) 755-4442~3
FAX : 053) 745-4443

태성주방기기백화점

· 상업용 : 주방기구류, 기물류
(그릇) · 가구류
· 가정용 : 혼수용품류 ·
씽크류 · 각종주방기구

대 표 김규락

■ TEL : 053) 256-1032(代)
053) 256-2186~8
FAX : 053) 256-1033

동명건설산업(주)

대 표 이민균

■ 대구시 서구 상리 1동 588-3
TEL : 053) 558-0350~1
FAX : 053) 558-0352

(주)유진식품

감식초

대 표 김명현

■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농공단지 1107
TEL : 054) 373-3131~5
FAX : 054) 373-3133

하나반점

대 표 이선희

■ 대구시 달서구 성당 1동 54-14
TEL : 053) 473-6336

용지 목욕탕

대 표 최만영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462
TEL : 053) 783-5828

태공 산업

(자동판매기, 전자 오락기 제조)

대 표 이윤옥

TEL : 053) 356-4066

동성한약방

원 장 최춘길

■ 대구시 중구 동성대로 3가 47번지
TEL : 053) 252-6411
FAX : 053) 255-2769

천일 인테리어

대 표 유위현 (법봉)

■ 경북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92-2
TEL : 053) 817-5617

델타석유

대 표 박성일 (보경)

TEL : 053) 767-5122
핸드폰 : 016- 531-5006

전 억 종

■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1372
우방청아 105동 503호
TEL. 자 택 - 053) 783-8857
사무실 - 053) 254-9834

오아시스

(썬팅, 경보기)

대 표 예병우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065-96
TEL : 053) 768-8558

조일 테니스장

대 표 최완규

■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174
TEL : 053) 768-4300

현대 자동차 부품 대리점
동남 자동차 부품

대 표 박희천

■ 대구시 동구 입석동 965
TEL : 053) 983-6001



박태원 교수의 34

불교로 보는 인생

삶과 죽음의 화해

죽음앞에 당당하려면 지혜 키우는 방법뿐

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감기에 고생하더니 일주일 째 먹던 감기 약을 먹은 직후 아찔하며 이상 증세를 느꼈단다. 그 날 밤 누이는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뇌경색이었다. 어이없는 소식에 급히 달려간 병실에는, 전날 아침까지도 통화하며 '아무래도 약물 중독인 것 같아' 하던 누이가 의식을 잃고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수술을 해도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못합니다. 수술 여부를 가족들이 결정하십시오." 고2, 대학 1년 두 조카들의 마음은 예상보다 여물어 있었다. "저희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시더라도 곱게 보내 드리겠어요. 평소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나올 때 어머니와 얘기 나눈 적도 있어요. 어머니 의견은 저희가 알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고통을 애써 안으로 삼키는 조카들. 가족들의 얼굴을 차마 직시할 수 없었다.

한 번도 언성 높여 다투어 본 적이 없는 누이다. 어머니를 닮았는지 거친 말 한 마디 입에 담은 적이 없고,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심성, 놀라운 예술적 감수성과 직관력, 천재적 지능이 돋보이는 누이다. 결혼 후에는 학문의 길을 걷는 매형의 내조와 총명한 조카들의 교육을 위해 실로 헌신적으로 노력하던 누이. 이제 막 인생의 절정에 오르는 때, 이 고운 누이에게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무겁고 슬프고 착잡한 마음에 휘말리며 병실로 들어가 누이의 손을 잡았다. 정신 차려 마음을 챙기면서 눈을 감았다. 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고서 누이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간절하게 보냈다.

누이는 인복이 있는가보다. 평소 인연 있던 분들이 모두 찾아와 간절히 누이의 회복을 빌어 주었다. 동네 주민들도 정성을 모아 다녀갔다. 누이 곁을 떠나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지방에서 올라와 밤을 새우며 병실을 지키는 조카 큰아버지 가족들, 딸을 앞세우지나 않을까 열심히 염불하시는 부모님. 이 모든 마음과 정성에 교감하였는가. 누이는 극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전날까지 절망적으로 말하던 의사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 확인해 주었다. 그렇게 일주일만에 누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일주일만에 겨우 터널을 빠져 나왔어"라고 전화하는 매형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눈에는 창 밖의 신록이 안겨왔다.

죽음은 삶의 숙명, 삶은 언제나 죽음을 기다린다. 중생에게 죽음은 전부와의 헤어짐이요 몽땅 상실됨이다. 경험되던 모든 것들을 박탈하는 저 죽음의 심연은 항상 발 밑에 도사리고 있다. 인간은 죽음을 음미하는 독특한 생명체다. 살면서 죽음을 음미할 수 있기에, 인간은 죽음을 통해 존재의 수준을 높여가기도 한다. '모든 것의 잃어버리짐' 과 그 고통을 예상하기에, 인간은 죽음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삶의 무게를 더해 간다.

중생들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충돌한다. 삶은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은 삶은 밀쳐낸다. 둘은 그렇게 상호 배제적이고 모순적이다. 그 충돌의 굉음은 실로 받아내기 힘든 고통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장수와 천수의 요행이나 바라며 속절없이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삶과 죽음의 화해는 불가능한 것인가. 삶과 죽음이 따뜻하게 만나는 통로는 없는가. 해법은 마련되어 있다. 삶과 죽음의 벽을 허물어 서로를 소통시키려면 무아(無我) · 무분리(無分離) · 무소유 · 무집착의 지혜에 열리고 그 힘을 키워 가는 수밖에 없다. 생의 모든 내용물들을 분리와 소유와 집착으로 경험하지 않을 때 죽음은 비로소 단절과 상실이 되기를 그칠 터. 생각과 말은 쉽고 체득은 어려움을 절감하지만, 죽음을 담담히 안을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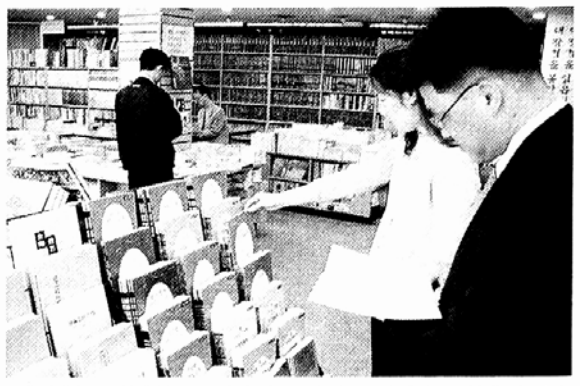
초파일 등불에 기원한다. 사랑하는 누이, 생명 성숙의 기회를 금생에서 좀 더 가져 봅시다. 병고에 노출된 모든 이들이여, 평안하소서.

울산대 철학과 교수

법화정사 **매주 법화경 사경**

도피안사 **법회때마다 봉헌**

참불자의 길 사경하는 곳



◇한 불자가 사경을 위해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사경코너'에서 사경책을 고르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신심을 함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불교가 다방편의 종교란 점이 이를 반증한다. 한 권의 경전을 옮겨 적는 일, 즉 사경(寫經)을 수행의 한 방편이자 전법자로 비유되는 것이 이 때문일 것이다. 한 자 한 자 불심을 넣어 쓰는 사경이 이제는 불자들의 주요한 수행방편으로 인식되면서 가르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경대회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한편 사찰의 모든 신도들이 사경을 하는 등 사경은 이제 특정인들만의 신행과 수행법이 아니다. 연령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상태다.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사(주지 도림)와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 불사리탑사는 10년 째 〈법사경〉 사경을 실시, 매년 광복절 탑에 사경한 책을 봉안하는 법회를 연다. 올해 사경한 것만 약 10만 여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사리탑사의 사경은 서울 포교당인 법화정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법화정사의 사경법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동안 열린다. 이 법회에서는 도림 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진행되며, 사경은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화정사는 최근 〈법화경〉 사경을 10번 이상 한 불자 250여명을 주축으로 '사경 전법회'를 결성해 사경수행 대중화에 나섰다. 불사리탑사의 사경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외국인들도 동참한다. 이를 위해 영어본 〈법화경〉을 출간했으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강의를 한다.(02-326-1331)

직장직능 단체도 사경정진 열심

도피안사는 안성에 사찰을 개창하면서부터 신도들을 대상으로 〈반야심경〉 사경 결사 수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도들은 가정에서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염송하고 저녁에 사경을 한다. 도피안사는 신도들의 사경수행 활성화를 위해 〈반야심경〉 사경책을 직접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이 책에는 사경법이 자세히 소개돼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사경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준다. 도피안사 측은 "법회 날마다 신도들이 가정에서 사경한 책을 불전에 올리는 것이 10여권이 훨씬 넘는다"며 "〈반야심경〉 사경을 통해서 반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을 성취할 수 있고 보현행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경 수행을 권했다.(031-676-8700)

이처럼 정기적으로 사경을 실시하고 있는 사찰이 있는가 하면 점차 많은 절에서 성도절, 열반절, 부처님오신날 등 특정일에 주로 사경을 권하고 있다. 사천왕사가 매년 생명사랑의 실천을 위한 '타태아기령천도사경법회'를 실시하는 것처럼 기도기간을 정해 놓고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국립 서울정신병원, 경산 조폐창 금강회 등 직장 직능단체에서도 사경은 빼놓을 수 없는 수행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사경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새로운 신행 풍속도로도 확산되고 있다. 여름 · 겨울 수련회 등에서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편 개인적으로 사경하는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이 청소년 지도자들의 얘기다. 특히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반야심경〉 〈보왕삼매론〉 〈출요경〉을 사경하는 공모전을 연다. 올해도 4월 28일 마감했다.

불사리탑사 주지 도림 스님은 "〈법화경〉 권발품에는 〈법화경〉을 서사하면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다며 사경의 공덕을 높이 보고 있다"며 "사경은 곧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익혀 실천하는 신앙행위로 수행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불법을 널리 알리고 경전을 후세에 전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덕이 될 수 있다"고 사경 수행할 것을 권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⑫

부추밀에 대한 답서(1)

일상의 삶 모두가 화두이며 자성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흔히 대혜종고 스님을 간화선의 창시자라고 한다. 그것은 대혜스님이 〈서장〉에서 화두를 공부의 요긴한 방편으로 제창하였기 때문이다. 〈서장〉에서 대혜스님은 여러 가지 화두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히 '조주무자(趙州無字)' 화두를 가장 즐겨 제시하고 있다.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스님이 말하기를 '무(無)' 하였다." 이 '조주무자' 화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편지가 '부추밀에 대한 답서'이다. 여기서 대혜스님은 화두 참구의 목적과 방법, 화두의 기능, 화두의 본질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화두 참구의 목적에 관해서 대혜스님은, "만약 곧바로 계합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단박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생사에 요달할 수가 있으며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방법으로서 화두의 참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두 참구의 목적은 문득 한 생각을 부수어버리고 견성하는 것이다.

화두는 곧 말[言語]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왜 견성의 방편으로서 '말을 보아라[看話]' 고 요구하는가? 대혜스님은 '조주무자' 화두를 제시하고서 말하기를, "이 한 마디 말은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무찌르고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하고, 이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와 수행자의 병통을 언급하고 있다. 즉 화두를 방편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화두가 잘못된 견해와 수행 도중에 처하는 여러 병통을 부수어서 올바른 견성의 길에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으로 대혜스님은, "다만 망상으로 전도된 마음과 사량분별하는 마음과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과 지견(知見)으로 이해하는 마음과 고요함을 즐기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시에 블잡아 눌러 두고, 그 블잡아 눌러 둔 곳에서 다만 화두를 보십시오"라 하고, "이것은 있니 없니 라고 이해해서도 안되고, 생각으로 이치를 사량하고 헤아려서도 안되고, 눈섭을 치켜올리고 눈을 깜박이는 곳에 의지해서도 안되고, 문자로써 증거를 삼아서도 안되고, 일 없는 속으로 도망쳐서도 안됩니다"라고 잘못된 공부를 경계하고 있다. 요컨대, 화두를 참구함에는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이나 견해의 경계에도 머물러서는 안된다. 어디에든 머무르는 순간 그것과 그것 아닌 것으로 나누어져 이법(二法)에 떨어져 버린다.

이러한 까닭에 무엇보다 먼저 주의할 점으로, "절대로 마음을 두고서 부수길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마음을 부수는 곳에 둔다면 영원히 부술 때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화두를 부수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곧 화두를 부수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화두를 대상으로 삼으면 늘 화두와 나는 별개로서 자타(自他)의 이원적(二元的) 분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만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속에서 늘 잡아쥐고 늘 알고 계셔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를 일상의 삶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만약 이와 같이 공부해간다면 언젠가는 문득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니, 그때에는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라 하고 있다. 스스로 보게 된다는 것은 곧 말[話頭]이 '일어나는 곳[起處]' 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자신의 자성(自性)에서 일어난다. 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경험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자성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화두가 일어나는 곳을 안다는 것은 "무…" 할 때, 이 "무…"가 바로 자성일 뿐임을 아는 것이다. 자성은 공(空)이므로, 이미 화두가 자성이요 일상사 모두가 자성임을 "물을 마셔서 그 차고 따스함을 알 듯이" 스스로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러므로 "무…"에는 어떤 다른 의미도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 다만 "무…"일 따름이고, 이 "무…" 속에 일상사 모두가 갖추어져 있다. 독자 여러분, 말[話頭]에 속지 마십시오!

가사불사 및 예수재 안내

■ 일 시 입제일 : 2001년 4월 29일(음력 4월 6일) 10시
회향일 : 2001년 6월 17일(음력 윤 4월 26일) 10시

가사(袈裟)는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법의(法衣)라고 합니다.
회유한 **가사불사**에 동참하면 무량한 지혜와 공덕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사년 윤달의 해를 맞이하여 세세생생의 업장을 참회하여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생전에는 복덕과 수명을 증장하고 사후에는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 하는 **예수생칠재**를
아울러 봉행코저 하오니 모든 불자님께서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는
선근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초재 5월 6일(음4월 13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영가천도재를 지냅니다.

◉ 가사불사 동참금
▣ 대 가 사 : 100,000원
▣ 반 가 사 : 70,000원
▣ 오조가사 : 50,000원

◉ 예수재 동참금
▣ 예수재 설판 : 200,000원
▣ 동 참 : 50,000원
▣ 영가1위당 : 7,000원

◆ 통도사
☎ 055)382-7182, 381-1442
FAX 055)382-7196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佛之宗家 國之大刹 **靈鷲叢林 通度寺 主持 薪虛 合掌**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⑦

마음 비우면 번뇌 없다

부처님 세계 가없는 허공과 같아

문명품의 끝 부분에서 열 분 보살이 함께,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이옵니까?" 라고 질문하자 선생님이 총평하듯이 문수보살의 게송이 펼쳐진다.

"여래의 깊고 깊은 저런 경계는 그 분량이 허공과 평등하여서 일체의 중생들이 들어가지만 실로는 들어갈 데 없는 것이라.[一切衆生入而實無所入]

인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오 믿음으로 알 경계도 또한 아니니 그 성품 본래부터 청정하여서 이런 것을 중생에게 열어 보이네."

위의 게송은 〈불지론(佛地論)〉이란 책에서, "부처님의 경계는 허공 외에는 비유할 만한 것이 없다" 하였고, 이어서 "들어가도 흔적이 없으니 비로소 진여라 할 수 있다. 진여는 본래 넓으면서 깊으니 언사를 초월하고, 깊으면서 넓으니 어찌 끝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래서 아래 게송에서, "분별심으로 아는 것은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니다[了別卽非眞知], 언뜻 알았다 하더라도 또한 진실로 아는 것은 아니다[瞥起亦非眞知]"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위의 게송도 흔히 사찰의 한 귀퉁이에 비바람 맞고 서있는 편액에 쓰여진 친숙한 게송이지만, 소중한 법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소개한 대로 '물 속에서 목말라 하고 눈을 감고서 안 보인다' 고 비유한 것일까?

다음은 제11 정행품이다. 화엄에서는 온갖 것이 선 아님이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쓸 것[善用其心]을 강조한다. 곧 모든 것을 좋은 것[善]으로 본다. 〈법화경〉에서는 증상만(增上慢)과 악성차익(惡性車匿)을 물리치는 데[性俱說] 비하여, 화엄에서는 일체를 선으로 보는 것[性善說]이다. 그래서 유위(有爲)에서는 무위(無爲)를 보려고 하고, 무위를 보면 더욱 수승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140여 가지 원을 끝없이 발원한다. 이를 10가지로 나누어 1.재가시절의 원 2.출가 · 수계할 때의 원 3.좌선할 때의 원 4.행각할 때의 원 5.용변과 손발 씻을 때의 원 6.걸식하고 도행(道行)할 때의 원 7.성(城)에 들어가서 걸식할 때의 원 8.돌아와서 씻을 때의 원 9.암송하거나 예불할 때의 원 10.휴식과 잠잘 때의 원을 말한다. 다음의 게송을 살펴보면 모두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는 명구들일 것이다.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증생들이 집의 본성이 공(空)함을 알아서 그 핍박을 면하기를 원할지어다 /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孝事父母]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온갖 것을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할지어다 / 수염과 머리털을 깎을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길이 번뇌를 여의고 구경에 적멸하기를 원할지어다 / 대소변을 볼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탐진치를 버려서 죄법(罪法)을 깨끗이 제하기를 원할지어다"

"만약 빈 바루를 볼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그 마음이 청정하여 텅 비어서 번뇌가 없기를 원할지어다[空無煩惱] / 만약 가득 찬 바루를 볼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온갖 선법을 구족하여 가득하기를 원할지어다 / 만약 밥을 먹을 때에는 마땅히 이처럼 원하라. 중생이 선열로써 밥을 삼아서 법희가 충만하기를 원할지어다[禪悅爲食 法喜充滿]"

보살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항상 위와 같은 마음을 기초로 하여 모든 공덕을 닦아 나간다는 내용이다.

때마침 24절기 중 곡우(穀雨)와 입하(立夏)가 든 이즈음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성불의 대원'을 비는 기도를 하도록 하자.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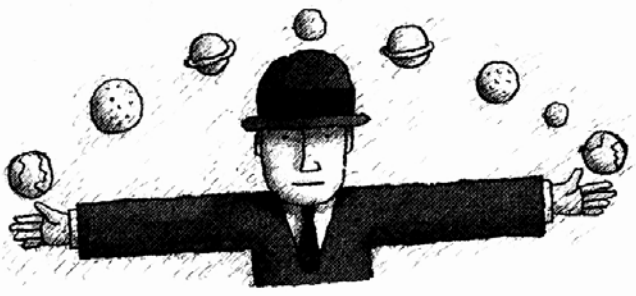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만물은 더불어 사는 존재

불교와 과학 〈26〉

생명체이거나 무생명체이거나 그 탄생은 모두 신비롭기만 하다. 생명을 넘어 우주는 더 그러하다. 천체물리학에서 본 우주의 탄생은 빅뱅이라는 대폭발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주 대폭발을 통한 우주의 탄생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원래 무엇인가가 있는 것에서 다른 방식의 있는 것으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있는 것과 새로이 탄생되어 있는 것 사이에는 소위 특이점(critical point)이라는 경계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들은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전혀 다른 물리계의 영역이다 전혀 다른 물리계란 우선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주와 전혀 다른 물리계라면 지금의 시간 개념 즉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만 화살처럼 앞으로만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시간일 수 있다. 이를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맞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의 시간 개념이라고 말한다 물론 대폭발 이전의 물리계에 대한 측정이나 실험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당연히 있을 수 없다. 어쨌든 우주 탄생의 시점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 사이에는 서로 우주적 기억의 다리가 놓여 있지 않아 서로 대화할 수 없는 분리의 성곽이 놓여져 있다.

현재 물리학의 수준에서 볼 때 우주 대폭발의 시점을 140억 년에서 170억 년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50억 년 전쯤 태양계가 탄생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함께 말이다. 태양계의 탄생은 참으로 신비 그 자체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적절한 주기를 갖고 운동하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다. 더욱이 지구의 탄생은 적절한 대기권과 풍부한 물, 태양열과 대기권의 조화를 통해 생긴 지구 표면의 적절한 복사온도, 물과 공기의 대류 현상 등 지구는 우주 한 가운데서 대서양 모래 한 알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 하나보다도 작은 것이지만 우주의 총체적 신비를 모두 갖고 탄생한 듯한 신비로움을 주었다.

이런 지구의 조화는 결국 생명체를 탄생시켰다. 진균 세포에서부터 수생 생물로, 식물류와 동물류, 그리고 나중에 동물은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종의 분화가 단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거듭되었다. 생명성의 특징은 먼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정한 패턴으로 보인다는 점과 생명체의 자기 존속을 위하여 에너지의 유출입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종의 유지를 위하여 자기와 같은 생명체를 증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 자체가 생명의 대단한 신비로움이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나 개천에 널린 돌 같은 무생명체도 마찬가지이다. 강물이나 돌들도 소나무나 물고기에 비하면 생명 아닌 무생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우주의 탄생 이전과 비교하면 엄연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의 신진대사니 진화니 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는 점이다. 강물이나 소나무나 아프리카 호랑이나 인간 역시 같이 함께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더불어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무생명이다. 더불어 살 수 있음이 결국은 가장 큰 신비로움이다.

탄생의 신비

한 올 털끝 위에 우주 펼쳐져 있듯
한 생명은 전체와 이어져 있어

한 사람의 인체구조에서 볼 때 모든 장기와 인식기능 구조가 모두가 서로서로 누가 말 안 해도 너무 조화로운 연결이 되어 있다. 먼지나 돌이 날아 오면 우리의 눈은 자동적으로 깜짝거린다. 배가 고프면 자동적으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경보음을 울려 준다. 외부와 온도 차이가 나면 자동적으로 피부에 소름이 생겨 온도조절을 해준다. 나무의 나이테는 세월의 기억장치를 보여주는 식물의 신분증이기도 하다. 더더욱 크나큰 생명의 신비로움은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적절한 시간 안에 스스로 소멸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죽음은 탄생의 시작을 다시 알리는 중요한 생명의 신호이며 또 다른 가장 큰 신비로움이기도 하다.

5월 1일은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 분의 탄생은 우주의 시작과 같이 하였지만 뭇 중생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탄생을 인간의 생사유전에 맞추어 또 다시 보여 주었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과 달리 부처님의 탄생은 탄생 전과 탄생 후를 연결하는 기억의 다리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탄생은 만물의 조화와 더불어 있음을 알려주는 생명의 신호이기도 하다. 작은 인연과 큰 연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광대하기도 하다. 한 올 털끝 위에서도 우주의 광대함이 다시 펼쳐져 있듯이 가장 작은 인연에도 가장 큰 연기의 네트워크가 얽혀 있다. 이것이 바로 탄생의 신비로움이며 신통변화의 조화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탄생은 더불어 살 수 있는 희망을 깨어나게 하는 개울가의 한 반딧불이기도 하다. 그 작은 반딧불이 광대한 우주의 탄생을 과거를 미래처럼 비추어 주고 있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2400만 에이즈 환자 자비의 손길 펼친다

지구촌 불교 /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

미국의 한 불교단체가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 돕기에 나섰다. 화제의 단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 (Buddhist AIDS Project). 이 단체는 원래 미국 내 에이즈 환자나 그 가족만을 도와 왔는데,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에이즈회의를 계기로 자비의 손길을 아프리카까지 확대한 것이다.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의 스티브 페스킨드 씨는 "에이즈 치료약은 미국이나 독일의 제약회사들이 만들고 있으며, 그 가격이 고가(高價)여서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불교에이즈프로젝트에서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는 전세계 에이즈 환자 70%에 달하는 2천4백50만여 명이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에 밀집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3백80만여 명이 에이즈로 숨졌다. 그들 중 4분의 1은 어린이다. 그런데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후진국 에이즈 환자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에이즈 치료제 가격을 낮출 것을 호소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사람들.

비싼 치료제 가격인하 캠페인
아프리카서 의료봉사 활동도

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높은 가격으로 치료약을 유통시켜 비난을 사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치료약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제약회사를 방문해 아프리카 등 후진국의 에이즈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회사스스로 치료약의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세계적 제약사인 머크사는 성인의 36%가 에이즈에 감염된 보츠와나의 에이즈 치료를 위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재단' 과 함께 1억 달러의 약품과 자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게이츠재단이 보츠와나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해 5년 간 5천만 달러를 기부하고 머크사는 이 프로그램 관리와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 기증을 통해 5천만 달러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불교에이즈프로젝트는 최근 나이지리아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국제 의료봉사단의 활동을 돕는 한편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데에도 적잖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불교 에이즈 프로젝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18일 나이지리아에서 모인 아프리카 대륙의 정상들은 "수백만 가구의 가족들이 좌절에 빠졌다. 아프리카 어린이의 5%가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다. 1천2백만여 명이 넘는다. 부모들은 무력감에 몸서리칠 뿐이다. 아이들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 원조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에이즈 관련 국제 단체인 'HIV/AIDS 치료 대중운동' 측은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7억 달러 수준의 지원 규모에서 10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奉 보덕선원 서암대종사 하안거 결제 대법회 祝

보덕선원에서는 서암 대종사의 지도하에 신사년 하안거 결제 정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진하실 비구스님과 보살님들께서는 하안거에 많은 결제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대 각 회
삼각산 보덕선원 선원장 오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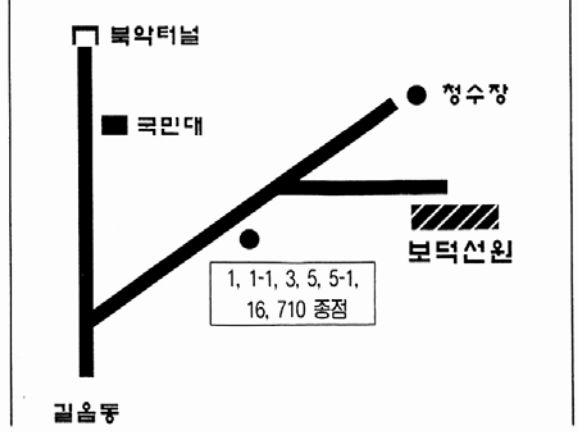


서암 대종사

일 시 : 불기 2545년 (2001년)
5월 8일 (음력 4월 15일) 10시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824-1호
삼각산 보덕선원 대법당
문의처 : 보덕선원 02-914-4235

■ 교통안내
- 지 하 철 : 4호선 성신여대 입구 하차
  → 일반버스 (하단) 탑승 종점 하차
- 일반버스 : 1, 1-1, 3, 5, 5-1, 16, 710 종점 하차

찾아 오시는 길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전법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향림사**
조 실 천 운
주 지 혜 향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
TEL 062)375-7600~1
■ 광주불교대학 / 대학원
TEL 062)375-7603, 7633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사**
주 지 현 지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주 지 경 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 1동 193
TEL 062)261-1529

대한불교 조계종 **증심사**
주 지 영 조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TEL 062)226-0107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성 호
총 무 석 장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
TEL 062)376-3223 / FAX 062)376-3224

대한불교 조계종 **흥룡사**
주 지 상 운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3-1
TEL 062)651-5083

한국불교 태고종 **법륜사**
주 지 월 인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4-5
TEL 062)375-7444

동곡사
주 지 혜 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 188-1
TEL 062)232-6995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주 지 명 신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1동 448-35
TEL 062)227-7295

대한불교 조계종 **선덕사**
주 지 행 법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 3동 572-1
TEL 062)263-4660

한국불교 태고종 **운천사**
주 지 금 명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1
TEL 062)375-0053

생활신의 불교도량 **광륵사**
자신을 등불삼아
진리를 등불삼아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92
TEL 062)222-7801

대한불교 조계종 **무각사**
주 지 광 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 1 (상무지구)
TEL 062)383-0108

대한불교 조계종
모악산 불갑사
불갑사 선원
조 실 수 산
주 지 만 당
신 도 일 동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TEL 062)352-8258

대한불교 조계종
나한산 만연사
주 지 오 안
신 도 일 동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79
TEL 061)374-2112 , 4564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
주 지 현 장
신 도 일 동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831
TEL 061)852-1775
◎ 자비신행회 ◎
TEL 062)222-1165

보현정사
주 지 법 장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545-23
TEL 062)652-4730

대한불교 진각종 **영광 심인당**
주 교 지 정 정사
신교도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4-7
(동광주 병원 옆)
TEL 062)263-5272
·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 10시~12시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주 지 현 정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47-5
TEL 062)652-4763

문사수법회 정진원 **정토사**
회 주 한 탑
주 지 혜 광
신 도 일 동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2구 492-1
TEL 061)381-0108

광주불교 전통의식대학
확 장 혜 공
종도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
TEL 062)362-8604
-- 수륙영산대제 --
음력 4월 27일 28일 나산 수명사
061)322-8604 , 011)614-8604

한국불교 여성회
(광주지회)
회 장 윤혜월성
회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 2동 484-4
(능인불교회관 내)
TEL 062)226-4729 , 673-3001

대일불상조성소
불상, 석불, 동불, 목불, 대리석,
순금, 인조석등, 조각탱화, 조각일체
- 범종 불사 일체 문의 -
대표 : 심준식 (우형) 심민우 (자)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57-91 4/1
TEL 062)652-2384
(부) 011)642-2384 (자) 011)604-2384

사보, 사찰홍보물 전문 기획 제작
부 다 기 획
대 표 이 해 모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6-11
TEL 062)225-8825 / FAX 062)225-8826
핸드폰 011-616-8825
e-mail : buddhacom@hanmail.net

광주불교능인회
- 불교식 장례는 불자들 손으로 -
• 사단법인 광주 불교 능인회
• 광주불교능인회 새마을금고
• 광주불교능인회 장의부
대표 : 김두원, 임직원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4-4
TEL 062)226-5161~3 FAX 062)234-8485

관음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정현
임 직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 54-1
TEL 062)224-1921
FAX 062)226-3757

깨침의마당 배움의 공동체
광주불교 교육원
광주불교 문화대학
광주불교 문화대학원
이사장 이범식 학장 영조
학 인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2-17 봉산B/D 4층
TEL 062)228-9098 FAX062)228-9003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회 광주지역본부
(장기기증 운동으로 생명을 살립시다)
지역본부장 영조
상임위원 오자섭 후원회장 김초희
• 희망나눔(백혈병등 혈액질환자를 위한 혈소판 헌혈 봉사자 모임)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5-1 (2층)
TEL 062)234-6602/FAX 062-225-9105

승강기 주차기 보수전문업체
성경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재성
직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88-10 임동B/D 3층
TEL 062)062-528-0461~3
FAX 062)528-0460
핸드폰 011)601-8416

도심속의 솔밭전통찻집
연 다 원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
TEL 062)375-6056
- 무각사내 불일서점 -
(불교용품 , 불교서적)
전화 062)372-0108

열렸다! 사이버 부처님 세상

1사찰 1홈페이지 갖기운동 '열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로 구성된 '인터넷 불교'의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에 동참한 사찰들의 홈페이지가 5월 1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정식 가동됐다. 현대불교 신문사가 공동으로 펼치는 이 운동에는 본지 보도(4월 11일자 제3.4호) 이후 2백여 사찰이 회원 가입신청을 했다. 이들 사찰은 5월 1일부터 홈페이지 자동생성기를 통해 홈페이지를 구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찰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 다양한 감각으로 불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동참한 사찰은 충남 지역의 수덕사와 마곡사 말사들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전국에서 가입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인터넷 불교'는 회원들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버 용량확대와 각종 제휴를 통한 컨텐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한 공주 명지장사 주지 노휴 스님은 "가입 절차가 간단해 사찰에서 손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은영도 편리하다"며 "홈페이지에 구현되는 20여 가지의 메뉴들을 적극 활용하면 포교와 사찰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백여 사찰 회원가입
자동생성기 위력 과시

어떻게 가입하나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은 '인터넷불교'와 현대불교 신문사의 부다피아 기술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홈페이지자동생성기를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운동에 동참해 사찰 고유의 홈페이 갖기를 원하는 사찰은 대표 도메인 http//www.B3.to 혹은 http//www.buddhapia.com에서 인터넷 불교의 홈페이지 갖기 운동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비(월 9천원, 1년 10만원)를 송금하면 홈페이지자동생성기 설치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받게 된다. 사찰에서 컴퓨터에 설치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받게 된다. 사찰에서 컴퓨터에 설치프로그램을 구현시키고 대표도메인에서 사찰의 주소를 부여받는다. 사찰의 주소는 http//www.○○사.B3.to의 형식으로 주어진다. 주소를 부여받은 후 프로그램에 따라 사찰의 정보를 입력하면 홈페이지가 완성된다.

사찰에서 자료 입력과 동영상 관련 작업,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터넷 불교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어떤 기능이 있나

인터넷 불교에서 자동 생성되는 사찰 홈페이지는 사찰 홍보, 종무행정,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 20여 가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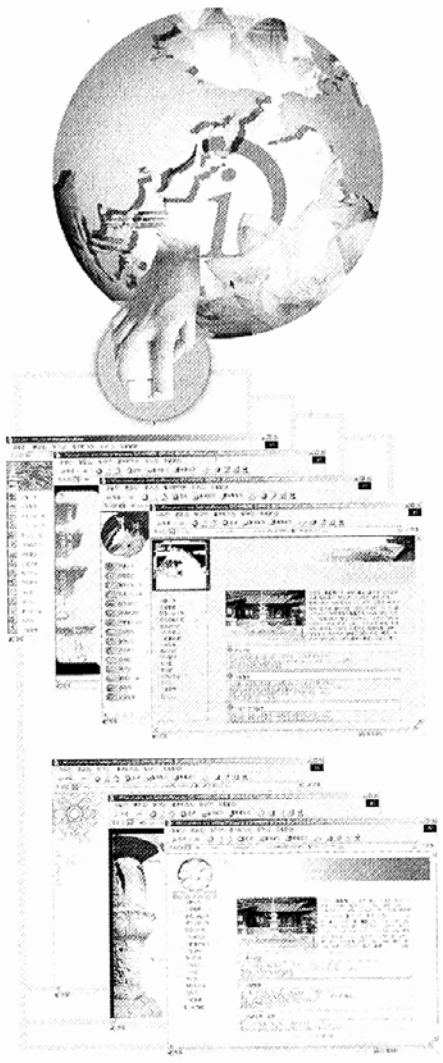
사찰 홍보 관련 메뉴는 찾아오는 길, 사찰 및 주변 소개, 주지스님 소개, 전각 건물 소개 등의 기본 틀이 구축되어 있다. 사찰의 최대 관심사인 종무행정 관련 메뉴로는 웹엽등 접수, 신도 관리, 기도관리, 기도 예약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구현된다. 또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거나 알림 사항을 보내는 기능도 있다. 쪽지 보내기 기능은 스님과 스님간의 공지 사항 보내기도 가능하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회일정 등을 공지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사이버 인등과 사이버 영단, 법문 듣기 등의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사찰의 홈페이지에서 대표도메인으로 링크하면 각종 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부다피아로 링크하면 현대불교가 제공하는 붓다뉴스와 온라인 서점 여시아문, 마하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에 동참하면 사찰의 개별적인 서버구입이 필요없으며 기술개발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 사찰에서 필요할 때마다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과 완벽에 가까운 보안성도 '인터넷 불교'가 내세우는 자랑거리다.

홈페이지의 초기화면과 각 메뉴들의 디자인은 현재 개발된 10여 가지에서 언제든지 선택하여 변화를 줄 수 있다. 인터넷 불교는 100여 가지의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가발해 선택의 폭을 넓혀 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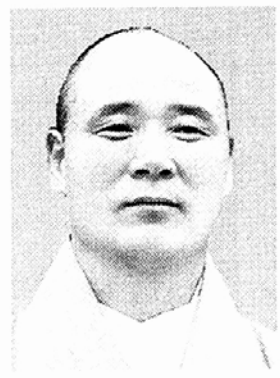
임연태 뉴미디어 부장



그래픽 · 최정근

인터뷰 '인터넷 불교' 설립주역 진허스님

"정보시대 앞서가기 주춧돌"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로 구성된 '인터넷 불교'는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의 전개를 통해 전국 사찰의 홈페이지 갖기를 발원했다. 3월 26일 정식 출범한 '인터넷 불교'는 이 운동과 아울러 불교정보 네트워크 구성과 사찰 종무행정 및 포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불교' 구성의 주역은 마곡사 주지 진허 스님이었다. "인터넷은 선(禪)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진허 스님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래머들에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 선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에서는 고정관념을 거부합니다. 파격이 있어야 자성을 개오 하는 선의 취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들의 일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인터넷 환경도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경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같은 흐름에 가장 능동적이고 선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불교를 구성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찰이 홈페이지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찰이 인터넷에 또 하나의 사찰을 세우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많은 사찰들이 여건이 미비하거나 관심 부족으로 인터넷 세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착되면 포교는 물론 변화해 가는 삶의 방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터넷 불교는 광대무변한 불교의 세계관을 현실화한다는 마음에서 발원했으며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흔쾌히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본사도 있는데….

▲거의 모든 본사 주지스님들이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회장단에 합류할 것으로 믿습니다.

—'1사찰 1홈페이지 갖기 운동'은 어떻게 전개하실 계획입니까.

▲많은 사찰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한 교구본사가 각 말사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 갖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 할 것입니다. 기술과 자료 지원이 필요한 사찰에 대해서는 인력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우선은 사찰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펼치고 하반기부터는 불교관련 업체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부처님 오신날 향다운 향으로 공양올립시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의식용 목욕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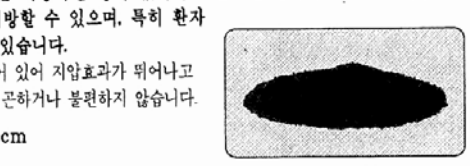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환자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 × 40cm
▷ 무게 1.5 ~ 2kg



32종의 한약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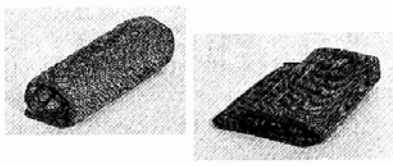
※ 석씨향방 제품은 주문하시는 형태로 다양한 크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베개, 박하베개, 질병치료용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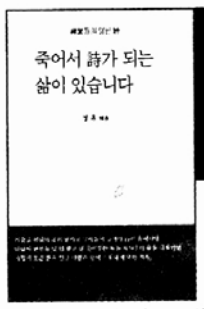
▷ 크기 70cm × 40cm ▷ 무게 3 ~ 4kg



※고객 취향에 따라 다양한 모형으로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 협 100016-52-018512 예금주 : 김 남 서

죽어서 詩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정휴 엮음 / 127면 / 값 5,000원

가슴을 데워야
江이 열리고
그리움이 깊어야
山이 움직이네
바람이 잔설을
몇 번 쓸고
잠 못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물을 뒤척이면
저렇게 꽃은
문을 열고
바람과 함께
소요하며 오는 것을

이 禪詩(임종게)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이 임종을 준비하는
떠남의 언어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진리회귀의 영혼의 모음이 있으며,
앉아서 열반하기가 싫어 서서 입적하는
해탈의 몸짓이 있으며, 걷다가 문득 명상에 잠겨
보리수 잎을 잡고 입적하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비록 진리가 언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선사들이 남긴 임종게 속에는 해탈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禪師들의 열반 詩



정휴 엮음

죽음이 이처럼 아름답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생사를 초월한 선사들은 앉아서 열반하거나
서서하였고 또 걸어가다가 입적하여 열반이
즐거움이 되게 한 감동적 이야기.

정휴스님 신작수상집

적멸의 즐거움

禪師들의 入寂과 임종게를 중심으로

내 몸에서 사리를 수습치 말라. 그리고 부도와 탑을 만들지 말고 시신은 산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청활선사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적멸의 즐거움 본문중에서

작은책 / 정휴 지음 / 336면 / 값 3,800원

전화 | 313-5047 팩스 | 393-9696 우리출판사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대한불교 천태종
천태종 백양산 삼광사
주 지 김도원
총 무 서덕재
교무 정도웅 재무 김광성
노전 조진강 신도회장 안영일
신도부회장 윤인오, 오귀분
사부대중일동 합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 051)808-7111~5 / 803-1332
인터넷 삼광사(http://www.samkwangsa.or.kr)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최응원
고문 강병중 서춘석
상임부회장 박수복
부회장 김윤환 김종대 이근철 이상태 허문원
감사 박수관 박영근
회원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7-44
박수웅산부인과의원 4층
TEL : 051)818-9914 / FAX:051)818-9916(사)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정토사
부 설 정토불교대학
정토간병회
주 지 덕진
사부대중 일동
■ 울산시 남구 옥동 803-5번지
TEL : 055)274-3800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사
부 설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흥 덕암
주 지 지원 원장 설곡
신도회장 김홍관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61-3
TEL : 051)624-3754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 장 황국근
외무부회장 안강수 내무부회장 허욱경
연수원장 박규보 감 사 류상영
사무국장 하재훈
상무위원 일동
부설 가람뫼문화답사회 : 051)851-5209
대불청 직영 수련 꽃집 : 051)852-1007
■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1320-49 2층
TEL : 051)851-5209
FAX : 051)851-5210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강 선 태
상임부회장 임채수
부 회 장 김창석 박성빈 박창선 설동근 이영숙
이종화 임승남 정금강행 하도명화
감 사 서병훈 오양효
사무총장 강동균 재무총장 하만경
이사·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TEL : 051)853-2021 FAX : 051)853-2036

아미타 성지 - 부처님 꽃이 핀 도량
운봉산 백운사
주 지 마 나
신도일동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산 136번지
(동부산 대학 뒤편)
TEL : 051)542-4630 / 543-4631

대한불교 조계종 · 가락최대고찰
신어산 은하사
주 지 대 성
보현회
금옥회
청년회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김해시 삼방동 888번지
TEL : 055)337-0101

삼보불교예술원
임직원 일동
불교용품, 불상, 탱화제작,
개금 각종불사, 인쇄기획 컨문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41-45
TEL : 051)205-4535~6
FAX : 051)205-4537

대한불교 조계종
묘봉산 혜원정사
조실 고 산
주 지 효 명
고신장학회 관음회 청년회선지식회 연꽃부부회
대학생회 자비회 포교사회 중.고등학생회
만불회 선원대중 어린이회 지장회 혜원합창단
■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산 1113-1
TEL : 051)866-7771 / FAX : 051)866-7777

재단법인 선학원
양산 천불사
회 주 도 봉
주 지 도 영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3-4번지
TEL : 055)382-1463

대한불교 선각종
고산사
주 지 벽 해
신 도 일 동
■ 전남 장흥군 장평면 용강리 산 29-5
TEL : 061)862-3392

대한불교 선각종
해인사
주 지 명 인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 2동 137-8
TEL : 062)251-5422

대한불교 선각종
수향사
주 지 벽 해
신 도 일 동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덕암산
TEL : 061)553-0990

대한불교 선각종
자성사
주 지 명 지
신 도 일 동
법회안내 (오전 10시 30분)
초하루 법회
지장제일 법회(천도법회)
관음제일 법회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9
TEL : 062)673-0877

한국불교 태동종
신흥사
주 지 경 우
신 도 일 동
■ 충북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산 3
TEL : 043)843-4261
FAX : 043)852-4261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1300년 신라고찰 우곡사
주 지 인 걸
총 무 설 암
신 도 일 동
■ 경남 창원시 동읍 단계리 7
TEL : 055)291-3100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
주 지 성 본
신도회장 정갑윤
신 도 일 동
■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118
TEL : 052)211-3340 / FAX : 052)244-9647

대한불교 조계종
동명불원
주 지 장 산
신도회장 이자성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7
TEL : 051)624-7667 / 628-0496
FAX : 051)626-7498

대한불교 조계종
사나사
주 지 화 암
대 중 일 동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04
TEL : 031)772-5182
031)771-5990(팩스겸용)

대한불교 조계종
금지암
주 지 도 진
신 도 일 동
■ 충남 부여군 내산면 금지리 43
TEL : 041)834-5420

대한불교 조계종
보광사
주 지 계 호
신도일동
부 설 룸비니 유치원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리 167
TEL : 033)343-3007 / 344-0956(유치원)

대한불교 조계종
보덕사
주 지 대 웅
총 무 대 선
신도일동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277
TEL : 041)337-4350

대한불교 관음종
지장영험도량 용암사
주 지 박법찬
총 무 성 추
신 도 일 동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502
TEL : 041)752-5320

대한불교 조계종
통천사
주 지 선 지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
TEL : 053)941-3503

금강정사
주 지 정 덕
포교원 신도일동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 458번지
TEL : 02)2238-3285

한국불교 태고종
무학사
주 지 혜 성
신 도 일 동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 2동 412
TEL : 031)291-4667

대한불교 무량종 총본산
지리산 칠보장사
주 지 혜 안
신 도 일 동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TEL : 055)883-7771, 7790
FAX : 055)882-9916

영남불교대학교
행자모집 전통적인 바른수행과
민주적 신교육 - 모든지원함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주지경 학장) 직접 지도
대한불교 관음사(영남불교대학)
■ 대구 053)474-8228
www.Tvbuddha.co.kr

약사포교원 정법대학
주 지(철학박사) 장각성
(구 약사절)
신도회장 김수복
총 무 신정섭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66-4
TEL : 02)474-0554 / FAX : 02)472-5292

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 737-0695 Fax:02) 737-0696

무문관 수행 | 전국 30여곳 60여수좌 용맹정진

독방서 화두와 씨름 '부처되기'

'이 자리에서 깨치지 못한다면 일어서지 않으리라.'

겨우 몸 하나 움직일 만한 공간, 움막도 좋고 토굴이라도 좋다.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몇 년이고 바깥 세상을 피한다.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버리거나 못질을 해버린다. 이를 흔히 '무문관' 수행이라고 부른다. 선종의 유일한 적자(嫡子)임을 자부하는 한국불교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지고 도를 구하는 이도 드물어 불법이 쇠퇴하며, 교만과 시비가 넘치게 된다'는 말법(末法)시대, 승가의 수행기풍과 위계질서도 날로 흐트러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동·하안거에 수천여명의 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문관' 수행의 전통이 제방의 선원과 토굴에서 되살아나고 있으니, 불교중흥의 서광이 아닐 수 없다.

'무문관'은 원래 중국 송나라 선승인 무문 혜개(無門慧開)가 지은 책(〈선종무문관〉이라고도 함) 이름. 깨달음의 절대경지를 '무(無)'라고 표현하고, 이 무자(無字) 화두를 참구한 책이다.

조주(趙州)스님에게 한 학인이 "개(狗子)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없다(無)"고 대답했는데, 이때의 '무'란 세상에서 말하는 유에 대한 상대적 '무'가 아니라, 유무의 분별을 떠난 절대적 '무'를 가리킨다는 뜻에서 책의 제목이 유래했다.

움막으로 토굴로
한번 들어가면
몇년이고 면벽
하루한끼 일종식
죽기 각오 정진

물론 문을 닫고 정진하는 '폐문 정진(閉門精進)' 법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중국의 조주, 고봉스님 등이 즉기를 각오하고 정진했다는 '사관(死關)'도 무문관 수행의 일종이었다. 한말 경허스님이 동학사에서 폐문 수행하고, 일제시대 효봉스님이 금강산 신계사 선방에서 3년간 두문불출하며 정진한 것도 무문관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문관'이 하나의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64년 도봉산 천축사에서 정영스님이 '무문관'이라는 참선수행도량을 세우면서부터다.

부처님의 6년 설산 고행을 본받아 65년부터 79년까지 매회 6년간 현대의 고승들이 밖에서 문을 자물쇠로 걸고 면벽 수행했던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 용맹정진의 상징과도 같았던 천축사 무문관은 79년 원공스님(천축사 주석)을 끝으로 문을 닫았지만(현재는 흙 재가 함께 하는 시민선방으로 운영), 93년 계룡산에서 다시 '문없는 문'이 열렸다.

계룡산 자락에 자리잡은 갑사 대자암 무문관. 천축사에 처음으로 무문관이라는 수행 기풍을 세운 정영스님이 20여년의 정성으로 조성한 '삼매당(三昧堂)'이란 이름의 선원이다.

3층 규모의 웅장한 건물이지만 화장실을 갖춘 아담한 방이 12칸, 수좌들은 빈 몸으로 들어간다. 하루 한끼만 먹는 일종식에 묵언정진은 기본, 의사소통은 필담으로 이뤄진다. 세속 기준으로 보면 형무소의 독방보다 더 처절하다.

삼매당에는 현재 비구니 3명과 거사 1명을 포함한 12명의 수좌들이 5개월의 과정으로 7월 백중 때까지 용맹정진중이다. 방부는 2003년까지 이미 차 있으며, 앞으로는 2~3년 과정으로 전환할 계획. 시민선방(十方堂)에도 거사 8명, 보살 8명이 스님들의 수행열기를 따라 정진중이다.

대자암에 이어 94년 문을 연 무문관은 제주도 남국선원(선원장 혜국스님). 현재 4년째 수행중인 도현스님을 비롯, 7명의 수좌들이 정진중이다.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2005년까지 접수가 끝난 상태. 수행기간은 1년이 기본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수행자의 법랍은 평균 20년이상으로, 정진력을 검증받지 않고는 입방이 힘들다.

98년에는 설악산 백담사에도 '무금(無今)선원'이란 이름으로 무문관이 생겼다. 98년 하안거 때부터 3개월과정으로 문을 열었지만, 지난해 4월 15일부터는 3년과정으로 5안거 이상을 지낸 9명의 스님이 정진중이다.

지난 4월 10일에는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도 처음으로 무문관 입재 방부를 받았다. 5명의 스님이 3개월간의 무문관 결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입재는 윤4월 보름(양력 6월6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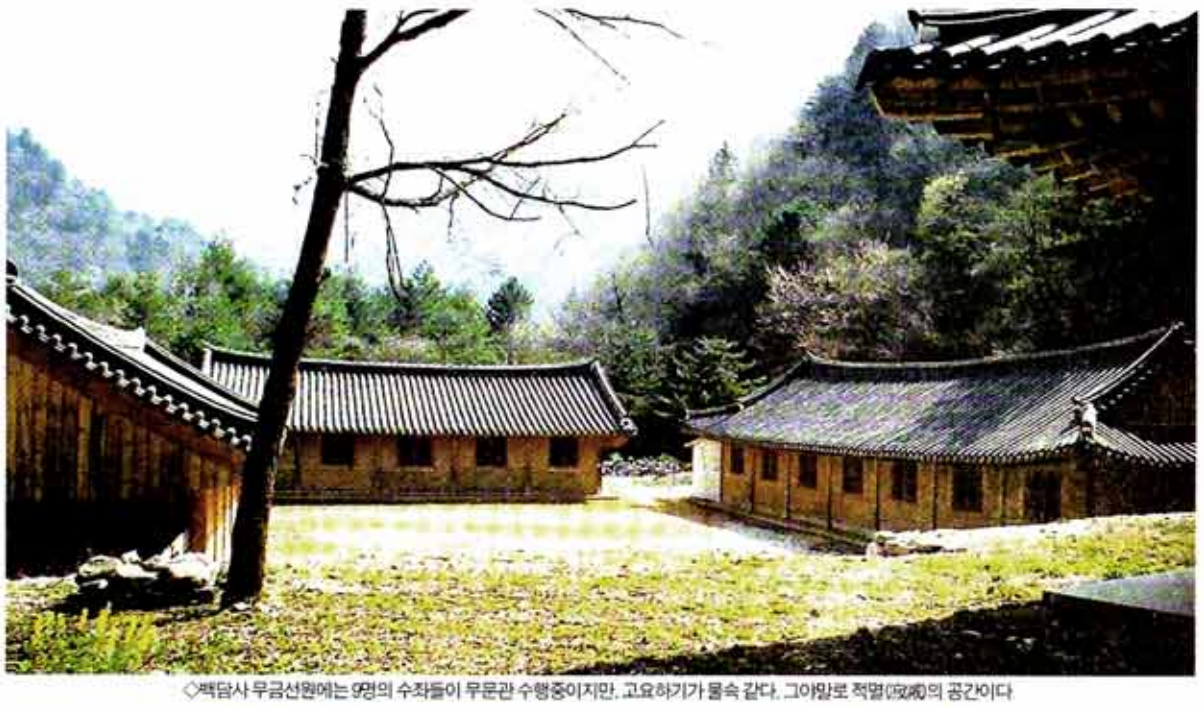
최근 빗장을 걸고 3년간 독방 좌선을 마친 원산스님(통도사 백련암)처럼 토굴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적지 않다. 수좌들은 봉정사 지조암, 태백산 도솔암 등 무문관 수행을 하는 토굴과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무문관은 30여곳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다 합치면 무문관 수행자는 60여명에 달하며, 매년 안거에 드는 2,000여 수좌의 3%에 해당한다.

무문관 수행은 높지 않고 화선하는 '장좌불와', 잠자지 않고 참선하는 '용맹정진'과 함께 가장 어려운 수행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문관에 방부를 들이려는 수좌들은 줄을 잇고, 무문관을 개설하려는 선원도 늘고 있다. 문경 봉암사와 충주 석종사를 비롯, 비구니선원이 있는 울산 석남사도 무문관을 준비하고 있다.

백담사 주지 일문스님은 "선방수행은 결제기간에 쫓겨 중단되기 쉽지만, 무문관 수행은 정진력이 붙을 때까지 치열하게 몰아붙일 수 있다"며 "중국에도 없는 무문관 수행이 이제 한국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수좌들은 예나 지금이나 관문을 돌파해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터지만, 그 문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문없는 문'을 들어가려는 대발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백담사 무금선원에는 9명의 수좌들이 무문관 수행중이지만, 고요하기가 물속 같다. 그야말로 적멸(寂滅)의 공간이다


◇지난 3월9일 '무문관 3년 결사'를 마친 원산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이 수행하던 통도사 백련암 무문관. 시자가 공양을 올리는 모습.


◇천축사 이후 무문관의 전통을 이은 계룡산 갑사 대자암의 '삼매당' 전경.

'문없는문' 나온 큰스님들


◇관응스님


◇도천스님


◇구암스님


◇원공스님

관응스님 천불선원 후학제접

도천스님 40년간 두문불출

구암스님 평생참선 '절구통'

원공스님 옷 두벌 22년 만행

1964년 천축사 주지 정영스님은 선객들이 참선도량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듣고 무문관의 필요성을 절감, 처음으로 천축사에 공식적인 무문관을 개설했다.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본받아 6년 결제에 들어갔는데, 2회차를 마친 후 79년까지 100여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였지만 기한을 제대로 채운 스님은 그리 많지 않다. 너무나 규칙이 엄했기 때문에, 보문 관응 구암 제선 현구 지효 경산 도천 관묵 천장 도영 석영 무불 원공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만이 이름을 남겼을 정도다.

당시 수행 참가자 가운데 현존하는 스님은 관응(직지사 조실) 도천(화엄사 조실) 구암(하남 광덕사 주석) 원공(천축사 주석)스님. 범어사 금오선원과 강원에 주석했던 대강백 지효스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름없는 토굴에서 치열하게 정진하다 입적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인 관응스님은 천축사 6년 면벽수행을 마친 후 당대 최고의 강백이자 선승으로서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직지사 천불선원 조실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역시 조계종 원로의원인 도천스님은 대둔산 태고사에서 40년간 두문불출하며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청규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남 광덕사에 주석하는 구암스님은 66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제방의 선원에서 참선만 해 온 절구통 수좌로서, 모든 소임을 마다하고 작은 절에서 수행에만 매진하고 있다.

천축사 무문관의 마지막 수행자인 원공스님(천축사 주석)은 22년간 1년의 절반 이상을 꼬박 '단행'(기별도 전하지 않은 채)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차를 타지 않고, 갈아입을 옷 두벌만을 지닌 채 무문관 3층의 한 방을 지키고 있다. '산에 도라지를 심는 사람들'과 함께 백두대간을 종주하기도 했고, 북한 동포 돕기 운동도 벌여왔다.

김재경 기자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상추계피시루떡





나옹선사가 오대산 북대 미륵암에 계실 때의 일이다. 대중 스님들의 식단이라야 감자보리밥과 된장에 상추쌈을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미륵암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라한 나옹스님이 상추쌈을 개울에서 씻겠노라고 자청하여 냇가로 나간지가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다 못한 스님들은 된장만으로 공양을 해야 했다. 반찬을 담당한 젊은 스님이 나옹선사를 찾아 개울가로 나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나옹선사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두 손으로 상추뿌리를 잡고 개울물에 여러 차례 담갔다가 물을 뿌리는 게 아닌가. 옆에서 말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엄숙했다. 젊은 스님은 넋이 나간 듯 "스님 뭐하시는 겁니까?" 그제서야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멀리 해인사를 바라보니 대웅전이 불타고 있어 상추 잎으로 물을 뿌리고 있었네." 젊은 수좌 스님은 나옹선사의 대답이 너무나 황당해 믿기지 않았다. 수좌는 미륵암에 돌아와 스님들에게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니 미친 중이 헛소리한다고 꾸지람을 받았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합천 해인사에서 객승 한 분이 미륵암에 올라왔다. 스님들 간에 서로 안부를 묻는 동안, 해인사 대웅전에 큰 불이 나서 다 전소 될 뻔했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소나기가 내려서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바로 나옹스님이 상추를 씻던 날이었다. 비로소 대중 스님들은 자신들의 빨래를 해주고 궂은 일을 도맡던 스님이 나옹선사인 것을 뒤늦게 알아보았다.

봄 상추가 먹기 좋을 만큼 자랐다. 상추계피시루떡은 절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에 내놓는 대표적인 연등절식 가운데 하나이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비타민 풍부…불면증에 효과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멥쌀 5컵, 상추 100g, 팥 3컵, 소금 1작은술, 계피 1작은술

요리법 ① 쌀을 불렸다가 소금간을 해서 빻아 체에 내린다. ② 팥은 삶아서 빻아 체에 내려 계피가루를 섞는다. ③ 상추는 씻어서 조그맣게 찢어 쌀가루에 버무린다. ④ 찜기에 팥고물을 깔고 쌀가루에 버무린다. ⑤ 찜기에 팥고물을 깔고 ③의 재료를 담아 위에 팥고물을 얹어서 찌낸다.

효능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식. 신경을 안정시키는 라쿠루신이 있어 불면증에도 특효. 또 피부건조를 막고 모발을 보호한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㉚

起信論不云乎 當念唯心 境界卽滅
기신론불운호 당념유심 경계즉멸
終不爲惱 又云 行者常以智慧觀察
종불위뇌 우운 행자상이지혜관찰
勿令此心 墮於邪網
물령차심 타어사망
當勤正念 不取不着 教旨如斯
당근정념 불취불착 교지여사
何得逐境背心 而求佛菩提哉
하득축경배심 이구불보리재
今時行者多云 但得念佛 往生然後
금시행자다운 단득염불 왕생연후
何有哉 不知九品昇降 皆有自心信解
하유재 부지구품승강 개유자심신해
大小明昧而發現也
대소명매이발현야

〈기신론〉에도 '오직 마음임을 생각하면 경계가 소멸되어 마침내 괴로움이 없다' 하지 않았던가. 또 '수행자는 항상 지혜로 관찰해서 이 마음이 삿된 그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져 집착하지 말라' 하였다. 가르친 뜻이 이런데 왜 경계를 따르고 마음을 등져서 불도를 구하려 하는가. 지금 수행자들은 흔히 '염불해서 왕생하면 그만인데 또 무엇이 있겠는가' 한다. 이는 구품(九品:정토에 왕생하는 아홉 가지의 품계의 단계가 있는 것이 다 제 마음의 믿음과 아는 것의 대소와 밝고 어두움에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알지 못해서이다.

或定意散意
혹정의산의

경에도 '최상의 진리를 알아 부지런히 수행하는 자를 상품으로 여긴다' 했는데 왜 총명하고 영리한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우둔한 근기를 감수하여 최상의 진리를 모른 채 명호만 불러서야 되겠는가. 또 〈만선동귀집〉에는 '구품 왕생에는 상하가 다 통한다. 때론 화국(化國:중생제도를 위해 그들 근기에 맞춰 나타내는 국토)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응신(應身)을 보기도 하고, 혹은 보토(報土:수행한 보람으로 얻은 부처의 땅)에 태어나 부처님의 참몸을 보기도 하고, 혹은 하루 저녁에 상지(上地:보살의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겁(劫)을 지나야 겨우 소승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고, 혹은 영리하거나 우둔한 근기로, 혹은 마음이 안정된 사람과 산란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하였다.

是知古今達者 雖求淨土 以深信眞如
시지고금달자 수구정토 이심신진여

왜 경계를 따르고 마음을 등지나
올바른 생각가져 집착하지 말라

專於定慧故 知彼色相莊嚴等事
전어정혜고 지피색상장엄등사
無來無去 難於分齊 唯依心現
무래무거 이어분제 유의심현
不離眞如 不阿凡夫二乘 不知轉識現故
불리진여 부동범부이승 부지전식현고
見從外來 取色分齊故也 如是則雖曰
견종외래 취색분제고야 여시즉수왈

경중이해제일의제 권진행자 위상품
경중이해제일의제 권진행자 위상품
豈以聰明靈利之心 甘爲鈍根
기이총명영리지심 감위둔근
不解第一義 但稱名號故 萬善
불해제일의 단칭명호재 만선
同歸集云 九品往生 上下具連
동귀집운 구품왕생 상하구달
或遊化國 見佛應身 或生報土
혹유화국 견불응신 혹생보토
親佛眞體 或一夕而便登上地 或經
친불진체 혹일석이변등상지 혹경
劫而方證小乘 或利根鈍根
겁이방증소승 혹이근둔근

이로써 고금의 달사(達士)는 정토를 구하되 진여를 깊이 믿고 선정과 지혜에 힘쓴다. 그래서 물질적인 색상이나 장엄 등의 일은 오고 감이 없기 때문에 분별심을 떠나 오직 마음에 의해 나타나되 진여를 떠나지 않는 줄을 안다. 그러므로 범부와 소승들이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임을 모르고 밖에서 오는 줄로 알아 색상과 분별을 취하는 것과는 다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관응스님

직지사 조실

"마음의 눈 뜨면 모두 부처님"

'오늘은 기쁜 날, 부처님 오신 날 …' 한 찬불가의 노래가사처럼 우리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쁜 날로 봉축한다. 하지만 경전에 눈밝은 이들은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바람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오늘은 괴로운 날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거짓나'에 속아서 괴로워 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오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김현 황악산에 토굴 하나 지어 수십년 간 두문불출 정진하고 계시는 직지사 조실 관응스님을 만나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와 수행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중암은 해발 1천여m가 넘는 황악산 중심부. 이곳을 찾아간 날은 길목마다 봄의 향연이 한창이었다. 길가엔 이름 모를 잡초들이 연두빛 새순을 수줍게 내밀며 천연의 융단을 만들고, 노랑 분홍 등 갖가지 꽃들이 앞다퉈 수를 놓고 있었다. 여기에 계곡물 소리와 산새들의 지저귐이 봄의 향연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이러한 자연의 신비로움은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암자의 모습을 선뜻 내어 주지 않았다. 오색의 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여러 번 되풀이되는 가파른 언덕이 발걸음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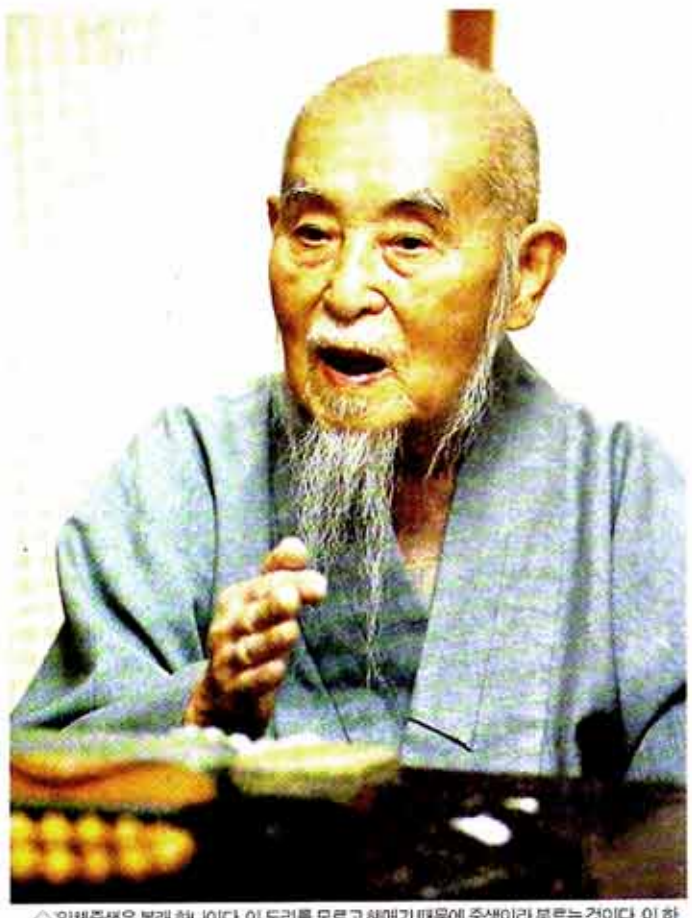
중암의 첫 인상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법당과 요사채는 암자답지 않게 웅장했지만 세속의 자취라곤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선계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푸근해졌다.

관응 스님을 뵙고 예를 올린 후 법문을 청했다. 스님은 처음엔 "큰 절의 스님들이 잘 알지, 이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돌아가라고 손을 내저으셨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자 한동안 침묵하시던 스님은 기왕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덕담이나 듣고 가라 하셨다.

"부처님은 오신 적도 가신 적도 없습니다. 참나인 무아(無我)가 부처님인데 따로 부처님이 오시고 가시고 할게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오신 근본 이유를 살펴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이나 수많은 설법을 했어도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 속의 부처 찾는 일이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일심으로 닦아 부처를 만나는 인연이 되는 기회이길 스님은 자신 속의 부처와 하나가 되어 부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것을 권한다. 마음의 눈을 뜨면 중생이 곧 부처란 얘기다. 이처럼 스님께서는 우주만물의 형상만 보지 말고 그 본디의 성질을 깊이 사유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물을 비유한 설명을 덧붙이셨다.

"물은 본래 티 없는 청정한 맹물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커피가루를 타면 커피가 되는 것이고, 된장이나 국거리를 넣어 끓이면 국이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몸 속에 들어가거나, 땅 속에 들어가 정화되면 본래의 성질인 맹물로 되돌아옵니다.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식(識)이라고 합니다. 이 식 때문에 안으로는 육근(六根)이 생기고, 밖으로는 육진(六塵)이 생겨서 18계가

> 부처님 오신날 봉축하는 것도 좋은일이지만 자신속의 부처 찾는 일 중요



◇ 일체중생은 본래 하나이다. 이 도리를 모르고 헤매기 때문에 중생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에 진력해야 한다'는 관응스님의 수행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육감으로 보는 것은 모두 가짜이며 허상입니다. 물이 본래 한가지인 것처럼 생명의 실상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등이 '나'라는 명제를 세우고 자꾸만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다 라는 진리를 터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이 위에서 동화됨으로써 소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모두가 자기에게도 와서 하나로 동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몰두하다보면 우주 법칙의 기운이 하나로 체화되는 묘력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무심 속에서 '나'라고 하는 강한 아상이 사그라지면 자유자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한 생명체로 보고 있다. 불교에서 말한 법이란 곧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 법을 깨달아 인격화한 분이 부처님이란 것이다. 깨침의 세계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생사가 따로 없을 뿐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열반적정(涅槃寂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불자들에게 이 깨달음의 세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법문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의 세계를 모르는 불자들에게 깨친 자의 입장에서 진리만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하니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란 것이다. 진리를 체득한 사람에겐 모든 것이 하나로 환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겐 육신 따로, 마음 따로 여서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생의 근기는 고려하지 않은 채 진리를 깨닫은 자의 입장에서만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부처님께서도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을 하셔서 대중들을 이끄셨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정사(正思) 정념(正念)을 먼저 강조한다. 스님은 자주 법문에서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여러 개의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생명체예요. 인간이 죽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생명체를 상일주재(常一主宰)한 진여법신(眞如法身)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불교는 생명의 실체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날부터 죽음의 고(苦)를 짊어지고 죽는 날까지 괴로움을 당하면서 무한한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스님은 부처님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생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삶으로

봉축 불기 2545년 부처님오신날 및 무궁주 친견대법회

귀의 삼보하옵니다.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과 가피가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황룡사(구 황후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새로운 서원으로 참불자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고 무량한 지혜와 공덕의 복전을 일구는 삶을 살아 갈 것을 서원하기 위해 봉축 대법회를 봉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밀리에 전해져온 아주 소중한 보물인 무궁주를 친견할 수 있는 친견대법회도 봉행할 예정입니다. 황룡사에 오셔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좋은 인연공덕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대법회의 인연으로 이나라 이국토에 희망과 보람과 발전이 거듭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과 마음에 염원을 담아 화려하게 꽃 피우고 새삶을 이르시길 다같이 기원합시다. 부처님의 공덕이 충만한 나날이 되기를 축원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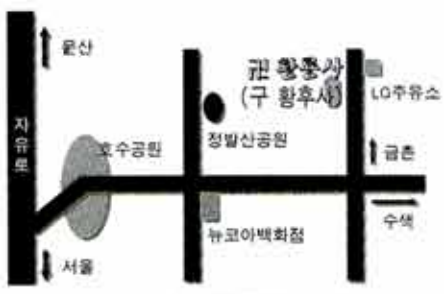


< 대법회 안내 >

◎ 일 시 : 불기 2545년(2001년) 5월 1일
(음력 사월초파일) 오전 10시

◎ 장 소 : 일산 황룡사 법당(구 황후사)

◎ 문 의 : TEL 031-921-7884, 921-5445
FAX 031-905-4607



교통 안내 3호선 마두역 하차 → 마을버스 7번 → 밤가시마을 8단지 앞 하차 → 황룡사

한국불교태고종 황룡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 4동 중정1로 10호

무궁주의 유래

무궁주란 : 무궁화꽃처럼 영원히 무궁하게 뻗어 나간다는 것.

용이 기거하는 맑은 샘에서(3000년 이상으로 추정) 부화되며 여러개중의 그 한개를 물고 용은 승천하며 아주 특별한 인연법으로 이 무궁주를 소장하게 되며, 인간이 운명할때 이 무궁주를 입에 담고 운명하면 내생에 원하는 삶이 꼭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또한 그 후손은 6대까지 더없이 발복한다고 전해내려 오기 때문에 먼 이전 왕가에서는 비밀리에 이 무궁주를 아주 소중하고 귀한 보물로 물려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악인이 무궁주를 소장하면 그 빛이 솔멸되어 그 가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궁주를 친견만 하여도 모든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이 무궁주의 친견 기회는 특별한 인연에 의해 아주 어렵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관응스님은

교학-참선 두루 섭렵

92세 불구 '맑은 얼굴'

관응 스님은 부루나 존자에 비견될 만큼 불교교리와 설법에 탁월함을 보이시고 특히 유식학(唯識學)의 대가로 더욱 알려져 있다.

스님은 1910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1929년 상주 남장사에서 탄흥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금강산 유점사 대교과를 비롯해 일본 용곡대학 불교과를 졸업하면서 교학에 대한 지적 기반을 튼실이 쌓았다. 직지사, 김용사, 용주사 등 여러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쳐 온 스님은 지난 88년에는 더 이상 늙기 전에 강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전국의 수좌 · 학인들을 모아 〈선문염송〉 강의를 열기도 했다. 이 때 배출한 10여명의 강사들은 현재 전국의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92세의 고령이어서 법문과 강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인재양성에 대한 원력만큼은 변함이 없다. 관응 스님은 평소 사람 키우는 일에 원력을 갖지 않는 스님들에게는 비판을 가했고, 불교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스님들에게는 설쳐댄다고 불호령할 정도로 매도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관응 스님을 교학에만 치중하지 않았다. 한일합방으로 불교계가 혼란해지자 선수행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지닌 스님은 예순살 때 그만의 화두를 들고 천축산 무문관(無門關)에서 6년 동안 치열한 구도행을 하며 수행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황악산에 토굴 하나 지어 그곳에 계신 관응 스님은 여전히 맑은 얼굴과 형형한 눈빛을 지니고 있어 스님을 친견하는 불자들에게 무언(無言)의 진리를 설파하고 계신다.



◇97년 9월4일, 관응 스님은 두문불출 15년만에 처음으로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 '한국불교 중흥 영산대법회'에서 대중 법문하셨다.

'나'에 집착할수록

삶과 죽음에 걸리고

눈 멀고 귀 막혀

진리와 멀어져요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다.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모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이며 이는 곧 인생철학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현상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주만물이 성(成) · 주(住) · 괴(壞) · 공(空)의 법칙에 의해 유전하듯 인간도 생로병사의 법칙에 의해 삶과 죽음의 명암을 이룹니다."

비록 육신은 쇠약해져 발음이 어눌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스님의 설법은 막힘도 걸림도 없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듯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자유자재했다.

스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간 법문을 해 왔으면서도 아직까지 한번도 법문 준비를 미리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미리 준비하는 법문은 참된 법문이 아니라는 것이 스님의 법문 철학인 셈이다.

"법회는 불자들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자기를 희생시켜 중생과 한 몸이 되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찌 법회장에 온 불자들의 심상을 보지 않고 미리 법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사가 법문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꼴이지요.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만으로 미리 법문을 준비하는 법사는 불법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면목을 찾으려면 욕망의 집착에서 먼저 벗어나야 하는 법입니다."

불자들의 알음알이를 잘 살펴 그에 적합한 설법을 해 오신 스님은 불교교리 특히 유식학의 뛰어난 대가로 평가받고 있다. 스님의 설교적 재능은 부처님의 제자 '부루나 존자'에 비견될 만큼 탁월하다고 한다.

한 때 스님 슬하에서 공부한 정휴 스님(구미 해운사 주지)은 "스님에게서 받은 첫 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신라의 뛰어난 예술이 빚어낸 반가사유상에서나 느낄 수 있는 내밀한 미소를 볼수 있었다"며 "해박한 경전 지식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논리 전개는 나의 학문의 허기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교학에 밝으신 관응 스님은 항상 "스님을 부처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셨다. 60년대 용주사에서 주지를 하면서도 강사를 자처해 학인들을 가르쳤던 일, 80년대 직지사에서 〈선문염송〉 강의를 열어 오늘날 각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10여명의 강사를 배출한 것 등은 인재 양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학에도 뛰어났지만 스님은 선(禪)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환갑의 나이에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여 동안이나 두문불출하며 수행한 일은 지금도 승가에서 회자되고 있다. 무문관이 어떠한 곳인가. 사방이 막힌 무명 속에서 모든 것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생사일여의 활로를 찾는 곳이 아닌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시방세계가 거대한 무문관이며 생활이 곧 참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수행론이다. 또 스님은 "참선 공부는 노장들에게 다년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덧붙이신다. 교학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 선공부는 글자를 떼어놓고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이 없으면 헤매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인간의 6근을 지혜의 구멍이라며 나무가 뿌리를 통해 땅의 기운을 받아 성장하듯, 6근을 통해 깨달음의 씨앗인 지혜를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또 자기의 본성인 법신을 파악하여 체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 일념으로 닦아야 한다고 수행의 중요성을 말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의 함정에 속박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대한 속박은 될지 모르나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는 자성까지 속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법신을 망각하고 무명과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인간적인 조건을 초극하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10여 년 전 관응 스님을 시봉한 혜현(상주 황령사 주지) 스님은 "스님은 컴퓨터 이상으로 엄청난 불교교리를 간직하고 계시지만, 항상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큰 스님의 이러한 겸손은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사표가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상좌를 잘 두지 않으신다. 스님을 스승으로 삼고자 여러 사람들이 찾아 왔지만 지금까지 출가시킨 상좌는 10여명에 불과하다. "가르칠 능력도 없는데 상좌를 많이 둬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것이냐"며 찾아오는 인연마저 끊어버린다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불자들에게 "천당이니 극락이니 하는 헛된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마음의 등불을 켤 것"을 당부하는 스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산길을 내려와야 했다.

삼도봉, 대덕산과 더불어 소백산맥의 연봉을 이루는 황악산, 그 심장부에 '이 시대의 대강백' 관응 스님이 주석하고 계셔서일까 하산하는 길에 보는 산세 또한 지극히 자비스럽게 느껴졌다. 그곳에 계시다는 자체만으로도 수행심이 불 일어나듯 분발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이심전심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큰스님, 관응 스님은 그러한 분이다.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관응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중암 우측 봉우리에 위치한 묘고대. 김천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에는 스님의 영정을 비롯 여러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정원스님 (1)

해인사에는 올해 77세인 을축생 노스님들이 네 분 계신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겸 해인사 방장이신 법전 큰스님과 도견스님 정원스님 송월스님 이시다.

그중 호랑이보다 무서운 노스님이 정원스님이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승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석에서 얼굴이 화끈해지도록 야단을 친다. 스님은 법전스님께서 해인사 주지를 할 때 총무를 한동안 하셨다. 주지인 법전스님은 사중 살림살이에 거의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직 소임자들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원스님은 평소 활화산 같은 성격에다 소임을 보지 않을 때에도 대중 스님들의 승행과 종무소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많이 지적했는데 총무 소임을 보고 있었으니 더욱 꼼꼼하게 지적하고 더 많이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섭게 야단치고도 돌아서면 마음에 담아두고 재론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님의 담백하고 단순한 면을 좋아했다.

종무소 직원 중에 조양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일을 잘못 해 매우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다. 꾸지람을 듣고 훌쩍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든 스님은 퇴근후 기분전환도 시킬 겸

호랑이보다 무서운 스님

동안거땐 '잣까기 정진'

저녁공양을 사주겠다며 종무소 직원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가조온천에 갔다. 조양은 여직원이 저 혼자이다 보니 나올 시간을 잘 가늠하지 못해 늦게까지 목욕을 했다. 다들 밖에서 기다리다 지쳐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마침 무렵에야 조양이 나타났다. "아새끼래 거저 눈치가 없이 이래 어름하네" 조양은 낮에 종무소에서 일을 잘못해 혼날때 보다 더 혼쭐을 뺐다. 다음날 출근한 조양이 "스님께서는 절 위로하려고 데리고 가서 멀쩡한 사람들만 위로하고 저는 되려 꾸짖기만 하십니까?" 하자 "거저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러는거 아니네. 점심에 짜장면 사주갔어" 하셨다.

전국의 모든 교구본사에서는 매년 연말 종무감사를 다닌다. 해인사의 말사는 공찰이 약 50개, 사찰(私刹)이 약 70개 있다. 3개조가 지역별로 나누어 약 1주일 가량 감사를 한다. 정원스님께서 총무하실 때 스님과 한 조가 된 사람들은 5분대기조 처럼 항상 긴장을 했다. 그때 정원스님 팀은 산청, 함양, 거창 지역을 맡게 되었다. 이곳의 사찰들이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의 골짜기나 능선에 자리하고 있어서 눈으로 갈이 막힐 경우에는 다니기조차 몹시 힘들뿐 아니라 식사시간을 놓치기는 예사였다. 한번은 날씨가 몹시 추운데다 눈까지 내렸다. 아침 일찍 나섰지만 산중의 눈길을 다니다보니 2~3개 사찰을 다니고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중에 점심 시간을 훨씬 지나고 말았다. 마침 순두부집을 발견한 직원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자고해서 스님께서도 동의했다. 순두부찌개를 시킨 후 찌개가 끓고있는 동안에 밥을 빨리 가져오라는 성화에 졸여 순두부찌개는 빼고 먼저 밥과 다른 찬만 가져왔다. 직원들은 순두부가 나오면 함께 먹으려고 천천히 먹고있는데 스님께서는 벌써 다 드시고는 "짧은 겟들이 밥 한 그릇 놓고 왜 깨작거리고 있네. 가자!!"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때 뭘 끓고있는 순두부찌개가 나오고 있었다. 스님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아는 직원들의 마음은 더욱 급했다. 성기사는 그때 먹었던 순두부찌개만큼 뜨거운 찌개를 이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지금도 말한다.

가야산에는 잣나무가 많다. 예전에는 잣수입이 사중재원의 중요한 몫을 차지했지만 요즘은 채취가 어려워 그렇지 못하다. 동안거 결제가 되면 산중의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정원스님께서는 동안거 결제가 되면 매우 특



별한 정진을 하신다. 청솔모가 따서 떨어뜨린 잣송이를 가을 동안에 몇 가마씩 주워 모았다가 망치로 두들겨 잣씨를 꺼낸 다음 이것을 깨끗이 씻고 알이 덜 여문 것을 골라낸 후 방바닥에다 펴 말린다. 이렇게 일차 고르고 씻어 말린 잣을 집게로 일일이 까고 다시 속껍질을 제거한 후 한번 더 건조하면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잣이 된다. 그 공정 과정을 수공으로 할 경우 잔손이 매우 많이 가는 작업이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몇 가마씩이나 되는 잣송이를 동안거 기간 동안에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손수 수공의 공정을 거쳐 잣까는 정진을 한다. 이렇게 까 모은 잣알을 찻통에 가득가득 담은 후 작은 공양이지만 먹고 공부 잘하라면서 사중의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일일이 한 통씩 나누어준다. 이런 과정을 잘 아는 스님들이 "어렵게 까셨는데 노스님께서 잡수시지요" 하면, 당신은 불같은 성격을 다스리는 인욕정진을 해서 좋고, 특별한 법력으로 후학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렇게라도 정진한 공양물을 열심히 정진하는 대중들이 먹어주니 공덕되어 또 좋은 일 아니냐며 웃으신다. 대중스님들은 이 특별한 정진을 보면서 "그래, 그 불같은 성격 따문에 할 수 있는 정진이지" 하고 말한다.

■ 정취암 주지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圖像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癡 西翁謹書

■ 주천서



■ 고불총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5년

오색물결 출렁이며 부처님 오셨네

사진으로 보는 연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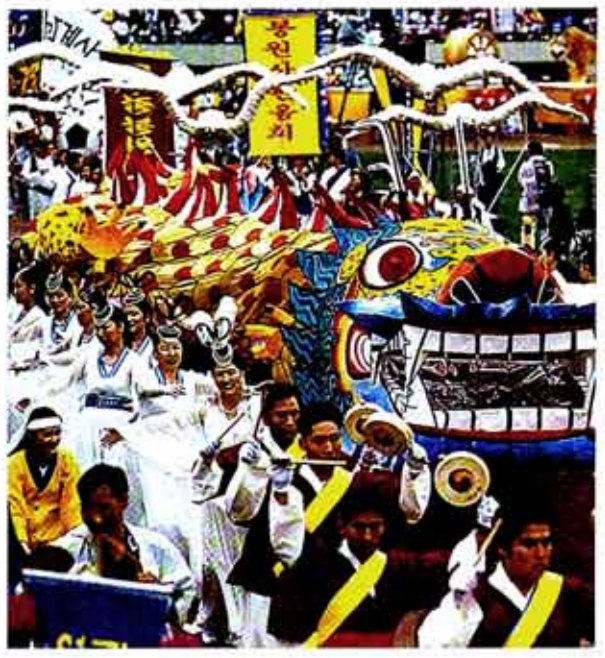
불기 2545년 연등축제가 4월 29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불교문화마당(거리축제), 연등법회, 제등행진, 대동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마음 청정 나라 청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등축제는 예년에 비해 참가 인원과 연도의 시민들이 많이 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각종 창작등이 많이 선보여 종로거리에 오색물결이 출렁이게 했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천안 마산 창원 등 전국 60여 도시에서도 지역봉축위원회 주최로 22, 28, 29일 연등축제와 제등행진을 펼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세상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나와 남이 함께 이익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서원했다.



◇오늘은 기쁜 날 동대문운동장에서 펼쳐진 어울림마당에 참가한 불자들이 환한 웃음과 함성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다.



◇용등 학등 선녀가 어우러진 제등행렬. 다양한 창작 장엄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 모 저 모

석주스님 제등행진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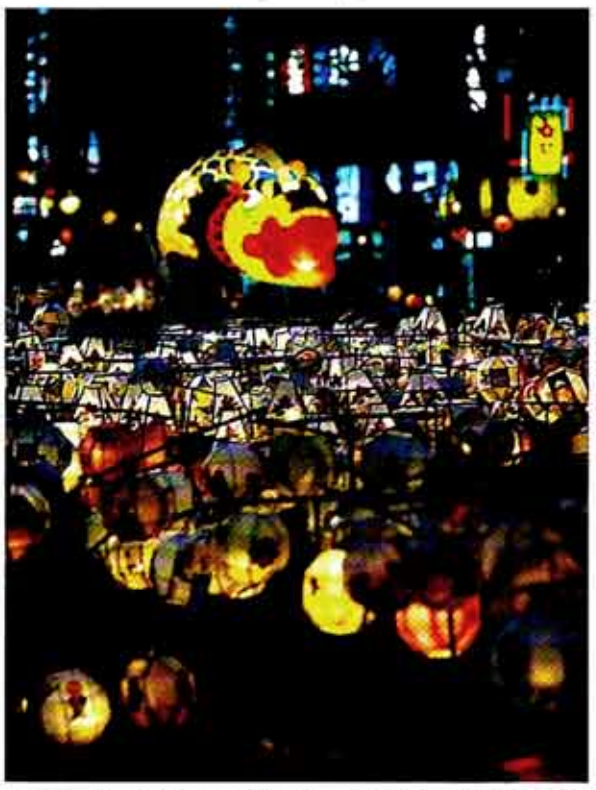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은 동대문운동장에서 탑골공원 앞에 마련된 관람대까지 걸어서 행진, 노익장을 과시했다. 스님은 관람대에 내내 앉아 지나는 행렬에 손을 들어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세수 95세인 석주스님은 힘들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괜찮아"하며 연신 환한 미소를 띠었다. 올해 처음 설치된 관람대에는 각 종단 대표와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 하와이 네팔 말레이시아 불교도협회 회장과 주한외국인 200여명이 앉아 행렬을 박수로써 맞았다.

영산재 · 깨침이 '눈길'

○…태고종과 진각종 화계사는 종단과 사찰의 특징을 보여주는 행진을 해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 총무원은 차량으로 특설무대를 꾸며 제등행진을 하는 동안 영산재의 일부분을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보유한 종단의 특성을 살렸다는 평가. 진각종은 종단캐릭터인 '깨침이' 조형물을 행렬 앞뒤에 배치해 종단의 이미지를 알렸다. 화계사는 국제선원에서 수행중인 20여명의 스님들이 미국 중국 이스라엘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각기 자기 나라의 국기를 앞세우고 행진.

단주만들기 단연 인기

○…올 부처님 오신날 거리축제에서 불자들과 시민들로부터 단연 인기를 끈 것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정호스님)의 '단주 만들기'. 레크리에이션협회는 8만여 개의 단주알을 준비했으나 행사 시작 3시간만에 재료가 동나 다시 8만여 개를 준비. 그러나 이 역시 동이 나고, 추가로 5만여 개를 다시 제공했으나 이 마저도 오후 5시30분경 모두 바닥났다. 1인당 단주알 29개씩을 소비한 것으로 계산할 때 이곳에서 단주를 만들어간 사람은 대략 7200여명.



◇대형 장엄물과 각종 창작등의 오색물결이 종로거리를 수놓았다. 능인선원의 축구공등 팔각등이 눈길을 끌었다.



◇연꽃속에 나투신 아기부처님을 태운 반야용선이 동대문운동장에 나타났다.



◇연등과 단주 만들기, 서원달기, 퀴즈대회 등 연등축제 행사에 동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직접 만든 예쁜 연등을 딸에게 주는 외국인 엄마의 다정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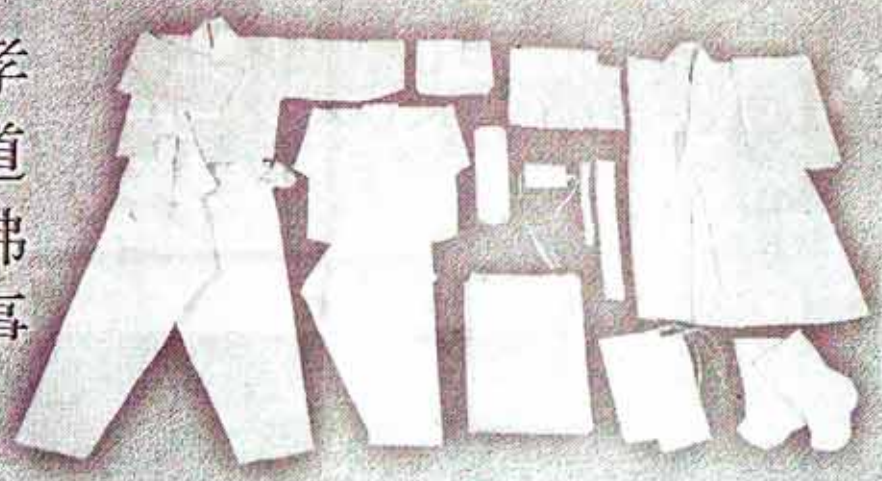
◇북녘땅에 최초로 연등이 밝혀졌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4월 20일 신계사터의 탐주위와 온정각 일대에 환하게 연등을 밝히고 명화통일을 기원했다. 이 연등은 15일까지 밝혀진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희망을'이란 주제로 열린 제3회 불교인권문화제. 안치환, 장사익 등 인기가수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과 네팔 등 외국인 노동자 불자들이 다수 동참했다.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48배.
부종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지혜의 10만 등불행렬 '모두 한마음'



◇연 등법 회 어울림마당에서 지구의를 배경으로 그룹별 대중 율동이 펼쳐졌다.



◇봉축위원장 정대스님이 아기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연등축제 참가자들이 각지의 소원을 담은 서원지를 애드벌룬에 매달아 하늘로 날려보냈다.



◇천태종 관문사에서 제작한 불꽃는 용. 불을 뿜을 때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올해의 제등행진은 말 그대로 '등의 향연'이었다. 안양 한마음선원은 용, 별, 수박, 연꽃, 나비, 어우동 등 다양한 등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연등축제에 참가한 불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서원을 되새기며 보현행자의 삶을 다짐했다.



◇진각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거리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춤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조계사와 한마음선원이 축구공 모양의 등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특히 조계사는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어린이들이 대형 축구공 5개를 굴리면서 행진을 벌였고 선도들은 1천여개 축구공등을 흔들며 행진했다.



◇제등행진을 마친 불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연등축제를 마무리했다.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5년

이 모 저 모

'지구를 살려주세요'

○ 환경보호론자로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잘 알려진 현장미술가 최병수씨는 조계사 앞 도로에서 얼음조각으로 부처님과 펭귄 5점을 조각한 후 조각품에 'NO CO²' '새만금 갯벌을 지키자' '저지, 기후변화' '지구를 살려주세요' 등의 포스터를 달아 관심을 끌었다. 최씨는 조각을 마친 후 시민들에게 일일이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며 "종교계가 환경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열변.

대장경판 제작 시연

○ 고려대장경의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탁본도 하도록 해, 민족의 활자문화를 청소년들이 배우도록 한 것도 의미있는 행사였다. 법인경판제작연구소는 자작나무를 소금물에 쪄서 말린 후 대패로 경판을 제작하고, 경판의 양쪽 마구리 부분에 나무를 끼우고 동판으로 고정하는 과정, 종이를 붙이고 칼로 세기기, 9번 옻칠하기 등 모두 10단계의 제작과정을 전시했다.

바미얀불상 파괴 규탄

○ 우정국로에서 네팔불자회 회원들은 아프카니스탄 탈레반정권의 바미얀 불상 파괴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 서명운동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하여 수녀와 외국인들이 두루 참여했다.

불교TV 생중계 못해

○ 불교TV가 개국이후 처음으로 연등축제 실황을 중계방송하지 않아 TV를 통해 축제를 지켜보고자 했던 불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위성사용료 등 제작경비가 문제였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불교TV는 2주전 봉축위원회에 1천만원의 제작 경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내년에는 TV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을까.

(봉축특별취재반)

나!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거야!
왜! 의성홍화가 있으니까.



홍화씨엑기스 성분



부모님의 건강을 꼭 챙겨보세요.
정정하시던 두 분이지만 어느새기 세월과 함께 어리기 쇠이지신군요.
세월을 붙이길 수 없듯이 부모님도 다른 효도도 다음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의성 홍화는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또 다른 기쁨을 드립니다.

'서세원의 좋은세상만들기' SBS출연진 1999년 6월 19일

홍화씨는 산삼, 죽염과 함께 3대 신의선물

우리몸에 신비한 것은 죽염이고, 다음은 홍화이고 장수하는데는 홍화가 첫째, 죽염이 둘째이며 건강에는 산삼이 첫째이다. 〈仁山 金一勳 先生의 생전 韓藥本草에서〉

뼈를 바로 알면 장수가 보인다!

"우리 손으로 재배한 100% 순수국산 홍화씨만을 사용하였습니다!"

홍화씨가 몸에 좋은 이유

우리나라 토종 홍화씨의 70%이상을 70여명의 의성우리농민 홍화조합원들에 의해 계약재배되어 품질보존에 힘쓰고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법으로 고품질 무공해 천연의재료를 100%스테로이드 가공하여 만들어 드리는 제품입니다.

세계적 골프스타 박세리, 김미현 등 스포츠선수도 튼튼한 골격에서 나오며 프로야구 일본 유니폼의 이종범 선수가 자신으로 골절신을 입었을 때도 부친이 일본으로 부터 홍화씨를 가지고가 수술 한 사실이 뉴스보도 된 바 있음 유명합니다.
(98 5 27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보도)

뼈의 튼튼함을 위해 호르몬 부여와 고칼슘 섭취는 여러 부작용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심장한 선택이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골절도 개선과 강한 뼈와 근육을 돕는 식물 소재는 토종 우리홍화뿐입니다. 또한 그 홍화의 신비함을 연구하여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산물가공저장유통기술연구소〉

의성우리농민 홍화씨 엑기스에는 리놀산이 다량함유되어 우리몸의 내분성분을 분해하는데 과학적 연구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농산물가공저장유통기술연구소〉

의사, 약사도 적극 권하는 제품입니다 - 교통사고 또는 부상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의사나 약사들도 좋은 제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성우리농민홍화조합법인 조합장 김 호 준

좋은고 산홍은 의성의 특산물로 의성 우리 농민 홍화영농조합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의성홍화씨 홍화장입니다
본 仁山 金一勳 先生의 '신약'에서나 최근 연구가든 및 고수님들의 결과 바나 우리몸에 좋은 것으로 입증되었읍니다. 대량생산의 필요당에 부합을 부려 의성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홍화는 의성 우리 농민조합의 자부심 이기 명의로써 자신있게 추천보증합니다
1999. 11.

홍화씨는 21세기 자연이 인간에게 베푼 은혜의 장수식품
1. 홍화씨는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골밀도↑)
2. 몸안의 혈속에서 깨끗한 피가 생성됩니다.(노폐, 혈전↓)
3. 우리 몸안에 깨끗한 피가 흐르면 건강하고 젊어집니다.(혈행 개선)
→그러므로 홍화홍보는 건강과 젊음을 주는 천혜의 장수식품(초특효요법)입니다



"홍화씨엑기스는 의성홍화씨 중에서도 제일 좋은 홍화만으로 제조하였습니다!"

홍화씨, 환, 기름, 가루보다
1. 흡수가 잘된다.
2. 비위가 약한 분도 드시기가 편리하다.
3. 소화가 잘 되고 부작용이없다.
4. 120℃ 고온 고능축 추출과 한약재등 첨가하여 우리몸의 다른 기능에도 좋다

■뼈가 튼튼해야 만사에 자신이 생깁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이나 청소년 성장발육을 도와줍니다.
■관절 및 신경계통에 유익한 식품입니다.
■생리고통의 해방으로 아름다움을 지켜줍니다.
■강한 근골과 근육을 도와줍니다.
■비만으면 팔, 다리, 허리 아픈데 유익한 식품입니다



상반기 특별할인행사 1박스를 사시면 1박스를 무료로 더 드립니다

₩396000 ➡ ₩180000
(80g X 60포 X 2박스)
할부가 (39000 X 6개월) ₩198000

전구매 고객께
홍화정 180포(1800정) ₩171000원

★주문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3일이내 배달되며 제품을 받으신후 대금지불 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211014-51-025111 〈예금주 최 관 수〉

전국무료전화 080-022-3366

♣ 주의 : 임신한 여성은 홍화씨를 드시면 안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의 뼈가 단단해져서 출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아기를 낳고 나서 드시면 산모와 아기한테 다 같이 좋고 산후 조리를 하는 중보도 하루 좋습니다

이인우 저 「홍화씨 건강법」중에서

원료공급원 홍화씨 홍보원 : 의성우리농민홍화조합법인 / 제조 및 기술개발원 : (주)대보식품 / 판매원 : 의성우리농민홍화조합 판매사업부

조계사 앞마당에 솟대가 섰다

'욕망의 시대'에 경종

최병수 설치미술전 '초심불심'

조계사 앞마당에 물짐승과 날짐승 솟대가 섰다. 솟대뿐만 아니라 깨어져 밑이 흰히 드러난 독 안에 부처님이 앉아 오가는 불자들을 반기고, 그 독 위에 연꽃까지 피었다.

물질만능주의와 환경파괴, 도덕성 상실 등으로 얼룩진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환경미술가 최병수 씨의 설치미술 '초심불심(初心佛心)' 전이 6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다.

80년대 후반부터 생태운동을 주제로 한 작품활동에 주력해 온 최 씨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쓰레기들', 1997년 일본 교토 제3차 세계환경회의 '펭귄이 녹고 있다' 2001년 새만금 갯벌 살리기 '하늘마음 자연마음' 등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최 씨는 몇년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밑빠진 독을 작업실에 옮겨놓은 이후 독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시도해 왔다. 지난해 9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보인 '새만금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환경 퍼포먼스도 그 하나다. 또한 수호와 경계의 뜻으로 마을 앞에 세웠던 긴 장대인 우리 전통 솟대에 우리 땅 우리 터의 주인인 갖가지 생물체를 표현하는 작업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선보인 이번 작품은 외형적인 자연환경뿐 아니라, 욕망으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 씨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팡통어, 장어, 조개, 갑매기, 오리, 마도요 등의 솟대는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생물들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결국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우리 중생의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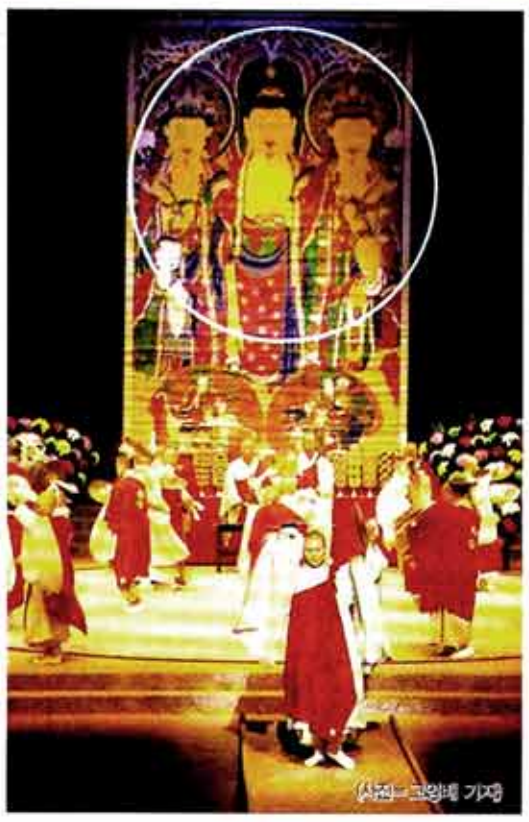
"밑 빠진 독은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요. 그 욕망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지요." 밑 빠진 독 위에 핀 연꽃은 연꽃공예가 이성자 씨의 작품으로 욕망을 제어하고, 본래의 나를 마주할 때 오는 자비와 평화, 상생 정신을 나타낸다. 밑빠진 주변에 늘어선 작은 독은 바로 깨어지지 않은 초심(初心)의 상징이며, 그 속에 가득 채워진 맑은 물은 본래 우리 속에 내재된 불성이다.

4월 26일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정신을 표현한 연꽃을 조계사 동자승들이 독 위에 설치하는 '연꽃공양 퍼포먼스'를 통해 맑고 깨끗한 초심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최병수 씨의 설치미술 작품 '초심불심'에 연꽃 공양을 올리는 동자들의 모습이 천진하다.



(사진=고영배 기자)

부처님 세계로 인도하는 영산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예술의 미-영산재'가 4월 26일-27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공연됐다. '사계(四季)를 거쳐가는 온전한 길-영산재'를 소주제로 펼쳐 보인 이번 공연은 아름답고 웅장한 범패의 율립과 작법을 통해 관람객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했다.

충주 숭선사터 금동보살상 등 유물 출토

고려 초기 공종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승리 숭선사터에서 금동보살상과 분청사기, 고려 조선시대 기와조각 등 국찰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다량의 유물이 출토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당터와 강당터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충청대 박물관은 4월 21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출토된 유물을 공개했다. 유물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3cm 크기의 금동보살상. 철터 맨 아래의 점토 다짐층에서 발견된 보살상은 2구의 몸체와 1구의 얼굴이 떨어진 채로 나왔다. 얼굴형상이 원만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다. 눈은 살며시 내려 감았으나 오른쪽 눈꼬리가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간 게 특징이다.

한국교원대 정영호 교수는 "조성시기는 고려 초로 보이나 통일신라의 양식적 특징이 잘 드러나 미술사적 연구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상호가 투박한 고려시대 불상에 비해 보관의 화려한 장식이나 원만한 상호가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곳에서는 또 발굴사상 처음으로 액체를 밀봉한 분청사기 장군병이 백자 및 각종 금속류 등과 함께 출토돼 관심을 모은다. 권형진 기자 (jnny@buddhapia.com)



◇숭선사터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상 머리.

문화소식

새음반 '샘' '소를 찾아서'

찬불가요 〈샘〉과 선시노래 〈소를 찾아서〉가 잇따라 나왔다.

〈샘〉(도레미레코드사)은 자전 소설 〈타래〉를 발표하며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가수출신의 보현스님이 노래를 부른 찬불가요다. 이 앨범에는 타이틀곡 '목마른 샘'을 비롯 발라드풍의 찬불가요 10곡이 수록됐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국악반주를 곁들여 일반인들에게까지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꾸몄다.

선시노래 〈소를 찾아서〉(푸른소)는 '깨달음의 나무' '꿈과 근심' 등 옛선사들의 게송에 곡을 붙인 것이다. 최근 기획사 푸른소를 열고, 음악포교에 나선 함원스님이 기획 제작했다.

뮤지컬 '김영임 회심곡'

어버이 날을 맞아 부모님에 대한 보은의 정과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 줄 우리 소리 뮤지컬 '김영임의 회심곡 2001'이 8일-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1999년 2000년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김영임의 회심곡 공연은 1, 2회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는 경기민요, 전래동요 등 뮤지컬적인 연출과 구성을 통해 우리 소리 뮤지컬이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재구성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깃든 '회심곡'은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지은 불교가사로, 이번 뮤지컬에서는 효의 의미와 인생무상 등의 내용을 민요에 담을 예정이다. ☎786-8886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앞산의 연둣빛 신록이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 저절로 숲 속으로 발길이 옮겨졌다. 봄기운으로 푸석푸석하던 오솔길은 어느새 꽃비가 하얗게 깔린 비단길로 변해있었고, 길옆의 시냇물은 봄 노래를 재잘거렸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꼭 알맞은 기온 속에서 복숭아꽃, 살구꽃 등 울긋불긋한 꽃대궐 속에 앉아있자니, 마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숲 속에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계절은 다르지만, 미국의 민중시인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가 아래의 시를 노래한 심정이 생각났다.

숲은 어둡고 깊고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이 글은 4행 4연으로 구성된 '눈 내리는 숲가에 서서'라는 시의 마지막 연이다. 시인은 숲가에 서서 황홀경에 빠진 채 아름다운 자연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인간의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이 마음은 '보살'이라는 이상적 인간형을 앞세우고 실천불교 운동을 벌였던 대승불교 창시자들의 고귀한 뜻을 생각나게 한다. 아름답고 고요한 깨달음의 숲 속에서 한없이 머무르고 싶지만(上求菩提), 고해에 빠져있는 중생과의 거룩한 약속 때문에 사바세계로 돌아와 아픔을 함께 하는(下化衆生) 거룩한 선각자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다.

프로스트 '숲가에 서서'

서원 갖는 순간 '어떻게 살것인가' 바른 지표 제시

'잠들기 전에 가야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는 그 힘은 '지켜야할 약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경전에서는 '서원(誓願)'이라고 한다. 법장 비구로 하여금 보살행을 닦아 아미타불로 성불하게 만든 것도 그 굳센 서원의 힘이었고,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이 공덕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로서 우리에게 간절히 일러주는 방법도 '행원(行願)'의 길이다.

'서원'을 가진 인간에게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오는 것이다. 서원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未來)'을 '장차 올 시간(將來)'으로 바꾼다. 일상의 관성에 따라 그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서원을 세우고 자신의 뚜렷한 장래의 모습을 그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현재는 미래를 성취하기 위한 치열한 실존적 삶으로 바뀐다. 과거의 업이 나를 옭아매더라도, 미래의 내 모습이 나를 해방시켜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것이다. 서원은 미래를 미래완료로 바꾸는 확신을 심어주고,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바른 지표를 제시해 준다. 법회 때 무심히 따라 외우는 '사홍서원'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의 나침반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길로 들어선다.

인생의 성패는 자리(自利)가 아닌 이타(利他)를 지향하는, 자신만의 서원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평론가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용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양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송선식(2개월 50만원), 송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보(2개월 150만원), 유황간상(2개월 50만원), 유황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약장을 맡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동칭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의료 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총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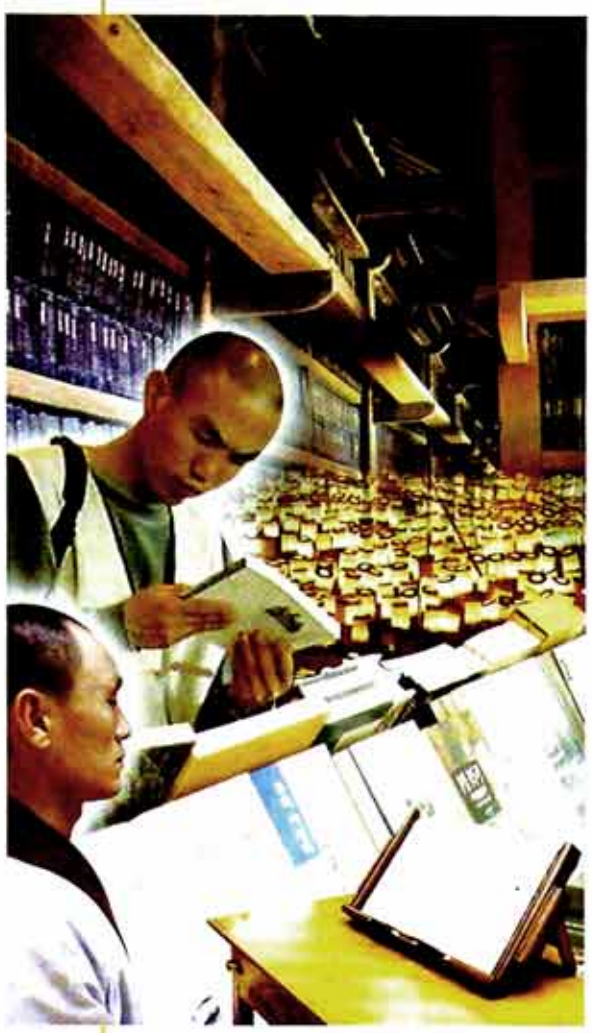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책으로 만나는 부처님

'깨달음의 뗏목' 경전을 읽자



불교 경전 간행이 우리나라 출판의 전부인 시절이 있었다. 한글창제 이후 최초로 간행된 〈석보상절〉 〈월인석보〉 〈묘법연화경〉 〈능엄경〉 등 모두가 불교 경전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간경도감을 설치 국가 차원에서 언해본 경전들을 잇따라 펴냈다. 흔히 불교출판의 역사가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라고 말하는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개념의 출판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경전이 대중서의 형태로 출간된 시기는 불교전문출판사들이 문을 연, 지난 80년대 이후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불교전문출판사들이 하나 둘씩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경전 출판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경전류는 크게 주석 · 해설 · 연구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모든 불서는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모든 불교 서적이 경전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전 해설서를 살펴본다. 불서총판 운주사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전 해설서는 약 620여종. 이 중에서 기장 많이 출간된 경전은 〈금강경〉이다. 그리고 〈법구경〉 〈천수경〉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등도 만만치 않게 나와 있다. 이처럼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전은 10여 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의 경전들은 승가대학이나 몇몇 학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출간됐다. 물론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완간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또한 이러한 경전류를 내놓은 출판사는 대부분 불교전문출판사들이다. 민족사를 비롯해 불교시대사, 불광, 운주사, 보련각 등이 대표격. 민족사는 지난 94년부터 '불교경전시리즈'를 기획, 지금까지 22권의 경전 해설서를 비롯해 관련서들을 주요출판분야로 하고

경전 해설서 6백 20종
금강경 · 법구경 등 인기

민족사 펴낸 '작은 경전'
불서읽기 대중화 앞장

있다. 특히 민족사는 최근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경전 시리즈를 내놓아 경전 읽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불교시대사는 '읽기 쉬운 경전 시리즈' 10권을, 불광, 운주사, 불일, 보련각 등 불교전문출판사들도 여러 종의 경전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일반출판사들의 불교 경전에 대한 관심도 높게 일고 있다. 그 대표적 출판사는 시공사. 지난 97년부터 '시공불교경전 시리즈'를 기획, 매년 불교경전을 내놓고 있다. 곧 출간될 〈해심밀경〉 〈승만경〉을 비롯해 지금까지 7종 9권을 출간했다. 그리고 12월경 12권의 〈화엄경〉도 출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집문당, 현암사 등에서도 간헐적으로 불교경전을 출간하고 있다.

대체로 지금까지 출간된 경전은 20~30종에 편중돼 있다.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이 정도의 경전이 대중서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불교출판인들의 분석이다.

민족사 윤창화 사장은 "독자들이 불교의 사상이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는 많지만 경전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 '~ 하더라' 식의 지식밖에 갖출 수 없다"며 "반드시 원전을 읽어 확고한 불교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은 사장은 "범종단 차원에서 불교경전연구소를 설립해 전문가들이 경전 해설서를 펴낸다면 기존 경전류의 가장 큰 단점이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 불교경전읽기 대중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지금까지 불교전문출판사들이 척박한 출판환경에서 일궈낸 불교경전출판의 성과는 값진 열매가 아닐 수 없다.

부처님 입멸 후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이라는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궁극적으로 책은 언젠가는 버려야할 '뗏목'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저 언덕에 이를 때까지는 공들여 엮어야 할 깨달음의 방편임도 부인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 읽기를 올 부처님 오신날 원력으로 세워보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아기부처 위한 동화집 3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이 땅에 부처님의 오신 의미를 알게 하는 동화집 3권이 잇따라 출간됐다.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북뱅크)와 〈부처님 이야기〉(아래아픽쳐북스) 그리고 〈성철스님과 모과동자〉(현대문학어린이)가 바로 그것.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는 유아와 아동을 위한 그림책이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 동화집이다. 은은한 색상과 부드러운 선으로 구성된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살피는 길잡이로 삼을 만하다. 값 7천원.



〈부처님 이야기〉는 동화작자 이상교 씨가 글을 쓰고, 화려한 색채로 신비로운 그림 세계를 펼치는 화가 노성

'이땅에 오신…' 가족용 그림동화집
'부처님 이야기' 전래동화 10편 눈길
'성철스님과…' 성철 스님 일화 담아

빈 씨가 그림을 그린 창작 동화다. 이 책은 크게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 전래동화로 구성되어 있다. 생애 부분은 부처님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고행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통해 부처님 말씀에 담긴 참다운 의미를 배워나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10편의 불교 전래 동화는 어린이들이 부모에 대한 효와 인간애, 생명의 소중함, 올바름의 가치 등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한다. 값 9천5백원.

작가 정찬주 씨가 성철스님과 관계된 일화들을 동화로 엮은 〈성철스님과 모과동자〉는 성철스님이 울퉁불퉁한 머리 때문에 '모과동자'라는 별명을 얻은 여덟 살짜리 동자승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모과동자는 해인사에 살고 있다. 그는 나무꾼 김 노인이 암자 뒤 숲 속에 쓸모 없는 나무만 골자 장작더미를 쌓는 이유가 궁금했다. 성철스님은 모과동자에게 그 장작더미가 자기가 죽었을 때 몸을 태울 나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 뒤부터 성철스님은 모과 동자를 앞세워놓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세계불교로 본 한국불교 자화상

'동남 아시아의…'

박경준 옮김



'동남아시아의 불교수용과 전개.' 제목만 보아도 책의 내용과 의도를 알 수 있는 책이다. '1억인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불교는 어떻게 자리 매김되어 있을까'를 확인하려 한 일본학자의 기획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지금의 동남아시아 불교는 크게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등 상좌부 불교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대승불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이 책은 상좌불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불교의 현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지은이는 〈상좌부 불교의 정치사회학〉 〈타이 불교 입문〉 등을 내놓은 이시이 요네오(일본 상지대학 교수를 비롯해 일본학자 7명. 이들의 논문을 수록한 이 책은,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상좌불교의 개설(상좌불교의 전파와 현황)'을 시작으로 '고유의 신앙과 불교', '교단과 종교생활', '불교의례의 민족지', '미얀마의 불교문학', '불교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등 동남아시아의 현대불교를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남아시아의 불교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불교 현황을 폭넓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불교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우리 불교의 참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신라인,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신라열전' 김동리 지음



〈신라 열전〉(문흥술 · 박덕규 엮음)은 작가 김동리(1913~1995) 씨가 만년에 쓴 역사소설. 이 책에는 '회소곡'을 비롯해 '원왕생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16편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최치원' '장보고' 두 편의 무대만 당나라일 뿐 모두 신라를 배경으로 한 신라 사람들의 이야기로 펼쳐진다. 이 책의 이야기들은 신라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을 비롯해 그들의 이상 그리고 죽음의 현장을 찾아보려는 의도에 따라 창작된 '신라혼의 탐구'라고 할 수 있다.

각 편의 주인공들은 신라초기로부터 신라말기에 걸쳐 있다. 그 신분 또한 왕을 비롯해 스님, 귀족, 학자, 악사, 문 무관, 화랑, 궁민 등 다채롭다. 이 인물들의 이야기는 대개 설화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날녀간의 애정 문제를 축으로 호국충정이나 불교적 정신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열전 형식을 빌려 몇 줄의 기록으로 남아 있던 천년 전의 신라인들이 김동리 씨의 손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런 점이 소설이상의 감동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작품의 앞뒤에는 소설가 박덕규 씨와 문학평론가 문흥술 씨의 작품해설과 신라 왕실의 계보를 따로 싣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에서이은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2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3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 전집	대 성	탐 구 사
4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다스토리텔링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음
6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 태 완	장 경 각
7	생활 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8	봄 여름 가을 겨울	법 정	이 레
9	석가모니 슬기동화	최은영 이금형	은 하 수
10	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 말씀	정 휴	민 족 사

도서 안내:(02)737-0695

믿을 수 있는 책 믿을 수 있는 회사 김영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7 TEL 745-4823 FAX 745-4826

진리의 빛 행복의 샘 김영사 불교총서

인기독컴 속에 꾸준히 보급되고 있는 불교서의 금자탑



불타의 세계

불교의 발생과 전파, 그리고 최근까지의 불교학 및 인도철학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불교계 초유의 대작. 세계적인 불교학계 거장들의 6년에 걸친 현지 고증 및 집필, 수백 점의 천연사진과 자료, 2년간의 우리말 작업 끝에 나온 화제작. 삶의 고통을 체험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부처의 삶과 여정, 그가 가르친 삶의 방식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나카무라 하지메 외 지음/김지견 옮김/4 · 6배판 양장본/544쪽/값35,000원



행복한 마음

생각만으로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음 하나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뉘는 것을.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다스림의 지팡이 있고 삶은 때로 질곡입니다. 여기 당신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줄 171가지 이야기들이 빛나는 잎새로 모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 당신의 마음을 쉬어도십시오. 당신의 행복, 그것 하나를 위해 이 책을 바칩니다.

출간 이후 16년간 49쇄를 거듭 찍은 숨은 베스트셀러.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의 바로 그 책.

김정설 지음/개정증보판/양장본/530쪽/값9,900원



향하고 있는가 마음을 어디로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찾지 말라. 그대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나를 밝게 해주는 이가 내 부처님일 뿐이다."

백성욱 가르침/김원수 받아 엮음/양장본/228쪽/값6,900원

禪 어록 시리즈 *선불교 거장들의 생생한 지혜와 풍격, 사상이 고스란히 담긴 세계적인 명저들*

육조단경	나카가와 다카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315쪽/값 7,000원
달마어록	아나기다 세이잔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300쪽/값 8,900원
초기선종사 1, 2	아나기다 세이잔 지음/양기봉 옮김/양장본 1권 464쪽 2권 368쪽 1권 값 14,900원 2권 값 13,900원
방거사어록	이리야 요시타카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308쪽/값 8,500원
대혜서	아라키 겐코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400쪽/값14,900원

불교학술서 *국내외 불교학계에서 높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공 석학들의 주옥같은 명저들*

대승불교개설	히라카와 아키라 외 편저/김승석 옮김 양장본/408쪽/값 12,000원
불교 요설	에가루 아야다 지음/석오진 옮김 개정판 양장본/184쪽/값9,900원
바웃드하 불교	나카무라 하지메 외 지음/허 정 옮김 신국판/368쪽/값 7,900원
인도 고대사	람 샤란 샤르마 지음/이광수 옮김 양장본/392쪽/값8,900원
종교학	기시모토 히데오 지음/박인재 옮김 양장본/192쪽/값7,900원
불교입문	다키자키 치키도 주해/신법안 옮김 개정판 양장본/290쪽/값11,000원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5년

끌어주고 밀어주고 예술혼 대잇기

온화한 눈섭, 반개(半開)한 눈은 피안을 일러주는 듯,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흐르는 자애로운 미소는 대하기만 해도 한없이 포근하다. 수많은 이들의 귀의처가 되는 불 보살상 조성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라 과거 수많은 선근공덕을 쌓은 결과가 아닐까. 하물며 당대 는 물론 그 아버지부터 불모의 일을 하고 형제와 자식, 손자까지 3대가 불모로서 불상을 만들고 탱화를 그리고 탑을 조성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중한 부처님과의 인연인가.

권정학 월정사 석가불등 5백불상 조성
권정환 낙산사 해수관음 조각 대표작
권영관 탱화 3백점 봉안… 불화 달인



◇4월 24일 서울에서 있은 결혼식 때문에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불모' 가족들.(사진 앞줄 오른쪽 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정학, 권정환, 이상배, 권영관 씨.

■ 불모란

불상 조성·그리는 사람

단청, 불화, 불상 등 불상을 조성하거나 그리는 사람을 높여서 '불모(佛母)'라고 부른다. 말 자체가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아무에게나 이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예는 물론이고 연륜과 활동력까지 겸비했을 때 비로소 '불모'라 한다.

예경의 대상이 되는 부처님을 조성하는 일을 하는 불모들에게는 금기사항도 많다. 날짜를 정해 목재를 자르고 유황과 한약재를 달인 물로 깨끗이 씻는 것, 금속으로 불상을 만들 경우 재료를 세속의 용기에 담지 않는 것, 한 불상을 만들다가 도중에 다른 불상으로 바꾸지 않는 것 등. 달리 말하면 행동은 절제된 규율을 따르고 마음은 불상을 향한 순일한 정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불모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불모로 활동하는 이들은 단청장인 만봉 · 석정 스님을 비롯 1백 여명에 이른다.

불모 3代 권정학씨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참구하며 절을 향하는 발걸음이 분주한 부처님 오신 날을 며칠 앞두고 중생들의 예경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 탑, 탱화를 조성하는 불모(佛母)의 연을 3대째 이어오고 있는 권정학씨 일가를 찾았다. 부친 용성 스님에서 출발한 불모의 가업은 권정두, 정학, 정진, 정환 4형제 모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권정학(62 · 권정학불교미술원장) 선생은 불상 조성, 동생 정환(57 · 해동불교미술원장)씨는 탑 조성, 맏형이었던 故 권정두 선생의 막내아들 영관(51 · 경암불교미술원장)씨는 탱화 조성으로 불법의 정수를 형상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형님, 아우, 조카라는 가족의 연으로 만났지만 이제 이들 일가는 부처님의 세계를 눈으로 보여주며 중생들의 마음 한가운데 여실히 전해주는 불교예술의 한 길에서 정진과 예술혼을 교감하는 더 큰 인연의 고리를 맺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부친 용성 스님 맥 이어

권정학 선생의 일가 모두는 불상, 탱화, 탑 등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를 이루어낸 작가들로 명성이 높다. 60년이 넘게 부처님을 조성해온 권정학 선생은 팔순을 넘긴 지금도 불상 조성을 멈추지 않고 있어 가족들은 물론 후학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조선시대 제일 가는 대불모였던 유성선사, 수룡화상의 맥을 이은 양원호스님, 부친이었던 용성스님의 정통 계보에 닿아있는 권정학 선생의 불상 조성은 1938년 맏형이었던 권정두 씨와 함께 한 현태암 봉사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의 사찰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불모의 수업을 시작한 맏형 정두 씨를 따라 10대부터 시작했던 부처님 조성은 팔순을 넘긴 현재까지 이어져 월정사 석가여래좌상, 석불사 11면 관세음보살상, 사천왕상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보살상을 조성했다. 기록으로 남은 것만도 5백 여구에 이를 정도다.

51살이 되던 1970년 제1회 불교미술전람회에서 관세음보살입상으로 대상인 문화부장관상을 받으면서 세간에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불상 조성을 이어온 뒤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스님들보다 더한 엄격함이 요구되고 한치의 잡념 없는 일심으로 임해야 하는 작업의 고단함 앞에 뛰어난 조각가요, 탱화조성 불모였던 형 정두 씨와의 공동작업이 큰 힘이 되었음은 자명하다.

1971년 57세로 세상을 떠난 권정두 씨가 아우들과 함께 조성한 월정사 본존불은 '신라시대 석굴암 본존불 이후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집안에서 하는 일 자체가 부처님 조성하는 것이고 보니 특별히 앉혀 놓고 불교공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 행동 따라 하다보면 그것이 합장이었고, 부처님 조성하는 일이었고, 또 그것은 부처님 예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집안의 분위기 때문인지 막내였던 정환 씨도 숙명처럼 불교미술에 입문했다. "어릴 때는 불교예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정환 씨는 그러나 누구도 따라 잡지 못할 탄탄한 기초와 예술 정신을 가진 조각가로 평가받고 있는 불모다. 형님들의 작업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불모의 일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일상이 되었고 삶이 되었다.



◇권정학 선생의 최근작인 '관문사 옥관음상'

4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불모로 살고 있는 정환 씨는 주로 석물로 된 석불, 석탑, 석비 조성에 뛰어난 솜씨를 보이고 있다.

1972년 낙산사에 동양 최대 석조 해수관세음보살 입상을 조성한 불모로 잘 알려진 정환 씨는 영덕 평통사에 국내 최대 단일석관세음보살 조성, 삼공사 9층 8면 석탑을 조성하였다.

"불모라는 말이 요즘은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불교의 상징인 불상, 탑, 탱화 조성에서 최저한 고증을 통한 전통을 바탕으로 작가만의 독특한 창작혼을 불어넣는 것이 불모의 역할이지요. 불법에 대한 경외와 찬탄을 자아낼 수 있는 탑신, 불상을 조성하는 공통의 업을 가진 우리 가족은 부처님과의 인연이 그만큼 지중합니다."

불모라는 칭호에 걸맞는 작가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일깨우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권정학 선생의 일가는 서로가 서로를 탁마하며 가족이라는 공동 책임아래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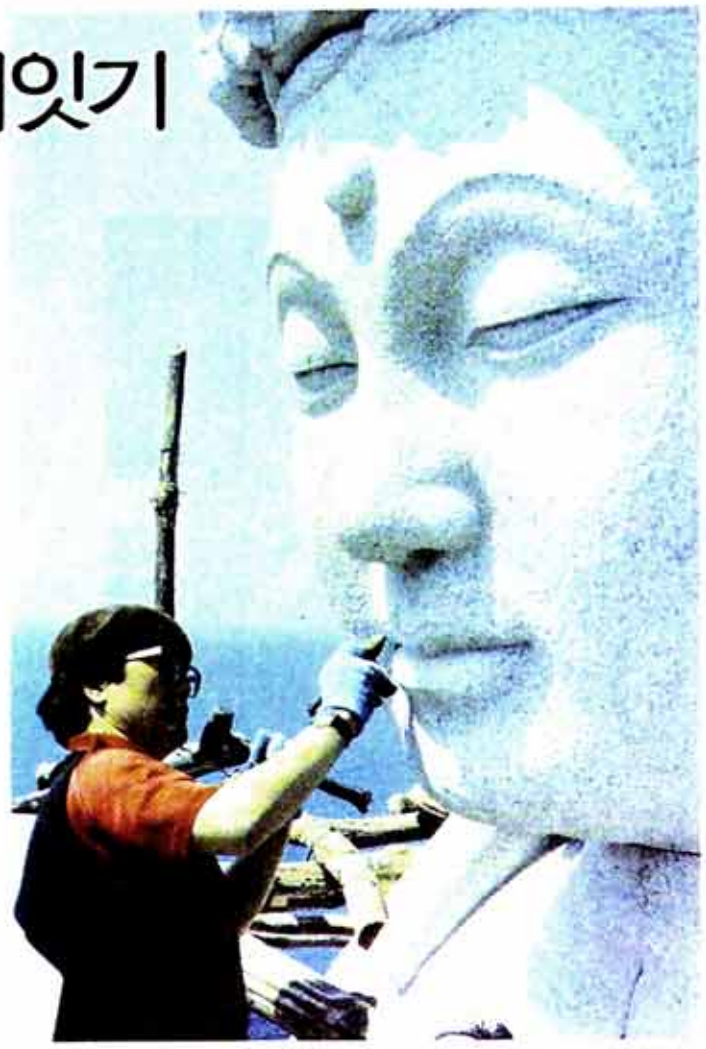
불상 조성과 석조물 조성으로 널리 알려진 숙부들의 불교조각을 이어 권정두 씨의 막내 아들 영관 씨도 불교미술에 입문했다. 그것은 가족 공동의 업을 해결하려는 단호한 선택인 동시에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다. "불교조각은 숙부님들이 최고의 경지를 이루었으니 불화에 매진해 최고가 되어야 겠다"고 발심한 영관 씨는 전통적인 기법인 석채 탱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 금강사, 구인사, 삼광사, 관암사 등 3백여 점에 달하는 탱화를 조성했으며 현재는 경북 봉화 축서사의 후불탱화와 신중탱화를 석채로 조성중이다. 또한 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불교미술 전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부친, 숙부님들 모두 가족이기에 앞서 먼저 마음으로 존경하는 불모입니다. 그분들이 가족의 연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길을 걷는 제게는 큰 힘이고 자랑입니다."

영관 씨는 돌아가신 부친과 숙부들이 둘도 없는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크게 꾸짖는 스승이라고 했다.

"부처님을 채색하다 보면 앞이 꽉 막히는 답답한 순간이 있어요. 진척은 없고 물무가 되지 않을 때 훌쩍 작업실을 나서서 부친이 조성해 놓은 불상이나 탱화가 모셔진 곳을 찾곤 하지요." 그곳에 모셔진 부처님을 참배하면서 부친의 음성을 들은 듯 힘을 얻고 곧 그것은 불보살님들의 위신력이 되어 새로운 창작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작업 중의 이 같은 교감이나 도움은 정환 씨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가끔 동생의 작업실을 찾는 권정학 선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엄격한 기준의 비평이 되어 부족함을 보완하는 지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72년 낙산사 해수관음상을 조성하고 있는 권정환 씨.

"가족이어서 서로가 더욱 철저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셈이지요. 가족 전체의 자존심과 명예를 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비록 내 개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도 그것은 좁게는 불모의 업을 이어온 가문의 일이고 넓게는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스스로를 일깨우고 가족들끼리도 서로를 지켜보게 되지요."

일할땐 무아경지 몰입

인간으로서 불상을 조성하는 일은 어느 순간 인간 이상의 경지를 요구한다. 나(我)라는 것이 없어진 몰입의 경지가 되고 조성하는 나와 조성하고 있는 불상, 탑, 불보살들의 옷자락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보았을 때 최고의 불모로 칭송받게 되는 것이다.

불상 조성이면 불상조성, 탱화면 탱화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불모로 활동하는 가족들이고 보니 가족들의 작품이 한 사찰에 모셔진 예도 많다. 서울 밥안정사, 부산 현태암, 삼광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 고인이 된 권정두 씨와 권정학 선생, 정환, 영관 씨가 함께 참여해 조성한 불상, 탱화, 불상 등이 모셔져 있다.

"요즘은 불모의 일을 단순한 기술이나, 돈벌이를 위한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조금만 힘이 들어도 그만두게 되고 혼을 불어넣은 작품이 드문 형편이예요. 지중한 부처님 인연과 몇 천년 뒤를 내다보는 정성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권정학 선생 일가는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기도였으며 포교였다. 평생을 이어온 기도와 수행은 이제 만인이 엎드려 경배하는 숭한 불상과 탱화, 탑으로 조성되어 있으니 권정학 선생 일가가 이루어낸 일은 불법을 전하는 백마디 말 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시방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들이 널리 알려진 세 사람 외에도 권정두 씨의 여동생 아들인 이상대(49)씨가 동방불교대학 조형과에서 불교조각을 가르치며 불교조각가로 활동중이고, 권정학 선생의 장남인 영식(50)씨도 부친의 일을 도우며 불모 수업을 받고 있다. 정환 씨의 장남인 현대(30)씨 또한 남다른 솜씨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방과후면 아버지 어깨 너머로 불화를 배우곤 했던 어릴 적 영관 씨를 재현하듯 이제는 영관 씨의 초등학생 딸이 작업실에 들어와 불화를 따라 그리며 아버지의 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활 가운데 공기를 호흡하듯 불모의 삶을 접하며 살아온 권정학 선생 집안의 지중한 불연은 계속해 대물림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발명특허NO. 0060218

現像所願香

현 상 소 원 향

소원성취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건강, 사업, 학업등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現像所願香이 소원성취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소림사의 달마대사가 오랜 面壁修道로 달마의 형상이 面壁洞 벽면에 投影되어 나타나듯이 現像所願香에도
여러분의 念願이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소원의 성취는 僥倖이나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現像所願香이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을 증폭시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本 製品의 特性

本 現像 所願香은 燃燒된 後에도 남은 재가 부서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本來의 形態를 維持함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燃燒가 進行되면서 재 위에 부처님의 形象과 함께 貴下께서 念願하시는 文句가 나타나는 本社의 發明特許品입니다. 本 香은 정신을 맑게 하여주고 心身의 氣運을 북돋아 주는 人體에 有益한 最上質의 天然材料만을 嚴選하여 使用하였으며 一切의 人工香料는 添加하지 않았습니다.
人體에 有益함은 물론 燃燒時 담배냄새, 기타 좋은 냄새제거에 卓越한 효과로 室內의 공기가 맑아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재료 : 침숙, 자단향, 모과향, 목향, 백단향

使用時 有意 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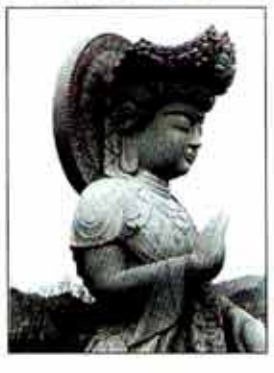
- 향에 표시된 부분이 정면 하단에 오도록 하여 함꽃이에 꽂아 주십시오.
- 연소된 향이라 할지라도 화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화재 및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 향이 굵은 관계로 처음 불을 붙이실 때 시간이 여타 향에 비하여 조금 더 요구됩니다.
- 제조 유통 중 파손된 제품은 본사 또는 판매점에서 교환하여 드립니다.

(株) 富好
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6 ☎ (02) 733-1235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38-13 ☎ (053) 764-6610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한국불교 태고종 **일광사**

주 지 황승천
신도회장 유방열

■ 전북 정읍시 수성동 410
TEL : 063) 535-3380

등명락가사

주 지 이청우
신도회장 곽기웅
오백나한 동참회장 정문교
가섭회장 이준기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17
TEL : 033-644-5337

기쁨도함께 슬픔도 함께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
자비정사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56번지
TEL : 033)642-355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향용사

주 지 덕운심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반곡 767-5
TEL : 063)243-9152
H·P : 017)658-9152

백 운 사

주 지 김법안
신도회장 전병은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유등리 434번지
TEL : 033)661-6222

원광사 승복점

승복일절(두루마기, 동방, 적삼, 바지, 가사장삼) 마춤 전문
대 표 이용민 합장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 1동 461-4 (구 금암 분수대 옆)
TEL : 063) 254-2830
H·P : 011) 849-2830

삼 화 사

주 지 원 명
대중일동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TEL : 033)534-7663

지미온(주) 강릉점

귀족의 침구 혼수전문점
대 표 정정자

■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99-2
TEL : 033)648-1483

온누리에자비가

최연규

■ 강릉시 교동 968-7번지
TEL : 033)648-9415

태 경 원

주 지 동 선
대중일동

■ 강원도 정선군 북면 남곡리 318-4
TEL : 033)562-8713

관음불교 백화점

유기, 탱화, 단청, 개금, 불상조성
특수인대, 민속악기, 불교용품일절
대 표 박정님(보현행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성원오피스텔 앞
TEL : 063)282-4070 / FAX : 063)231-4070
H.P : 011)672-6855

왕 산 사

주 지 동 법
대중일동

■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160번지
TEL : 033)647-3437

상 운 각

승복일절(누비두루마기, 동방, 적삼, 가사) 불교용품, 불교서적, 고급유기, 탱화 단청, 개금, 범종, 불상조성, 4.8행사제품
대 표 이래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5-1 (전북 불교회관 정문 앞)
TEL : 063)274-6639 / 야간 : 063)251-1883
H.P 011-682-4499

농 촌 한 식

대 표 박근식

■ 강릉시 인당동 176-2
TEL : 033)647-6696

(주)구봉·도금·정공

대표이사 김명석

구봉정공 대구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 053) 351-0009, 4856 / FAX : 053) 352-1717
구봉도금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 053) 581-0009, 8907 / FAX : 053) 582-4173
(주)구 봉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 053) 582-0156 / FAX : 053) 582-0157

신발종합 유통센타

운동화/등산화/슬리퍼/캐쥬얼/기타전품목
대 표 이상인
동아산업 - 장사 하실 분 상담 환영

■ 대구시 남구 대명4동 (성명 상가 APT 311호)
TEL : 053) 625-5925

고려 화학 바닥 장식재
대구 · 경북 총판
(명가 I.D.N)

대 표 정준현

■ 대구시 수성구 중동 337-1
TEL : 053) 766-7069
핸드폰 : 017- 818-7070

합동 에너지 산업(주)

전문 건설 면허 업체(설비공사)
대 표 송인호

■ 대구시 북구 침산동 843
TEL : 053) 354-1501~2

영남 비즈니스
(YNB)

대 표 김사길

■ 대구시 수성구 중동 153-1
TEL : 053) 784-1700

최선을 다하는 명성
명성 창호

대 표 김성훈

■ 대구시 중구 동인 3가 393-10
TEL : 053) 421-6830
FAX : 053) 427-6932

찬덕 연등제작사

대 표 김기찬

직원일동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천수천안관세음보살

봉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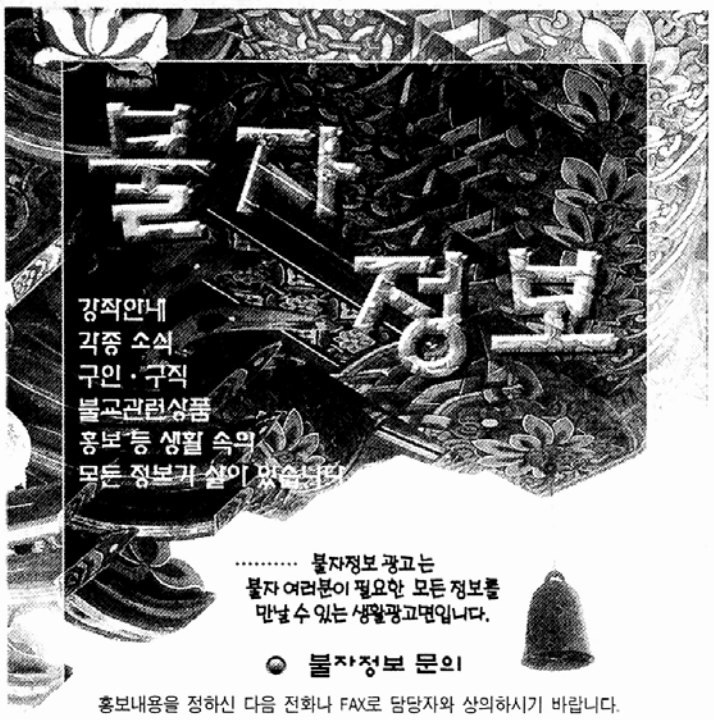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 표 이상식

직원일동

성화불교전시관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전시관 : 02)2209-0080~1 공 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 불광한의원 ㈜
이사장 김 응 석
대구시 동구 효목 2동 510-3
053)753-9353~5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중대중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와 클락식곡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의정부 **운불련**
개인 ㈜ 택시
전화 031)876-7070
Fax 031)876-8550

특허품 **명당 氣 탐지기** 특별 보급가 38만원
◎ 발명신상품(특허) 수맥탐지기 12만원
※ 수험생용 베개, 방석, 건강 천연지기요 수맥방지 바닥 마감재 (1평당 6만원)
▷ 농협 150042-52-200478 이민택
053) 982-6778 / 011) 813-3679

『고급 흑단 염주를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직접 가공 함) **덕림 산방**
이름 : 박정후
전화 : 061)337-4879
011)610-4879
주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 종류 : 미표구, 족자, 표구액자
● 가액 : 아주 저렴한 가격
각종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석등"연꽃동물학"안내
● 석등 : 높이 2m 6부분 분리 연꽃봉, 연꽃 좌대의 양각
● 연물학 : 대형직경 1.9m×높이 1.2m 중형 직경 1.1m×높이 0.7m
● 연무늬 양각, 물받을 수 있음 분수 사용가능, 순환 모터 설치
011)9032-2723
017)354-0646

붓 다 마 켓
www.BuddhaMarket.com
인터넷 불교 용품점
도매(B2B) × 소매(B2C)
부산 금정구 남산동 225-12
051)583-7939

암자에서 공양주 구합니다
▷ 경기도
017)708-0635

공양주를 모십니다
▷ 60세미만 신심있는 불자님
02)877-7514

출가행자와 사찰일 하실 분 구합니다
▷ 한라산 영실 적멸보궁
011)696-85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50세~65세 미만)
▷ 경북 구미
054)452-6064
,0845 (주지실)

유치원 원장님을 모십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
21세기에 맞는 유아교육을 계획하고 불교사상으로 유치원 운영하실 분
017)301-1848
▷ 서 울

토굴 안내
● 경남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내 한려해상 공립공원 내 소재
● 근접지 : 해양 박물관 건립 중 달아공원 관광지 근접
●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자연 경관 수려
● 방생 및 기도터 적합
● 대지 : 73평 법당,요사채 : 20평, 인접 임야사용가능
● 가액 : 5천만원
055)645-7487 / 011)9520-6947

조용한 암자에서 같이 기도하시며 생활 하실 분
▷ 비구스님, 처사님
017)708-0635
※ 계곡에 위치해 있으며 산세 수려함, 경기도 지역

녹차 판매
지리산 화개야생녹차(햇차)
※ 공장도가 판매
※ 샘플 무료로 보내드림
※ 한통도 주문 可
055) 883-9321
염목다전(지리산 화개)

스님,행자 초빙
큰스님 지도하에 수행 기도하실 출가 희망자, 기도스님 모심, 창건 사찰
경남 밀양 얼음 골
055)356-1394
055)356-5968

일자리찾음
· 직종 : 사무 및 운전경 불사감독도 함께 가능
· 학력 :대학원 졸(건축)
· 연령 : 40대 ▷ 서울 경기
· 월급 : 상의하여조정원함
011)9511-3028
011)404-9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대지 : 240평
● 건물 : 50평(신축), 삼존불(석지반),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입법당, 방 3, 화장실 2개, 창고 1, 마당화장실 3, 현대식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시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 특징 : 교통편리, 주차완비, 정남향명당, 전망좋은 뒤는 산, 주위 땅 싸게 매입 가능
● 가액 : 9천5백 (답사 후 절충가능)
011) 501-1640
054) 335-8760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사 산세좋은 2차선 도로변
● 대지 : 158평
● 건물 : 2층 법당, 1층 요사채, 삼존불, 건평 65평
● 가액 : 총 평당 25,000원
055) 854-6458
011) 840-1578

사찰안내
● 전통법당 15평, 요사 20평
산 1,172평, 전 906평, 전 476평
● 전주 30분 거리, 진안 10분 거리 법당앞까지 차 진입 가능 천연 고찰
산수 수려 풍수지리 완벽 공부터, 물 암석 약수
063)634-1592
011)9646-1592

사 찰 안 내
● 위치 : 용인 ● 위치 : 부산 ● 위치 : 의정부(포교당)
● 법당 : 34평 ● 법당 : 24평 ● 법당 : 65평
● 요사 : 70평 ● 요사 : 50평 ● 요사 : 65평
● 부지 : 4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5천
● 가액 : 4억 ● 가액 : 3억2천 ● 시설비 : 3천 5백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438평(증교대지 등기필)
● 건물: 법당 31평 (목조3포,5포,금단청필)
● 요사: 80평(방10칸,주방2칸,거실)
● 명부전: 10평 (단청필)
● 기타: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8억(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 294-4889 018) 689-0455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네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 평수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2개 화장실 2개 창고, 시설 A급, 주차시설 완비, 식기류 일체 무상 제공
● 가액 : 보증금 1200만 월 20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52)294-3537
011)9315-1200

사찰 안내
● 가액 : 2억 3천
● 임야,대지 : 5천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1동(20평)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061)434-7724
019)660-6954
서선사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 삼존불, 신중탱화, 실상탱화 40평, 산신탱화, 방 2개, 부엌 1개
● 가액 : 전세 2천 5백만원 (시설비 약간 포함)
018)416-5489

사 찰 안 내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소재
● 부 지 : 5,00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35평(2동)
※ 신세가 이주 좋으며, 납골당 최적 서울 강남에서 1시간 30분 소요
● 양도가 : 3억 8천
● 위 치 : 서울시 근교 소재 (승용차 1시간 소요)
● 대 지 : 850평
● 법 당 : 40평(목조, 단청)
● 명부전 : 40평
※ 뒤는 신세 및 계곡 좋음
● 양도가 : 5억 8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탈 원 공 고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하
사찰명 : 용화사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94-153번지
위사찰은 귀 선학원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가 없어 탈원함을 공고함
2001년 4월 27일
용화사 송백현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마을 끝집)
● 대지 : 73평
● 건물 : 37평 1층 요사체, 2층 법당
● 가액 : 6,500만원 (융자있음)
● 시설 : 지하수, 뒤:공원, 교통편리
● 대상 : 비구니스님, 무속인, 사주보시는 분 가능
061)762-263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남자읍
● 대지 : 250평
● 건물 : 요사채 1층, 법당 2층, 산신각 1, 옆 대웅전자리 50평, 건물 1동
● 가액 : 7천 5백만원
016)501-2725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군위(부처골)
● 대지 : 182평 , 밭 724평 건평 43평, 황토집 2채
● 노천 석불 양도가 5300만원
● 3년분할, 전세가능
스님 직접 053)982-6778
011)813-3679

포교원(급)안내
● 법당 : 15평
● 요사채, 방3개(각각 4평씩)
● 삼존불 지장불 관음108불
● 보증금 :無 연 300백만원
● 가액 : 2천만원
052)221-2292
011)544-2191
울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 건물 : 요사채 20평 1동, 법당 15평
● 대지 : 450평, 사유지 300평
● 가액 : 전세 3,000만원
※ 산세좋고 양수리 부근임 초파일 법회 가능
011)201-2561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300평(문중땅 년 사용료 50만원)
● 법당 : 25평, 요사 : 30평
● 굴법당 : 15평, 산신각 : 5평
● 가액 : 8천만원
● 특징 : 산밑 기도 영험 도량으로 주변경관이 수려함
사찰전문융억 02)736-3578~9
금강기획 011)789-2255

지리산 시조암 선원
● 위치 : 실상사 미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 : 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 : 1억 9천
● 특징 : 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 건평 : 90평
● 요사채 : 70평
● 법당 : 20평
방 6개 주방 3개 거실 3개 욕실 2개
※ 법당 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영험한 기도 도량
경기파주 031)952-7905

사찰 부지 안내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삼합리 임야,대지,전 등 7637평 사찰부지최적 주택 2동 등 건물 315평 있음
시가 12만 매가 7만 5억3천 입금
02)521-3651
011)9678-2507

사찰 안내
● 위치 : 성남시
● 건평 : 80평(지하1층 지상2층)
● 성남시내 10분거리 서울 양재동 5분 거리 (포교당으로 적합)
● 가액 : 4억 5천만원
017) 201-4415

임야(급)안내
● 용도 : 사찰적지 및 농장도 가능함
● 소재지 : 의정부시 산곡동 소재 (의정부 역 하차 10분 거리)
● 면적 : 약 8000평
● 기타 : 매매가격 절충 최하가격 가능
문의 016)405-1727
018)260-0419
야간 02)419-0419
야간 02)2247-3821

사찰 안내
● 위치 : 광주 시내 중심가
● 1층 유치원, 2층 법당 60평
● 요사채 2채, 대지 320평
● 특징 : 등립산 중턱에 있는 사찰
● 가액 : 약 8억 (절충가능)
011)633-8450
062)368-8450

사 찰 안 내
● 위치 : 가평군 하악산 줄기
● 특징 : 벚나무가 많고, 산세수려, 물이 좋고, 계곡 깊음
● 건물 : 법당,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요사채 2동, 사워실, 욕실, 화장실
● 평수 : 1000평
● 가액 : 3억 5천(절충가능)
017)708-0635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명일동 구분다리역 부근(전철역 부근)
● 시설 : 2층, 28평 임법당 3존불 후불탱화 신중당 영가단 시설완벽 법회가능 방 2개 주방 사워실 화장실 다용도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2)426-2183
011)222-8841

사찰 안내
● 법당 : 20평
● 요사채 40평 (목조건물)
● 대지 1,000평 임야 5,700평
● 요왕당, 현대시설 완비
● 가액 : 5억
꼭 필요 하신분만 전화요망!
043)260-6766
011)9746-6766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 4가 (요지)
● 평수 : 70평 4층 건물 3층
● 구조 : 법당시설 A급, 개금동불 (아미타불 5자) 일급 탱화 모든 시설 완비, 요사채 2, 주방 1, 앰프시설완비, 사워장,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전세) 월세8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523-0716/054)292-41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이천 ● 부지 : 1600평
● 법당 : 30평 ● 지장전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만물을 항상 자기와 둘 아니게 보라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법당에 앉아 계시지만 자세히 아실 것 같으면 우주 한 복판에 앉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복판에 앉아 계신 부처님이 수만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제각끔들 모시고 있는 자불을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왜 주인공이라고 했느냐 하면 항상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만 이거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모두 여러분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을 한 번 돌려서 말하면 성불입니다. 우리가 그냥 최초부터, 생명이 생길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로 인해서 이렇게 움죽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알고 이 법이 옳은가 그른가도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우리가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덟가지의 문제를, 팔정도를 가지고 잘 해 나갈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보이지도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 잡을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가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살아 있으니까 있다는 거, 누가 대신 살아 주는 게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 불성이라고 한다면 높이 보기도 하고 얕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깐 높이 보면 자기와 동등하게 동일하게 되지를 않으니까 얕게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고 항상 둘 아니게, 법당에 올라가더라도 부처님과 자기와 둘 아니게 마음도 공심으로 갖고 법도 공법으로 갖고 움죽거리는 것도 공용, 공식으로서 만법을 들이고 내도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자기로 보라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탕 탕 탕) 이것을 이렇게 한 그릇 들면 이 물 한 그릇이 우리가 보는 컵에다가 물을 담은 거죠. 그렇지만 이건 산과 물이 둘이 아닌 데서 오는 겁니다. 산과 바다가 둘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둘이 아닌 거기에서 그냥 내가 훌쩍 마실 수 있어야 된다. 마실 수만 있어도 아니 된다. 그걸 마셨으면 토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스님들이 배우는 겁니다. 마시기만 하고 토해낼 줄 모른다면 세세생생의 모든 생명들을 이끌어 가질 못합니다. 한 생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법당에 계신 부처님이 그냥 앉아 계신 줄만 아시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부처님이 오는 사이도 없고 가는 사이도 없이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계의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무조건 믿어라. 당신이 살았으면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기고, 예를 들어서 아주 기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냥 주인공대로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동자도 되고, 때로는 관세음도 되고, 때로는 지장도 되고, 때로는 지신도 되고, 용신도 되고 별의 별 가지각색으로 화현을 하십니다. 그거는 다가오는 대로 염하고 관하면 화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정신계의 자기를, 보이지 않고 짤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지만, 진짜로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하고 통신이 되질 않아요. 얼른 쉽게 말해서 가정에 전화통 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집에 전화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전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그런데 전화통을 놓으니깐 할 데 있으면 하고 또 올 데 있으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없이 죽어서 사는 법을 배운다. 우리가 지금 24시간 살면서 동일하게 한가지로만 고정되게 보는 게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으니 뭐이 살았다고 할 수 있으며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하는 것이지 함이 있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리를 넉넉히 아신다면, 설사 셋방에서 살기 때문에 쪼끔해서 조상들이 오셔도 상을 차릴 수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자리가 아무리 요만해도 몇 만 분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도리를 깨닫고 하나하나 이렇게, 꼭 무명줄을 잡고 이 도리를 하나하나 느끼고 체험하면서 나가시면 아주 진짜로 믿게 되죠. 진짜로 나를 믿어야 됩니다. 죽을 때에 다 놓고 죽는 것처럼. 죽을 때는 뭐를 두고 죽는 게 없습니다. 자식들을 5남매를 낳아 놓고서 죽으면서, 아유,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그 애들은 그 애들대로 타고나서 살게 되니까 너는 다 놓고 가거라. 죽을 때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가느냐.' 하시더랍니다. 그러니 모든 게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자기가 불충분하게 과거로부터 해 놓아서 일이 저질러지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깐 어떤 일이든 간에 남의 탓할 게 없다. 내가 잘 했든 못했든 내 탓이지 남의 탓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똑바로 배워야 여러 마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기 싫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한다고요. 그러나 해도 해도 그게 완전히 자리를 못 잡을 때 힘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공에 주장자를 착 놓고, 그게 에너지 주장자죠. 착 거기다가 놓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한다면 아프면 의사로 화할테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 지신이 돼 줄 테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렇다면 허공신이 돼 줄 거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 용신이 돼 줄 거고, 모두 칠성부처가 돼 줄테고, 내가 당하는 데로에 관한다면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바꾸어서 화해 준단 얘깁니다. 그러니깐 묘법이고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을 여기도 모셔 놓고, 저기도 모셔 놓고 부처님, 지장보살, 문수보살, 관세음 보살,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시대가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아셔야 될 거 아니냐는 그 소리죠. 우리가 내 배에 잔뜩, 이 소리하니깐 생각이 나는군요.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한국에는 보물이 뭐냐고 하니까 배를 탁 탁 탁 세 번 두들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더 말할 게 없거든. 거기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못하곤 돌아갔단 얘기입니다. 그거와 같이 간단하게 하려니까 이렇게 그냥 뚝뚝 띄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사는 원인이 마셨다가 토해내고 토해냈다 마시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이 한 생각에 펼쳐지기도 하고 들이 마셔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복잡한 세상이 됐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짓느냐에 따라 문제가 아주 소소영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 개개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잘될 지 모르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할텐데 하고 그냥 자기가 모르는 거니깐 자기 주인공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요. 또 그걸 아는 분들은 자기가 그냥 결정을 지어도 되고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정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사시지만 여러분이 충만하게 돼야 가정도 충만하고, 사회도 충만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돌아간다 이 소립니다. 내가 충만치 못하고 충만치 못한 사람을 집안에다가 갖다 놓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겁니까. 고생을 하면서 한참 돌아가죠. 그러니깐 내가 충만하게 할 수 있어야 만이 충만치 못한 사람을 갖다 넣어도 충만하게 돌아간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몸으로 다니면서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도 그렇고 얼마나 부처님이, 돌부처도 나라를 구하려고 애썼고 샤명대사니 서산대사니 모든 스님들이 다 나서서 군대를 만들었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당초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물이 조금 새는 것을 탁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조금 조금 흘러내리는 거를 막질 못했기 때문에 확 터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 천에 없어도 마음이 부자라면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치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죽은 영령들도 다 공체가 되고 공심이 되니까요.

질문할 분 있으면 속 시원하게 질문하시고, 시원하게 그대로 마음을 쓰세요. 나쁘고 좋고가 없으니까요. 고가 있고 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질문자1: 저는 평상시에 이 공부를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에 대해서 법을 청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생활할 때에는 어리에 맡기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요? 법을 청하옵니다.

▲스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 믿으면 덥썩, 우리가 죽을 때에 그냥 다 거기다가 일임하고, 정말이지 진짜로 놓을 수 있다면 과거가 현실로 참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관할수도 있고,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 믿으면 과거가 앞으로 오더라도 이걸 해결 못 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진 빚이라면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될 때도 있는 거는 불가부득이 해야 할 문제, 원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몸에 뼈가 없고 아주 그냥 흔덩흔덩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드러누워서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부모가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이 생명이 살아나가나 하구선 절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 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소.' 하니깐 지금 빨리 가게 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그 아이한테도 이득이고 우리 식구들도 살겠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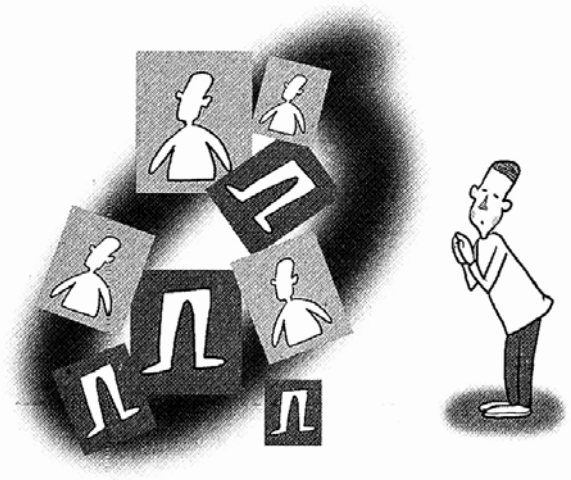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산과 바다가 본래 둘이 아니니
그것을 내가 훌쩍 마실 수 있고
마셨으면 또 토해낼 줄도 알자**

내탓이지 남의 탓 없어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갠한테 주어진 문서를 저승엘 가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저승도 한발짝이요, 천당도 한발짝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천리 만리 까마득한 문제죠. 마음공부해서 길을 아는 사람들은 한발짝이고 온 사이도 없고 간 사이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길 갔다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지 하나를 얻어서 그거를 없애야만이 그 아이의 해결을 할텐데 그 쪽지를 얻기 위해서 누가 저승엘 갑니까? 천상 심부름하는 내가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게 많다 이겁니다. 내가 없이 있기 때문에 화할려면 무지하게 화하고 없어 질려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쪽지를, 돌이 아닌 까닭에 가면 쪽지가 나올 수 있죠? 쪽지를 받아서 없애 버리니까 그때 애가 갔습니다. 뼈가 없이 그러니까 가서 다시 재생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듯이 그 모두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 문제로 돌아와야 만이 주인공에다 놓고 그럴텐데 과거 일이 앞에 있어도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믿었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믿었어야 그 모습도 화해지고 다 둘 아니게 없어질텐데 말입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그러고 때에 따라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오실 때에 답답한 이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그거를 시작할 때에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거죽만 보고,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죠. 결국 얼마 안가면 거론이 되고 말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일은 상당히, 관해서 그것을 없애야 될텐데 정말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어서 개개인이 전부 내가 없다면 진짜로 그것은 화해서 말갛게 물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죠. 여러분, 잘들 공부하셔서 하나도 언짢치 않게 앉아서 천리 만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게끔 모두 성의를 베푸십시오.

▲질문자2: 제가 주인공에 맡기는 공부와 관하는 공부를 시작한 지가 한 7, 8년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법을 만날 때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청년 법우의 손을 잡고 나도 모르게 악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습에 자꾸 제가 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는 몸이 너무나도 약했었어요. 간도 나쁘고 감기 몸살 등을 한 달에 두어 번씩 앓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 공부를 하고 제가 한 번 병원에 가야될 일까지 생겼는데 안가고 한 번 넘어섰습니다. 그 때 한 번 넘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여태까지 감기와 몸살로 시달려 본 적도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나는 몇 년 안에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도 들었습니다만 습에 젖는지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걸음을 못 걷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진찰이라도 해보겠노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디스크 1번과 2번 사이가 다 망가져 튀어나와서 칼로 수술을 해야지 약물로는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병원이 디스크계통에서는 저희 고장에서 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입원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왔습니다. 그냥 집에 와서 열심히 관하는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간혹 내 안에 스승이 랍까 자성으로부터 화두도 들었고 그런걸 풀어가기도 하며 지내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하고 있는데 영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한번 강하게 해볼까 하는데 자성에서 에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와 동시에 저를 180도로 두 번을 좌우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저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부터는 얼마나 아픈지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식구가 병원에 가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참으려고 그래도 참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몇 년만에 진통제를 사오라고 해서 진통제만 먹으려고 두 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두 알을 더 먹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하도 아프니까 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아! 관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울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생각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의 욕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구급차에 실려서 저의 도반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참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사들하고 남자 분들이 전부 퇴원을 해서 여 간호사들밖에 없는데 그 때 저는 일어날 수도 없고 누워서 꼼짝을 못하니까 소변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걸 빼내야 되는데 토요일이라 2시에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2시경서부터 소변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링겔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더 배가 불러 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는데 새벽 2시 경 쯤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주인공에 관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스님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없구나 스님께 한번 말씀드려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때 제가 시계를 쳐다보니까 새벽 2시가 좀 넘었는데 제가 관을 하면 스님께서 깨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를 자꾸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내가 잘못해 놓고 왜 스님께 그러는가 하는 생각이 나서 하지를 못하고, 내가 잘못 살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울었는지 시간이 5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길은 없고 스님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자하고 관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흘렀는데 갑자기 사원해지면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작용이 일어난 거 아닌가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는 순간 아 이것이 통했구나 정말 이렇게 낫구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계속 시원해지면서 한 2, 3분 흐른 후에 완전히 사라지고 편안한 상태가 됐습니다.

마음 부자면 절로 부자

그래서 그때 순간 저는 주인공을 믿으면서도 의심이 났어요. 아, 이거 터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면서 통해서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나 하구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터진 게 아닌가 해서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간호사가 와서 배를 만져보더니 바로 뛰어내려가요. 그러더니 가서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없다면 의사가 쫓아와서 그게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빼니 그 양이 아주 조금 나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의사가 퇴원을 하라니까 왜 퇴원을 안했느냐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제 겁이 난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에, 그럼 퇴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대학병원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빨리 가라니까 안 갔느냐고 하길래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또 그 병원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할까 아니면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믿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만약 터졌더라면 주인공이 낮게 해 주겠지 하고 맡기고 말았습니다. 그래 시간이 흘러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경험한 게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스님: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한테 많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질문자2: 그래 역시 저녁 한 2시경쯤 잠을 못 자면서 주인공에 관하고 있는데 문득 스님이 수행하실 때 공비로 몰려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해보자, 순간 그런 생각이 나서 이튿날이 지나고 내가 퇴원을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후 이튿날이 됐는데 과장님이 오시더니 느닷없이 내일 퇴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식구들이 박수를 치고, 저는 수술이 칼로 꼭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집 식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수술도 안하고 내일 퇴원하라고 그러니까 한참 놀래 가지고 박수를 치더군요. 그래서 이튿날 저는 퇴원을 해서 도반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 28면으로 계속

살아 있으면 불성은 자기에게 있어

☞ 27면에서 계속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오라는 날짜에 제가 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주는 약은 병원에 있을 땐 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제가 타온 것을 집에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안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갈까말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 가보라고 그러기에 도반과 함께 갔어요. 갔더니 또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꿈뜩꿈뜩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도 약도 안 먹을 거고 뭐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약을 타가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 분이 뭘 적을까 말까 적을까 말까 하다가 약을 안 주더군요. 그래서 도반이 나오면서 왜 약 안 타냐? 그래서 약 안주더라고, 내가 이러이러했더니 안주더라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 후 저는 계속 주인공을 믿으면서 열심히 관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진짜로 믿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습에 의해서 자꾸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스님께 언젠가는 꼭 한번 여쭙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스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는 듯한 법문을 그 다음 법회 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처음 마음먹었던 것처럼 언젠가 스님께 기쁜 말씀을 드려서 웃는 모습을 꼭 한번 뵙고자 합니다. 그 날까지 법체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스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엎었다가 뒤쳤다가 할 때에 벌써 병은 움죽거린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얼른 생각을 하셔야 그게 그냥 없어지고 괜찮은 건데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죠. 허허허. 그러니까 이제는 죽으나 사나 그냥 믿으세요. 어차피 죽을 때 다 버리고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다 버리고 죽는데 이 마음이 버리지 못한다면 이 다음에 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세생생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팔뚝 하나 쥐고 끌어 잡아 당겨 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깐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고 무조건 행동하세요 그냥.

▲질문자3: 오늘도 만중생에게 대자대비를 베풀어주시는 스승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 몸은 종합병원입니다. 스님을 뵈옵고 한동안 설사가 멎다가 다시 예전처럼 설사가 계속해서 한약, 양약을 같이 먹고 엊그제부터 설사가 많이 멎었는데 그동안 시험 준비하는 촉박감 속에서도 수시로 매일 관하고 있습니다. 팔신경불안, 신경예민, 결벽증 등은 10년이 넘게 계속된 것 같은데 관할려고만 하면 팔신경이 곤두솟아 마음이 불안해져 그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동안 과민성불안이 잘 낫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신경정신과 약을 먹었지만 그것을 먹으면 몸의 기운이 너무 빠지고 졸려서 먹다 말다 해 오고 있으며 축농증은 2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번의 수술을 해도 잘 낫지를 않고 의사도 특이체질이라 거의 해답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세상 모든 병의 원인이 영의 소행인 것을 알고 마음이 답답해 어디서 알아보니 산소파동 등으로 인한 조상 산바람 즉 조상 골전이 거세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저 또한 13년 동안의 방황과 각종 사고들 그리고 고통이 오랫동안 파란만장했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몸에 신을 받들고 계시고 제 몸에는 할머니와 동자승과 전쟁 때 객사한 청춘에 갔다는 남자가 신장으로 와 자꾸 제 앞길을 가로막는다며 대를 물려 박수가 돼야할 팔자랍니다. 가족들도 다 신의 제자 팔자랍니다. 제 모든 병들은 조상 천도를 잘 해주면은 자연스레 치유된다 하던데 지금 제가 몇 천만 원의 빚을 진 실업자지만은 조상천도를 해 주어 저와 가족들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게만 할 수만 있다면 비싼 카드 빚을 내서라도 천도재를 지내고 싶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관하고 있지만은 마음 법을 공부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와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텐데 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큰 가르침 주시길 원합니다.

▲스님: 그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이날까지 간단한 걸 그렇게 가지고 애썼죠?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공생이에요. 공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심이자 공체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공생, 공심, 공체 공용을 하고 산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몸에서 세포 하나의 생명체도 떨어져 있는 게 없구나. 더불어서 같이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조상들도 산 사람과 둘이 아니게 똑같이 섬기세요, 마음으로. 잘 못했든지 잘 했든지 간에 지금부터 모두가 공생으로 공심으로 하세요.



그림 · 최주현

자기 불성에 몽땅 놔야 불성과 하나돼

언행 · 걸음 하나도 인의롭고 부드럽게

그럼 죽은 영가들도 공용으로 움죽거릴 거고 당신의 마음이 공용으로 움죽거린다면,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냥 공용으로 다 움죽거려서 어떤 거든지 걸림이 없어요. 새로 바꿔지면서 재생이 되는 거죠. 재생이 되고 또 좋은 데로도 갈 수 있고요. 사람들 살아 나은 차원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공법을 쓰니까 그냥 공법대로 하나로 돌아가는 게 없이 그냥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 법우는 살아요.

조상도 산사람 섬기듯

▲질문자3: 예, 이 세상을 살아 나가면서 저희들이 겪는 일 중 어떤 소망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소망이 이루어지게끔 관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때가 되면 이루게 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간까지도 마음자리에 맡기는 것 중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마음공부를 하는 것인지요? 또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도 있기에 직장 다니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에 입학을 했는데 앞으로 4년 내에 졸업하고 그 기간 내에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관하는 것하고 단지 최선을 다하고 때가 될 때 주인공자리에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두 방법 중 어떤 게 제대로 관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바랍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그걸 생각으로 나누어서 나하고 믿는 자리하고 둘로 놓고 믿는다 이러지 말고 그냥, 나무에 뿌리가 있으면 뿌리와 그냥 붙어 있구나, 돌아가요 머리가? 붙어 있으니깐 무슨 믿는다 안 믿는다가 없이 그냥 죽어도 살아도 그걸 믿는 거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말을 해도 모르니깐 그냥 그렇게 해서 확 바꿔버리세요. 진짜 당신 정신계의,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신계의 보이지 않고 들기지도 않고 말도 안 하지만은 당신은 정신계와 이 모습의 물질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둘 아니게 돌아가죠, 지금. 그러니깐 보이는 물질계, 보이는 내 모습은 정신계의 당신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너만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끄달리지 말아요. 조상한테도 끄달리지 말고, 식구들한테도 끄달리지 말고요. 그래야 식구들도 살죠. 돈도 벌 수 없다면서 돈 들어갈 일을 왜 자꾸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인연으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고, 남을 대신해서도 아플 수가 있어요. 부모가 고생을 했다면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가 고생을 무릅쓰고 길렀다는 그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부모의 그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내 몸으로다가 우정 그렇게

마음 아닌 마음은 자유

하는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부모들도 그렇고 죽은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길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한 발짝도 나가보지 않고도 세계를 들지 않아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나쁘고 좋고를 짐작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가 맡기면, 주인공이 하나 틀입니까? 이 허공에 꽉 찰래도 꽉 찰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길을 배우시면서 담담하게 가시면 여기 낙오되시는 분은, 하하하… 이 다음에 아이고, 한탄한다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한생각의 요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저께 산책을 하면서 산 이 쪽 저 쪽을 보니까 꽃이 만발을 했는데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데로 그냥 웃고 야단이에요. 아주 좋아서 말입니다. 향기가 그냥 들고 그래서 너무도 좋아 이렇게 내 손까지 벌였어요. 자꾸 와서 도니깐 받아들일 수 밖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 불이지, 부처는 불이에요. 불. 그래 불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버리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없이 그냥 다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모두가 자유스러우니까요.

내일 모레 울산지원에 점안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점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하나 교육시켜서, 마음자리 공부시켜 놓는 거나 같아요. 점안하는 사람이 틀리면 그 부처님은 사불이 돼죠.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잘못되면 부처님만 사불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길 오고가는 사람들에게도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부처님이래도 그냥 모셔 놓고 절하고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불이 되느냐, 사불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이름이 열 댓가지 된다는데 다 내 마음대로 점안식 할 때에 한 사람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 자기 자불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일체제불, 우주, 혹성, 지구 이런 데에도 구석구석이 염원이 된단 말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넓은 것 같지만은 지구가 좁다고 생각하면은 좁쌀알갱이 만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떤가.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크면서도 요사스럽다는 얘기죠. 마음이 아닌 마음이래야 만이 요사스럽지 않다 이거죠.

우리 스님들은 더군다나 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말고 때에 따라선 껑충 뛰어서 그냥 올라가드록 한다면 이 생 죽기 전에 다 해결을 하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려고 애쓴다면 그건 무리죠. 그래서 화엄경하면, 금강경 해도 그렇고 전부 경을 한데 합쳐 놓고 공생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버려, 꽃이 참 예쁘죠? 그런데 시들면 그렇게 보기 싫어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 버리죠, 이 세상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잠시잠깐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잠시잠깐 이거 봤다가 저거 보게 잘 해 놨죠. 그러고 이거 들다가 저거 들게 잘 해 놨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게도 잘 해 놓고요, 길게 한가지 일만 하게 해 놨으면 못 살아요, 하하하.

그러고 사람이 한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데, 예전에 토굴에 있을 때의 얘기인데 토굴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대추를 몇 개 따다가 한 움큼 갖다 주는 거예요, 윤처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래 그거를 접시에 담아 놓고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거 먹을 사이가 있나, 낮에 모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애 쓰니까 이것 갖다가 먹이시면 나을 거라고 그러면서 다 찌버렸어요. 하나씩 줬더니 그냥 쏟아지던 피도 딱 멎어지고,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던 애가 일어나서 밥을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그 약을 먹고 그렇게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모두들 성불들 하십시오. 그래서 모두요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싱긋 서로 웃고 지나게요.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지난 4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구정물을 아주 새 물로 해서 먹고 써라"

- 대행 큰스님 법어 중에서



동인한의원 원장 박세철 합장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가 445-1 전화 : 053)422-4978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운흥사**
주 지 지 우
신도회장 하대원심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151
TEL 053-768-3882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
회 원 일 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46
(충북불교문화회관 3층)
TEL 043-276-6812 / FAX 043-294-4445

대한불교 조계종 **계룡산 갑사**
주 지 황장곡
신 도 일 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TEL 041-857-8981
FAX 041-857-9753

태평양고속관광
대 표 김기창
직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266-29
TEL 051-816-3000(대표) 808-8011
FAX 051-808-8055

대한불교 조계종 **상주포교당 상낙사**
주 지 자 음
신 도 일 동
부 설 상낙유치원
■ 경북 상주시 서성동 60-8
TEL 054-535-2881

한국불교 태고종 **성주산 연흥사**
주 지 법경 지상 합장
신 도 일 동
부 설 연흥불교교양대학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 본1동 185-29
TE_ 032-348-6606~3 / FAX 032-347-6601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소요산 중화사**
주 지 용하 계선
신도회장 명 여
신도회총무 각성화
지장회총무 보광명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TEL 031-856-5520, 864-3244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은해사말사 청송포교당**
신 도 회 일동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17-5
TEL 054-873-2305
FAX 054-872-8894

북한산 형제봉 **깊고 가까운 절 심곡암**
주 지 원 경
신 도 일 동
■ 오시는 길 - 정릉 국민대학과 북악터널사이 북한산국립공원입구에서 도보로 20분 거리
서울시 성북구 정릉 3동 산1-1
TEL 02-914-8860
www.simgokam.org

대한불교 조계종 **마태사**
주 지 재 화
신 도 일 동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 산851-1
TEL 031-532-6481

길상불교미술원
원 장 윤기룡
불화 탱화 신도용 불화
■ 대구광역시 달성구 현풍면 부리 438 3층
TEL 053-616-9063
FAX 053-617-9069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사 부 대 중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
TEL 054-672-7579
FAX 054-672-7565

대한불교 조계종 **사자암**
주 지 도 각
대 중 일 동
■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280
TEL 02) 826-1046
FAX 02) 826-9008

대한불교 조계종 **청량산 청량사**
주 지 지 현
신 도 일 동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39
TEL 054-672-1446
FAX 054-672-9060

대한불교 조계종 **석남사**
주 지 정 조
대 중 일 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TEL 031-676-1444

대한불교 조계종 **거조암**
주 지 돈 명
총 무 혜 안
재 무 덕 현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경주산내기와
대 표 김영곤
사찰 한식 골기와 전문생산시공
■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1285
TEL : 054-751-5692

대한불교 조계종 **법룡사**
주 지 법 광
신 도 일 동
■ 경북 안동시 당북동 319-1
TEL 054-853-4837 / FAX 054-853-4884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사**
주 지 지 성
옥천사 성보박물관
극락보궁 건립 중
하동청소년수련관 임직원
신 도 일 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TEL 055-672-0100 / FAX 055-672-0451
수련원 055-883-5393

대한불교 조계종 **천일기도도량 오봉산 석굴암**
주 지 도 일
천일기도 7월 5일 회향
봉선사 큰스님 월운스님 법문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1
TEL 031-826-3573

자연청정법신불 **마이산 은수사**
신 도 일 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5
TEL 063-433-2502

대한불교 본원종 **고경사**
주 지 청 산
신 도 일 동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
TEL 054-637-8885 / Fax 054-637-8885

대한불교 조계종 **광흥사**
주 지 일 현
총 무 혜 봉
재 무 권오규 조옥화
신 도 일 동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자품리 813
TEL 054-841-6848

대한불교 조계종 **황룡사**
주 지 금 해
신 도 일 동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667
TEL 031-731-4663

대한불교 조계종 **광덕사**
주 지 윤성광
신 도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3
TEL 031-962-8363
FAX 031-963-8363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원 장 지 관 노 전 보 안
회 주 법 희 주 지 혜 총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
TEL 051-809-0926
FAX 051-803-0188

대한불교 조계종 **관운사**
주 지 지 산
신 도 일 동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6리 526
TEL 054-931-7777

경암불교미술원
원 장 권영관
불전탱화전문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077
TEL 051-336-5539(화실)
HP 011-889-5538

한국불교 태고종 **대자사**
주 지 자 운
신 도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3-5
TEL 031-964-6075 963-9251
031-964-0031(팩스겸용)

대한불교 법화종 **보은사**
주 지 법 홍
신도회 고문 박대원행 관음회 회장 홍인명심
신도회 회장 최성불화 합창단 단장 권지혜화
신도회 총무 김청정심 산악회 회장 김연화정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1201-3
TEL 053-941-9164 953-6704(팩스겸용)
www.boeunsa.or.kr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성전사**
신 도 일 동
■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31번지
TEL 055-753-8662 / 055-754-7056

대한불교 조계종 **칠불사**
사부대중일동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
TEL 055-883-1869 / FAX 055-883-1877

앞서가는 가르침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사**
대 중 일 동
■ 경남 창원시 신월동 93
TEL 055-262-6665

대한불교 조계종 **임허사**
주 지 원 상
신 도 일 동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31
TEL 054-261-0331
FAX 054-262-2339

대한불교 조계종 **일출암**
주 지 지 웅
신 도 일 동
■ 경북 안동시 녹전면 녹래리 741
TEL 054-855-5685
FAX 054-856-5686

대한불교 법화종
팔봉산 관봉 약사암
주 지 일 여
신도회장 이광영
신 도 일 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TEL 053-852-0803 / FAX 053-853-9453

대한불교 조계종 **황룡사**
주 지 상 용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명 1959-22
TEL 053-652-7823

봉 **부처님 오신날** 축
www.korea108.com
인터넷불교정보(주)
www.korea108.net
인터넷불교방송(주)
www.108korea.com
고려사찰건축(주)
www.108korea.net
고려불교출판(주)
대 표 김 종 일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주 지 목산 지은
신도회장 정반야심
사부대중 일동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9
TEL 052-243-8712
FAX 052-243-1142

대한불교 조계종 **성덕암**
주 지 이지선
신 도 일 동
■ 경남 마산시 추산동 산 1
TEL 055-246-4259
FAX 055-246-4258

대한불교 조계종 **화방사**
대 중 일 동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
TEL 055-863-5011 / 055-863-5014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황일면
광동중학교 교장 김교남
광동종합고등학교 교장 고홍택
광동여자고등학교 교장 윤종희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03-5
TEL 031-572-0559 FAX 031-572-4049

화야산 운곡암
총 무 황 학
신 도 일 동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102
TEL 031-584-4374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봉 림 사
주 지 성 광
신도회장 정원수
신 도 일 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2372
TEL 054-337-3413

대한불교 조계종
사불산 대승사(大乘寺)
선원대중일동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8
TEL 054-552-7105
FAX 054-554-0107

대한불교 조계종 **관운사**
주 지 지 산
신도회장 도제영
신 도 회 일 동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

대한불교 조계종 **유가사**
주 지 혜 성
신도회장 보덕행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 144
TEL 053-614-5115 / FAX 053-614-5116

대한불교 총화종 **만경사**
총화종 교육원장
주 지 청 해
신 도 일 동
■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산50
TEL 041-522-3895

대한불교 조계종 **도정암**
주 지 지 성
신 도 회 조성우
김상욱
김일난
신 도 일 동
■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산 32-5
TEL 054-972-6563

대한불교 조계종 **대덕사**
신 도 일 동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83
TEL 033-332-8743

대한불교 조계종 **백운암**
주 지 지 일
신 도 일 동
■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51-1
TEL 055-962-8573

대한불교 조계종
태조산 성불사
주 지 원 경
사 부 대 중 일 동
■ 충남 천안시 안서동 178-8
TEL 041-565-4567 / FAX 041-568-4567

대구 서봉사
주 지 김경희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1동 439-2
TEL 053-471-4812 / FAX 053-471-4813

대한불교 조계종 **모선암**
주 지 탄 하
신도회장 안순덕
신 도 일 동
■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225
TEL 054-832-2510 FAX 054-833-0108

대한불교 조계종 **상원사**
주 지 경 덕
신 도 일 동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985
TEL 034-763-1608

대한불교 조계종 **남화사**
주 지 성 화
신도회장 예수일심
신 도 일 동
■ 경북 구미시 남통동 70
TEL 054-452-6568 / 458-3611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신 도 일 동
■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630
TEL 055-754-6355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신앙의 현실화에 앞장서는 도량
예천 장안사
주 지 기정 합장
신 도 일 동
■ 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54
TEL 054-655-1400/1401

1,500백년 전통사찰 지장천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현등사**
주 지 초 격
대 중 일 동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163
TEL 031-585-0707

대한불교 조계종 16교구
부 석 사
대 중 일 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FAX 054-634-3464

모든 승려들이 도열하여 달마를 영접했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㉚

(29) 소림사와의 인연

소림사는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 태화(太和) 19년(단기 2828년, 서기 495년)에 창건됐다. 중원 땅을 밟은 천축의 승려는 달마가 처음은 아니다. 이보다 훨씬 앞선 인물이 발타 대사고, 소림사는 바로 그 발타 대사가 개창한 절이다.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효문제는 발타 대사에게 '사념처(四念處)'와 '오정심관(五停心觀)'을 배웠다고 한다. 발타 대사가 가르친 '사념처'란 신(身) 수(受) 심(心) 법(法)의 네 가지가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임을 항상 염(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 '오정심관'이란 부정관(不淨觀) 자비관(慈悲觀) 인연관(因緣觀) 계차별관(界差別觀) 출입식관(出入息觀)을 이르는 것이다.

'사념처'와 '오정심관'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발타 선법(禪法)은 당시 중원에서 크게 성행했고 제자 혜광(慧光)과 승조(僧稠)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발타 대사의 가르침에 감복한 효문제는 일대 불사(佛事)를 일으켜 큰 절을 짓게 했다. 절이 완공되자 발타 대사는 효문제에게 절 이름을 지어 하사해 줄 것을 간청했다. 효문제는 흔쾌히 승낙했다.

발타선법 중원서 성행

"이 절이 위치한 곳이 소실산이요, 절 앞에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으니 수풀 림(林)자를 붙여 소림사라고 하는 게 어떻소."

소림사란 이름은 이렇게 해서 붙여진 것이다.

발타 대사가 주석한 소림사에는 자연히 수많은 승려들이 몰려들었다. 가히 소승불교의 본고장이라 불릴 만했다. 그 많은 승려들 중에서도 혜광과 승조는 단연 출중했다. 발타 대사는 차츰 절 안의 일을 두 제자에게 맡기다시피 했고, 마침내 모든 것을 위임했다. 발타 대사는 제자들에게 나들이 삼아 잠시 산천구경을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절을 떠났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고 행방이 묘연했다. 다만 서천(西天)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발타 대사가 떠난 후 소림사의 주지는 혜광이 맡았다. 그는 승조와 힘을 합쳐 스승의 선법을 펴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소림사의 법맥은 날이 갈수록 세를 떨쳤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 새 몇 년이 훌쩍 지났다.

이 날도 주지 혜광은 소림사의 본당에서 법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법당 안은 전에 없이 열띤 분위기였다. 여러 승려들은 자신의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서로 주장과 논박을 펴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주지 혜광은 이런 분위기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권장해 마지않았다. 한창 법당 안이 떠들썩할 즈음 행자승 지인(智仁)이 총총걸음으로 법당에 들어왔다. 혜광 앞으로 다가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지 스님께 아룁니다. 문 밖에 천축 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스스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28대 수법조사(受法祖師)라고 하며, 법명은 보리달마라고 합니다. 주지 스님을 뵙자고 청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혜광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이미 천축의 큰스승인 달마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광주의 법성사에서 불법을 편 이야기뿐만 아니라 양 무제의 부름으로 금릉으로 가서 논쟁한 일까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금릉을 떠난 이후로는 머무는 곳을 알 수 없어 안타까워했던 터였다.

그 동안 혜광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달마가 묵고 있을 만한 사찰을 수소문해 보았다. 있는 곳이 확인되면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사를 소림사로 모셔 오고 싶어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달마 조사께서 몸소 찾아오셨다니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혜광은 기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지인에게 다짐받듯 물었다.

"정말 천축의 조사이신 달마라고 하시더냐?"

"소승이 어찌 감히 주지 스님께 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천축의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해 올렸을 뿐입니다. 다만 28대 조사이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혜광은 더 이상 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천축의 승려라면 달마 조사가 틀림없다고 단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일어섰다. 즉시 법회를 중단하고 법당문을 활짝 열게 했다. 그 곳에 있는 승려들에게 모두 나가서 환영하도록 일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순식간에 소림사가 떠들썩해졌다. 종소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모든 승려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하여 달마를 영접했다.

달마는 예상치 못한 영접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여간 기쁘지 않았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곳에서 이토록 융숭하게 예우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달마는 환영하는 승려들을 웃음으로 대하면서 합장한 자세로 몸을 굽혀 예를 표하려고 했다. 바로 그때 주지 혜광이 한 발 먼저 달마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대사께서는 달마 조사가 틀림없으신지요?"

달마는 그 말을 듣자 웃음을 거두었다. 이미 행자승에게 그렇게 알렸거늘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인가? 달마는 근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믿지 않으시는 모양이군요?"

이번엔 주지 혜광이 당황했다. 황송하다는 듯 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목소리조차 떨렸다.

"어찌 소승이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조사께서 오시는 줄도 모르고 멀리 나가 영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승과 自利에 안주**
> **중생 제도 못하는 현실**
> **못내 안타까웠다**



◇경봉 선사 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133×66cm, 통도사 극락암 소장).

그제야 달마는 빙긋이 웃었다.

"이 몸은 끌리거나 매임이 없소이다. 사해(四海)가 모두 공(空)한데 주지는 하필 그런 속세에서나 하는 말을 하시오. 자, 어서 일어나시오."

달마는 양 팔을 벌려 주지 혜광을 일으켜 세웠다. 혜광은 기골이 장대한 달마를 우러러보았다. 짙은 눈썹에, 방울같이 생긴 큰 눈에서는 신비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우뚝 솟은 콧날에 딱 벌어진 입술, 총총히 자란 수염에 어깨까지 늘어진 귀(耳),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조사의 상(相)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다만 달마가 입고 있는 법의는 너무나 남루하고 지저분했다. 군데군데 살갗이 보이고 옷 전체가 먼지와 때로 덮여 있었다. 혜광은 달마 조사가 얼마나 힘들게 먼 길을 찾아왔는지를 알 것 같았다. 혜광은 가슴이 뭉클했다. 곧 합장하며 말했다.

"조사께서 저희 절에 왕림하여 주시니 영광입니다. 정말로 법연(法緣)과 불과(佛果)가 있는 것 같아 감개무량합니다. 진심으로 청하오니 안으로 드셔서 천천히 말씀을 하시지요."

달마는 사양하지 않았다. 주지가 안내하는 대로 성큼성큼 발길을 옮겼다. 주지의 처소에 이르는 길에도 많은 승려들이 줄을 서서 환영 인사를 했다. 달마는 일일이 합장으로 답례했다.

주지 혜광은 온 정성을 기울여 달마 조사를 모셨다. 가장 좋은 차를 올리고 잠시 쉬시도록 했다. 주위는 조용했고 방 안에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달마와 혜광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화제는 불법(佛法)과 선기(禪機)로 이어졌다.

혜광이 물었다.

"조사께 여쭙겠습니다. 불법에서는 무엇을 최고로 치는지요?"

달마는 질문을 받고 마음 속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질문은 구태여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혜광이 어떤 속셈을 숨기고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달마는 속셈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제대로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선법(禪法)을 선양할 때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교화하는 불법이 으뜸이지요. 모든 지파(支派)를 빠짐없이 계도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승불법보다 수승한 것은 없소이다."

혜광은 깜짝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소승불법을 최고로 믿고 있는 그에게 대승불법의 우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혜광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천축의 조사가 대승일파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혜광은 감정을 억제하고 달마에게 물었다.

"여쭙겠습니다. 조사께서는 대승불법이 제일 높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아셨습니까?"

달마는 빙그레 웃었다.

"도(道)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요약하면 '이(理)'와 '행(行)'일 뿐이오."

"무엇을 '이'라 하고 무엇을 '행'이라고 합니까?"

"내 설명해 드리리다. '이'라는 것은 이입(理入)을 말하는 것이고 '행'이라는 것은 행입(行入)을 말하는 것이오. 그것은 이론으로서의 경전 공부와 실천으로서의 수행,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외다."

혜광은 달마가 말하는 '이입'과 '행입'이 실제로 대승불교의 선학(禪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선학이 팔불(八不), 즉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不生亦不滅), 한결 같은 것도 아니며 또한 서로 다른 것도 아니다(不一亦不異), 오는 것도 아니요 또한 가는 것도 아니다(不來亦不去)라는 여덟 가지의 '아니다'로 시작해서 세상의 일체만물은 모두 인연의 가상(假相)일 뿐 공(空)이라는 이른바 일체개공(一切皆空)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대승선법은 소림사에서 탐구하는 발타 대사의 소승선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당시의 불가에서 대승과 소승은 숯과 얼음, 또는 물과 불처럼 서로 어그러지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혜광의 얼굴색 변했다

혜광은 한동안 말을 잊었다. 여러 생각으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만약 승조를 비롯한 절 안의 승려들이 달마가 대승일파인 것을 안다면 절대로 절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마를 받아들인 자신의 위상(位相)조차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천축의 조사라고 할지라도 먼저 쫓아내어 후환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심을 굳힌 혜광은 단도직입으로 말했다.

"조사께서는 빈승의 직언을 용서하십시오. 방금 선양하신 대승교파의 선견(禪見)은 저희 절의 소승교파의 그것과 서로 편안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하옵건데 다른 곳으로 찾아가서 의지하시지요."

달마는 혜광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우뚝 솟은 이 곳이 법연의 땅임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달마의 충격은 너무나 컸다. 그의 충격은 금새 분노로 변했다. 그러나 이처럼 번창하고 있는 소림사가 여전히 소승과 자리(自利)에 안주하여 이타(利他)로 나아가 중생을 널리 제도하지 못하는 현실이 못내 안타까웠다. 달마는 갑자기 첩첩 산중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혜광의 얼굴만 물끄러미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주) 파고다
대표 : 윤해성
임직원 일동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 전화 : 062)961-0404

상표등록
미 수 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 하옵기를 기원합니다.
- 미수타 가족 일동 합장 -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마산,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경주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주)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국제전화 00753
이제부터 국제전화 거실 때는 00753 만 누르세요!
한국 → 미국 : 180원/분
미국 → 한국 : 220원/분
안전하고 편리한 후불제 국제전화! 전세계 280여개 지역 서비스중
미국 로밍 개통! -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시고
요금은 저렴하게 한국에서 후불로 내시면 됩니다

미 국	180원	유 럽	380원
캐 나 다	380원	러 시 아	690-770원
일 본	290원	호 주	420원
중 국	760원	뉴질랜드	420원

■ 가입비, 연회비, 기본료가 없습니다. 할인시간대 통화시 30% 할인
■ 이용문의 : 도시폰 고객센타 TEL : 00753 또는 (02) 511-6333
(주) 도화텔레콤 Dohwa Telecom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8 영빌딩
http://www.dosiphone.net//
E-mail : helpdesk@dositel.com

수선화에 관한 몇가지 기억



화제의 신간

땅거미가 지는 시간, 건초를 모아 모깃불을 피웠다.
어둑어둑한 하늘 아래 아련한 고향같은 연기 내음이 퍼졌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도 전깃불을 켜지 않고 마루에서 혹은건너편에 흩어져 있는 주춧돌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건초 위에 얹어 놓은 젖은 풀 사이로 퍼지는 연기와 그 알 빨갛게 달구어진 불빛만 보인다.

- 본문 중에서 -

지장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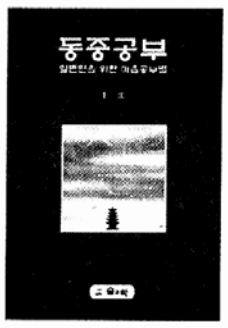
내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거나 혹시 집안에 원한을 품고 죽은 영가가 있으면 하루빨리 원한을 풀고 죄를 참회해야 업장이 녹습니다. 영가의 장애로 병명도 없이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될 때는 영가의 장애가 걸려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관세음기도법



진실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기도가 성취 될 것이고, 거짓으로 기도한 사람이면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삼매에 빠지는데 삼매가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삼매에 빠지는데 삼매가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경계가 바로 죽을 고비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동중공부



서두르지 안고 느긋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수숭한 사람은 한 달이면 족합니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석 달이면 충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습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하는 행동을 그때마다 관찰한다면 최소한의 행위로 줄어들 것입니다.

불가인생론



공명을 구하면 공명을 얻고, 부귀를 구하면 부귀를 얻으며 아들이나 딸을 구하면 아들이나 딸을 얻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는다. 이제 부처가 되어 삼계에 독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마음의 뜻이다.

아미타불수행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 등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삼계의 차원을 넘어선 영원히 안락한 복지(福地)로서 시간 공간과 인과율을 초월한 경계이며, 우리 중생이 필경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수행으로 업장이 소멸 될 때 우리 스스로 보고 느끼고(感見)누리는(受用) 상주불변(常住不變)한 법락(法樂)의 경계입니다

환생을 위한 기도



"태어난 인간은 늙지 않을 수 없고, 늙고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은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전은 말씀하신다.

〈현장스님 글 중에서〉

행복한 전쟁



나의 모든 육신과 영혼으로 하여금 당신과 하나됨을 위해 사랑과 믿음을 불사른다면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삶의 어두운 적막감을 사정없이 부숴버리고 희망의 언덕을 향해 돌진한다. 지치다 쓰러져도 일어서고, 일어서며 마음과 영혼은 극락을 향해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극락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시를 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도를 위해서...

도서출판 솔과학 서울시 관악구 봉천 4동 869-10 센츄리오피스텔 1110호 · 전화 : 02)876-4655 · 팩스 : 02)876-4656 · 핸드폰 : 011)9075-9787

진성 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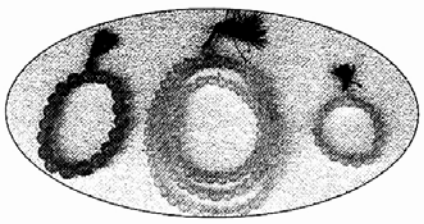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청 옥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살아있는 곡류성분 → 30가지 / 生-선식

'생' - 선식 하나로

뚱뚱	대변	살갗	체질	피로	기운	면역	혈액순환	세포
쏙쏙	시원	생생	싹싹	회복	쑥쑥	상승	원활	재생

多 - 건강

- 물없이 먹는 최열량 자연식 휴대용 식사.
- 병전, 병후, 자연 면역력 최고 상승.
- 사람은 살아있는 자연 음식을 먹자.

회원모집

특별회원 → 스님에 한함
일반회원 → 불자님에 한함

특허상표 출원 2000-40253
특허상호 출원 2000-21890
화천군 제 1-17호


혜민스님

원래의 의미로 선식이란 생야채나 생곡식을 채취하는 현장에서 즉석 먹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선식을 하는 이유는 화식에 비하여 각종 영양성분이 살아 있어 사람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되고, 각종 노폐물이 제거되어 건강이 회복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쁜 생활에서 선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간편하면서도 편안하게 선식의 효과를 보아야 하는데 상기원에서는 먹는 방법의 개선으로 선식의 효과를 쉽고 간편하게 접할수 있도록 선식을 환으로 만들어서 먹기가 정말 좋습니다.

불교방송(BBS) "길을 찾아서"
2001년 1월 7일 오후 7時 방송

상담 문의 02-723-4463 723-4464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생명 - 건강 이상 건강

上氣元
상 기 원

※ 수익금의 일부는 대한불교 무량회에서 운영하는 무의탁 노인돕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쓰여집니다.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 가 ·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회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합장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증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엄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 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

자금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괴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렝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1965년 6월 30일 한글 대장경 제1집 <장아함경>을 펴낸 이후 장장 37년 간 계속 되어 온 한글대장경 역경불사.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 318권의 완간을 기념하고 향후 전산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알리기 위해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회향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이 역경불사에는 300여 명의 스님과 불교학자 문인 등이 동참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글대장경은 한역 원본을 우리 글로 번역하고 번역 원고에 대해 증의 해석을 한 후 윤문과 교정을 거쳐 발간되어 왔다. 때문에 1차적으로 원문 번역을 하는 역경사의 역할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인력난을 겪어야 했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런 가운데 개인적인 원력으로 역경사업에 일생을 걸었던 운허(耘虛)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교학자 등 '역경보살(譯經菩薩)'들의 활약으로 한글대장경 불사가 오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또한 역경불사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동국역경원을 지켜 온 '외호보살(外護菩薩)'들도 적지 않았다. 한글대장경 불사에 크게 기여한 주역들을 선별해 소개한다.

법음 우리글로 다듬은 '아난의 화신'


◇운허스님


◇월운스님


◇법정스님


◇운제스님


◇명성스님


◇이원섭씨

한글대장경 주역들

운허·월운·법정스님 탁월한 번역 명성

이종익·김달진등 재가자도 맹활약

한글대장경 불사의 제1 주역은 누가 뭐래도 운허 스님이다. 스님은 초대 역경원장을 역임했다. 스님은 역경원을 행정적인 기관으로서 외호하기도 했지만 고려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필생을 걸었다. 운허 스님이 번역한 경전은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등으로 분량도 상당하지만 내용적인 충실도(充實度)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스님은 역경에 매진하기 위해 당시 역장이 개설됐던 용주사 주지직을 고사하고 자신이 설립한 광동학원 이사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운허 스님의 제자 월운 스님은 1993년에 제4대 역경원장으로 취임했지만 그 이전부터 한글대장경 불사에 전력해 왔었다. 〈선문염송〉 〈대반열반경〉 〈전등록〉 〈조당집〉 등 중요한 선적들을 우리 글로 옮긴 월운 스님은 끊어졌던 정부의 국고 지원을 다시 받는 한편 역경원의 행정체계를 일신해 한글대장경의 보급에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초창기에 역경부장을 지낸 법정스님은 탁월한 문장력과 해박한 경전 지식으로 〈정토삼부경〉을 번역했다. 〈비유와 인연설화〉도 법정스님의 높은 경지에서 이뤄진 보배로 평가되고 있다.

〈존바순밀보살소집경〉등을 번역한 각성스님과 〈마하승기율〉을 번역한 운제스님, 〈아비담순정이론〉을 번역한 명성스님 등도 한글대장경 불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역경보살들이다.

재가자로는 이종익씨와 이원섭, 송성수, 김달진, 이창섭, 이진영, 서경수씨 등이 대표적인 역경공로자로 꼽힌다. 이종익 박사의 경우 아함부의 경전들을 번역했으며 이원섭씨는 〈진각국사집〉을 비롯한 한국찬술의 문집들을 주로 번역했다. 운허스님으로부터 상좌의 총애를 받았던 김달진 박사도 〈보조국사집〉 등의 한국찬술들을 번역했으며 한학자로 이름 높았던 이창섭씨는 고승전들을 번역했다.

번역원고에 대한 의미 해석을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증의분과에서는 초창기부터 탄허스님과 자운, 관응스님 등이 활약했으며 이후 불교학계의 원로들이 작업을 맡았다. 원고를 최종적으로 다듬어 내는 윤문분과에서 공로를 쌓은 문인으로는 조지훈, 서정주, 이은상, 조연현씨 등이 초창기부터 활동했다.

90년대 들어 원로학자들의 뒤를 이은 대표적인 역경보살로는 권오민, 김호성, 장순용, 오진탁, 박인성 교수 등이 꼽힌다.

임연태 뉴미디어부장


◇동국 역경원이 37년간에 걸쳐 한글대장경을 완성해 9월5일 대규모 회향법회를 갖는다. 사진은 역경원 편집실의 작업모습.

현장스님 1335권 번역 구마라집과 '2大譯聖'

■대표적인 중국 역경가

역경은 불교전래는 물론 불교사상과 교리의 이해를 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불교사 1900년에 있어 앞의 900년을 경전의 번역과 교학의 연구 즉, 전역(傳譯)의 시대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번역에 대한 의지와 대장경 조판불사는 우리나라의 대장경 조판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중국 최초의 역경가는 안세고(安世高)다. 안식국의 태자로 아비담학을 탐구한 안세고는 건화 2년(147) 낙양에 도착해 20여 년간 오직 경전의 번역과 출간에만 매진한다. 이로써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경전의 한역화 역사가 시작된다. 〈사제경〉 〈전법륜경〉 〈팔정도경〉등은 대장경 속에 현존하는 그의 대표적인 역경이다. 안세고 보다 약간 늦게 중국으로 온 월지국인(月支人) 지루가참도 12년 동안 〈도행반야경〉 〈반주삼매경〉 등 중요한 경전들을 번역했다.

서진 시대의 축법호(竺法護) 역시 월지인인데 무제 때부터 회제 때에 이르는 40여 년을 역경에 몰두했다. 축법호는 〈미륵하생경〉 〈정법화경〉 등 상당히 많은 경전을 번역했다.

중국 불교의 4대 역경가로는 구마라집(鳩摩羅什)과 진제(眞諦), 현장(玄藏), 불공(不空) 등의 삼장법사들이 손꼽힌다.

구마라집은 7세에 출가하여 서역제국을 순력하며 불교를 연구했다고 전한다. 그는 왕으로부터 역장(譯場)을 하사 받아 역경에 종사했으며 74부 384권의 경전을 번역했다. 〈금강반야경〉 〈대품반야경〉 등 중요한 경전들이 그에 의해 번역 됐으며 대승의 주요 논서들도 번역해 삼론종과 성실종이 흥기(興起)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남북조시대의 진제는 〈섭대승론〉 〈대승기신론〉 등 49부 142권의 경론을 번역했다. 당대의 고승 현장은 무려 75부 1335권의 경론을 번역해 구마라집과 '2대역성(二大譯聖)'으로 불린다. 역시 당대의 불공은 〈금강정경〉등을 번역했다.

중국불교에는 이 밖에도 수백명의 역경가들이 일생을 바쳐 역경과 교학연구 후학양성에 매진하여 찬란한 그들의 불교사를 만들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석주·석정스님·전용원 의원 '화주'

■역경불사 후원한 외호보살들


◇석주스님


◇석정스님


◇전용원씨

동국역경원의 역경불사를 돕는 외호보살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창립된 역경후원회는 회장 석주 스님을 중심으로 1구좌 1천원씩의 역경기금 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회원들이 매월 한 차례씩 동국대 대각전에서 갖는 삼장법회도 회장 전용원의원(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역경의 외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역경후원회 회장 석주스님은 이미 역경원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역경사업에 몸을 바쳐 온 역경보살이다. 스님은 은사인 적음(寂音) 스님이 해방이후 줄곧 역경사업에 몸바쳐 온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 1961년 5월 개인적인 원력으로 역경기관인 '법보원(法寶院)'을 창립했었다. 스님은 법보원을 통해 〈불교사전(운허편찬)〉을 발행하고 〈유마힐경〉 〈승만경〉 〈열반경〉 등 10여종의 경전을 주로 운허스님의 번역으로 간행했다. 이후 동국역경원이 설립되자 "한 종단에 두 개의 역경기관이 있을 필요는 없다"며 법보원의 모든 판본들을 동국역경원에 회사했었다. 이처럼 역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석주스님은 1995년 노납(老衲)을 마다하지 않고 후원회장을 맡아 전국을 무대로 역경불사의 화주보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역경원의 초대 유통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불모 석정스님도 틈틈이 역경불사를 지원해 왔다. 불모로서 부처님 일에 회향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국역경원이 재정난에 봉착할 때마다 적지 않은 재원을 후원했던 것. 또 제 2대 역경원장을 역임한 영암스님과 제3대 원장을 역임한 자운스님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외호보살로 손 꼽힌다.

현재 삼장법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용원 의원은 선대(先代)부터 봉선사의 독실한 신도다. 삼장법회의 회원들을 관리하여 역경 후원과 내실 있는 신행단체의 위상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있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0m×450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2201-3333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본사
曹 溪 寺
주 지 지 홍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02) 732-2183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회주 무산 오현
주지 이법장외 대중일동
재단법인 신흥사 성준 장학재단
신흥사 불교 교양대학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
· 반야 무료 요양원
· 구로 종합사회복지관
·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 반야 어린이집
· 연꽃 어린이 집
· 장사 룸비니 어린이집
· 아나율 어린이집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 033) 636-7044
팩스 : 033) 636-7556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 정 사
회 주 김인허
주 지 김현해
대 중 일 동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전화 : 033) 332-6661~5
팩스 : 033) 332-691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 화 사
조 실 진제
주 지 성덕
총 무 지우 기 획 혜승
교 무 응각 재 무 혜안
사 회 성묵 포 교 종본
호 법 혜선
금당선원 승가대학
선원장 영진 강주 해월
外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전화 : 053) 982-0101
팩스 : 053) 985-4404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 해 사
회 주 중화 법타
주 지 포현 법의
부 주 지 포봉 돈명
총 무 향공 기 획 돈관
교 무 하종 재 무 부용
사 회 돈무 포 교 우화
호 법 동승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전화 : 054) 335-3318
팩스 : 054) 335-0293
승가대학원
원 장 중산 혜남
전화 : 054) 336-2381
팩스 : 054) 336-2382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 인 사
주 지 세민
해인총림 대중일동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전화 : 055) 931-1001~3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방 장 노천 월하 대종사
주 지 신허 대화상
총림 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자산리 583번지
전화 : 055)382-7182
팩스 : 055)382-7296

대한불교 조계종
화 계 사
조 실 숭산 행원
주 지 성광
사 부 대 중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 02) 902-2663

봉사하는 불교
실 상 선 원
무료복지관이 있는 불교
천 축 사
주 지 성환
사 부 대 중
신 도 일 동
■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전화 : 02) 745-8503
011) 286-2680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천축사
전화 : 041)734-2680

내설악산
백 담 사
주 지 일 문
대 중 일 동
산내암자
봉정암 감원 근행
오세암 감원 일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번지
전화 : 033) 462-6969
팩스 : 033) 462-3224

금 강 사
(소금강산)
대 중 일 동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 2리 1-10번지
전화 : 033) 661-4271

대한불교 조계종
신 륵 사
주 지 세영 스님
대 중 일 동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전화 : 031) 885-2505

대한불교 조계종
적 멸 보 궁
사자산 법흥사
주 지 도완
신 도 일 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422-1
전화 : 033) 374-9177
팩스 : 033) 374-9178

대한불교 조계종
낙 산 사
주 지 지홍
대 중 일 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전화 : 033) 672-2448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장 김우룡
대 중 일 동
■ 대구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 053) 767-3100
팩스 : 053) 765-1600

봉축동화

나는 어른들이 밉다

윤 제 학 (취재2부 부장 · 동화작가)



아직 조그만 애가 어른들을 미워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직은 좋은지 싫은지 알쏭달쏭한 선생님도 어른인 걸요. 그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엄마 아빠나 선생님 때문에 미운 어른을 좋아해야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치사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미워하는 어른들 중에서 엄마 아빠와 선생님은 빼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른들이 미웠던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나는 어른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동네에서 인사성 바르기로 소문난 아이였는 걸요. 어떤 때는 아는 어른이 나보다 저만큼 앞서 가면 뛰어가서라도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어른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 후회가 됩니다.

아는 어른을 보고도 못본척 한다는 것 쉬운일 아니지요

입학식 며칠 뒤 나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다른 애들보다 1살이 작아서 그렇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나이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7살에 학교에 들어온 아이가 나 말고도 있는데다 여자 아이들 중에도 나보다 작은 애는 없었습니다.

내 키가 작은 이유를 곰곰이 따져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별로 크진 않지만 엄마는 친구 엄마들 중에서 큰 편이거든요. 심한 병을 앓거나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간신히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너무 잘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죄다 내가 인사를 하면 몇번이고 머리를 쓰다듬곤 하셨는데, 그게 내 키를 작게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줄어든 키는 한 뼘도 더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때부터 나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자 이번에는 또 걱정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아는 어른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땅만 보며 걷는 거야.'

기분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짝거리는 생각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도 그 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갈 때부터 나는 땅만 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은 100걸음 아니 50걸음도 못가서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현빈이 학교 가는구나. 아저씨하고 같이 갈까."

'아뿔싸, 뒤에서 오는 어른은 생각을 못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 녕 하 세 요."

"그런데 오늘은 왠 일로 현빈이 목소리에 힘이 없을까? 늦잠 자다가 엄마한테 혼난 모양이구나. 고녀석 머리는 언제 봐도 알밤 같단 말이야."

역시 걱정한 대로 아저씨는 몇번이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른들을 피하느라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동네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롤러스케이트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을 보고 인사를 안 했다해서 꾸지람 들을 일도 없고 뒤에서 다가오는 어른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신나게 놀이터로 달려 나갈 때였습니다. 다행히 길가에는 아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 모퉁이 떡집 아저씨도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놀이터까지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롤러 스케이트는 여느 때보다 더 잘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갑자가 내 몸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내 몸이 떡집 아저씨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 따라 차돌이가 왜 이리 바쁘실까? 아저씨한테 인사도 않고."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으으으, 왜 세상에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어른들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벌명도 마음대로 짓습니다. 알밤, 차돌이, 도토리…, 하나같이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별명들인데.

"현빈아, 목욕탕 가게 어서 준비해라."

"또요."

"또라니, 3주나 됐는데."

"아빠도 안 계시는데."

"엄마랑 같이 가면 되지."

"에이, 싫어요. 이제는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여탕엘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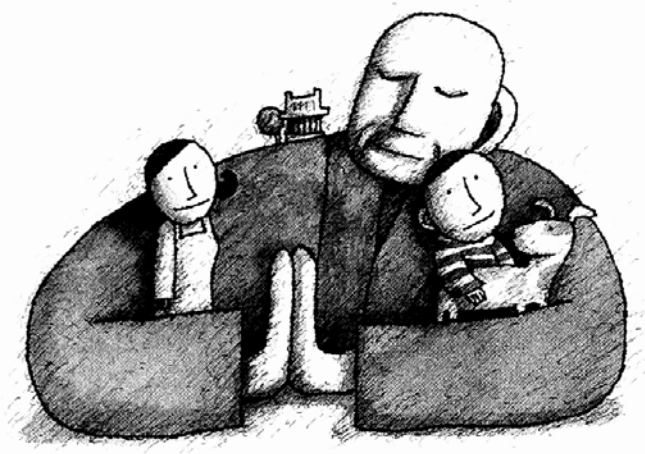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할게"
애한테 사과하는 어른도 있다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너 친구 중에는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애도 있잖니."

"그래도 싫어요. 저 혼자 갈래요."

"혼자서? 그럼 등은 어떻게 밀고."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는 학생이잖아요."

"어쭈, 언제부터 그렇게 의젓해졌지? 좋아, 그럼 혼자 가 봐. 그런데 쉽지 않을 걸."

엄마는 여탕으로, 나는 남탕으로. 나는 될수록 의젓해 보이려고 아랫배를 잔뜩 부풀리고 가슴을 쫙 폈습니다. 조금이라도 키가 커 보이라고 발뒷꿈치도 살짝 들었습니다.

얼굴, 배, 팔다리를 다 씻을 때까지 나 같은 어린애는 물론 동네 형들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보니 형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이가 많아 보였고 그렇다고 아저씨라고 부르기에는 보통 어른과도 달라 보였습니다. '어떻게 불러야지' 하고 조금 망설이다가는 그냥 다짜고짜 때밀이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저, 등 밀어 드릴게요. 그 대신 제 등도 밀어 주세요"

"응? 뭐라고?"

"등 밀어 드린다니까요."

"그래 그 소리는 나도 똑똑히 들었다. 그런데 너 혼자 왔니? 아직은…"

"제가 너무 어린애라서 싫으세요? 서로 밀어 주면 좋잖아요. 넓이로 따지면 제가 손핸데."

"그건 그렇지. 그럼 누가 먼저 밀어 줄까."

"당연히 제가 먼저 밀어 드려야죠."

"왜?"

"제가 먼저 부탁 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둘은 서로 등을 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 시원하다. 너, 보기보다 팔 힘도 참 세구나. 아직 애기 같은데."

"예? 애기 같다고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전 학생이예요. 초 · 등 · 학 · 생."

"그래 그래. 내가 깜빡 실수를 했구나. 기분나빴다면 내가 사과할게."

'아니, 이럴 수가. 애한테 사과하는 어른도 있다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내비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나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 등을 밀어 준 사람이 스님이지 뭡니까. 나는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한 동안 스님과 눈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내 속을 들여다 보기라도 하셨는지 슬며시 다가와서는

"자, 우리 이제 나가 볼까?"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스님과 나는 함께 목욕탕을 나섰습니다. 일요일 한낮 봄볕이 쨍쨍했습니다. 파란 옷으로 갈아입은 도봉산도 기분이 좋아보였습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 스님, 조금 전에 죄송했어요. 스님이신 줄 몰랐거든요."

"죄송하긴 뭘. 덕분에 아주 기분이 상쾌한 걸. 얘,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네, 좋아요. 저도 오백원 있어요."

"그건 너 혼자 있을 때 사 먹고 이번에는 스님이 사 줄게. 스님 등 넓이가 두 배는 됐을 테니까 당연히 내가 사야지."

스님과 나는 도봉산으로 오르는 길목 옆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동네 사니?"

"네, 개울가 옆에요."

"잘 됐네. 나도 도봉산에 사는데. 그럼 우리 오늘부터 친구할까?"

"정말요? 어디 사시는데요."

"저기 도봉산 중턱에 있는 천축사."

이렇게 해서 스님과 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스님께 이름을 말해 드렸습니다. 스님도 '운공'이라는 법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내 얘기를 들은 엄마는 되게 부러운 눈치였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자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놀고 올게요."

"그래, 너무 늦지 말고."

집을 나오자마자 놀이터로 가려는데 웬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런 진돗개였습니다. 뗏국물이 흐르는 걸로 봐서는 집을 잃은 개가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배도 등가죽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목덜미를 쓰다듬자 두 무릎까지 꿇고 내 품에 안겨 옵니다. 나는 개가 지저분한 것도 잊고 꼬옥 안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선 스님 덕분에 아낀 오백원으로 빵을 사서 누렁이에게 먹였습니다. 순식간에 빵 하나를 골꺽 하고도 계속 내 손을 핥습니다.

날이 저물어 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도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는 가야 하는데 도무지 누렁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누렁이가 싫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거든요.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운공 스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누렁이와 함께 도봉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천축사 입구에 도착했지만 돌계단을 오를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를

절마당에 연등만 봄바람에 흔들릴 뿐 인기척이 없습니다

악 물어야 했습니다. 절 마당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미리 밝혀 둔 연등만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을 뿐 인기척이라곤 없습니다. 나는 우선 한숨을 들리고 나서 스님을 뵙기로 하고 법당의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으르릉'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빡 잠이 든 모양입니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렁이가 두 다리를 딱 벌리고 발자국 소리 나는 쪽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나는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누렁이의 목덜미를 껴앉았습니다. 누렁이는 걱정하지 말하는 듯이 꼬리를 힘차게 흔들어 내 등을 토닥입니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마—', '현빈아 —' 하고 부르며 와락 껴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누렁이도 마음이 놓이는 지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절 마당을 어슬렁거립니다.

어느 틈엔가 운공 스님도 나오셔서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친했던 사이 같습니다.

운공 스님께서는 혼잣말처럼 누렁이의 귀에다 대고 무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봄바람은 그 얘기를 내게도 살짝 전해 줍니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올해는 하루 일찍 오신 모양이네."

21세기 인류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통사찰음식의 진수를 배운다

전통사찰음식 제 4기생 모집

현대인들의 모든 병은 잘못된 섭생에서 비롯됩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음식만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1세기 인류의 건강식은 한국전통사찰음식 속에 있습니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는 1천5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음식을 30여년 동안 각고의 연구 노력으로 1천여가지의 사찰음식을 설정하였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생각되었던 사찰음식을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일률적이고 자연적인 음식 만드는 법을 직접 강습과 이론으로 전수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사찰음식이 현대인의 최고 건강식으로 재인식되면서 새천년 음식문화의 기틀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한국사찰음식연구소에 오셔서 기(氣), 예(藝), 신심(信心)이 깃들어 우리의 몸과 정신을 맑게 해주는 전통사찰음식의 진수를 만나기 바랍니다.

다 음

- 개강일 : 2001년 5월 22일 화요일
- 수강인원 : 00명 과정 : 6개월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수강료 : 재료비 포함 월 15만원
- 문의 : 서울 불광산사
- 교통편 : 버스 : 17, 28-1, 63-1, 154 장충운동장 하차
- 지하철 : 3호선 동대입구역하차 2번출구 태극당 옆

☎ 02-747-8734
HP : 018-236-8734 팩스 : 02-3672-9097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
소장 이여영

레이키(Reiki 靈 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과 빛의 신령한 기운. 영묘한 기운」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목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 (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숲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전화 : 031) 682-5033 FAX : 031) 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 // myhome.netsgo.com/baeghj/

합창 단원 모집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의 노래속에서
불심을 나눌 분들을 기다립니다.
창단이후 10년동안 지역사회 자체 행사 및
위문공연 등으로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펴오고
있는 한마음선원 합창단원이 되시어 우주법계를
울리는 음성공양의 무한한 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합창단 연혁 ◇
- 1990년 창단
- 부산시민대법회 1,2,3회 출연
- 한국불교범종단협의회 공로패 수상
- 불교연합 찬불가경연대회 1등 수상
- KBS홀 소년소녀 가장 돕기 기념공연 출연
- SBS부산방송국, 불교방송국 개국 기념공연
- 태국, 미얀마 현지 촬영 한마음선원 선법가 독집 불교 TV와 공동제작
- 부산합창제 10.12.13.14회 출연
- 한마음선원 뉴욕 지원, 독일지원 대법회 출연
- 세계불교도대회 맑고 향기롭게 부산법회 출연

모집대상
30세 이상 ~ 50세 미만의 여성

한마음선원어머니합창단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 522-1
연 락 처 : 051) 403-7077 ,
홈페이지 : www.hanmaum.org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

종 정 영담 대종사
총무원장 정 암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 061)433-2233 / FAX 061)433-3233

◘ 종립 국제 불교대학 ◘

학 장 조희일

■ 교학처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 2동 484-4(능일회 내)
☎ 062)224-1080

대한불교본원종

종 정 : 권태허
원 로 원 원로원장 강무구
중앙종회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김대연 종회부의장 박대성
총무원장 이대화 재무부장 이대봉
감찰원장 박보명 교무부장 정대련
교육원장 김동광 규정부장 강만공
문화원장 장대범 교육부장 이운공
포교원장 김용담 조직부장 이관곤
총무부장 김만혁 계획부장 김일광
사서실장 손무공 포교부장 윤대허
사회부장 최철송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 02-391-4376 / FAX : 02) 391-4376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종정권한대행
정 희 수 (유봉)
대본산 약 사 사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정 희 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3동 산21
TEL : 032)422-2066~7 / FAX : 032)422-04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301호 (서울사무소)
TEL : 02)730-0798~9 / FAX : 02)722-3205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 선원 중부경남지원 (구 마산지원)

지원장 혜 보

대 중 일 동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5)342-6630 / 6639
055)345-9900
FAX : 055)343-2179

목포 불교 사암 연합회

관음사, 길성사,
달성사, 반야사,
법주사, 봉운사,
선덕사, 심원사,
약사사, 정혜원,
학암사, 한마음선원,
한성사. (가나다순)

대 중 일 동

(봉) 부처님오신 날 (봉)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한국불교 포교사 · 법사회
금강복지재단 기로( )의 집 한국불교예술대학

총재 안 덕 암
이사장 한정섭 부이사장 강청작
이 사 전용만 김정수 우보문 이무선
허기림 최유수 금강심
감 사 권용득 김차예 임직원일동

◆ 계간 세계불교사 ◆
사 장 정을수
편집인 한수갑

◆ 월간 금강법보 ◆
발행인 한정섭
편집인 강신욱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장 : 한정섭 대학원장 : 김정수

한국불교금강선원 포교사 · 법사회

포교사회장 천도행 포교사회부회장 보문
법사회장 강혜원 법사회부회장 최 청심행 외 회원 일동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1동 54-6
TEL : 02-969-2410 , 962-1666 FAX : 02-969-4981

불광불교미술원

원장 박 갑 용

경기도 가평군 하천 1리 418-2
☎ 031)584-3951

불원 미술원

원장 김 진 구

서울 강동구 성내 2동 136-6
☎ 02)477-9178

선불화공방

탱화 / 벽화 / 개칠

내 마음자리가
정토를 볼때
손끝의 붓은
그곳을 그렸습니다



참나 박 경 귀 합장

110-220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61-1
작업실 733-0730
011-226-0730
자 택 733-0731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만 불자님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두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봉 은 사**

조 실 석 주
주 지 원 혜
신도회장 무구 전봉수

사부대중 일동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가족과 함께 하는 도량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우135-090)
TEL : 종무소 02)511-6070~4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회 주 혜 성
주 지 광 복

대 중 일 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 FAX : 02)993-3164

"새천년 한국 전통선의 부흥과 대중화를 위한 길라잡이로 거듭나겠습니다"

재단법인 **선 학 원**

이 사 장 정 일
상무이사 선 근

이사 혜운 도형 도의 범추 성열 정관 법진
동진 상월 자민 성우 정덕 상원
감사 대허 법운

·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 재단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우 110-240)
TEL : 02)734-9654~6 / FAX 02)734-3410

서울 恩平區佛教寺岩聯合會

회 장 삼천사 주지 서성운
부회장 수국사 회주 한자용, 시연사 주지 김혜진, 관음사 주지 이법성, 송천사 주지 김혜장
총 무 불광한의원 원장 도광, 보문사 주지 덕호, 경선
은평경찰서 경승실장 서성운, 서부경찰서 경승실장 이법성
서울구치소 종교교화 불교위원회 회장 서성운, 부회장 노병섭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 Tel) 359-7766 / Fax) 358-2286 E-mail) seobj21@netsgo.com

三千寺 社會福祉法人 仁德園
理事長 坪山 徐聖雲

仁德老人福祉會館

○ 노인복지사업
- 인덕재가노인복지센터 - 노인치매단기요양원
- 노인치매 중풍장기요양원 : 호암마을
○ 보육사업
- 인덕 어린이집 - 개나리 어린이집
- 불광 어린이집 - 수색 어린이집
○ 청소년복지사업 - 응암청소년 독서실
○ 지역복지사업 - 노숙자쉼터 희망의 집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488 Tel) 385-8205 / Fax) 385-8207 E-mail) indukwon@netsgo.com

市立恩平老人綜合福祉館

○ 종합상담사업 ○ 임상심리치료센터
○ 의료재활사업 ○ 재가노인복지사업
○ 노인사회교육사업 ○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사업
○ 복리후생사업 ○ 고령자취업알선사업
○ 아동복지사업 ○ 경로당활성화사업
○ 은평장례서비스센터
○ 저소득거동 불편노인 도시락배달사업
○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 자활후견사업 - 해뜨는집 간병인 공동체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203-1 Tel) 385-1351 / Fax) 385-8724 E-mail) eunpyong@netsgo.com

한국불교태고종
전통사찰 95호 갈마산
동 도 사

주 지 혜성 도원
송탄포교원 보현암 교임 보현심
신도회장 정법성화
총 무 관음성

신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산 99-2
전화 : 031) 333-7747/7717
팩스 : 031) 339-7743

천보공업사

임직원 일동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89-3
전화 : 051) 315-2859

하나되는 불자가 됩시다

조계종의 종헌 112조와 신도법 33조에서는 모든 사찰은 신도회를 두고 지역 신도회를 구성,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역에 소재한 종단등록 사찰은 130여 곳입니다만 지난 3월의 서울지역 신도임원교육에 참여한 사찰은 20곳에 불과하였습니다. 불기254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지역의 사찰신도회와 신행단체가 모두 서울광역지역신도회로 한데 힘을 모아 한국불교의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래 사찰은 올해 신도임원 교육에 참가한 사찰입니다.

- 불기 2545년 서울지역 지도자 연수 참여 사찰 -
조계사, 봉은사, 진관사, 보현사, 영화사, 미타사(보문동), 수국사, 청량사, 청룡사, 팔정사, 옥천암, 원통사, 호압사, 호국지장사, 천축사, 승가사, 봉국사, 광불사, 소림사, 성덕사

대한불교조계종 서울광역지역신도회
회장 정인악

■ 전화 : 02)736-7785
팩스 : 02)736-7787

열경의료재단
허병원 · 허한방병원

이사장 허준영
원 장 도인아

■ 의료진안내

내과 허준영	내과 윤석주
가정의학과 도인아	정형외과 이경환
신경외과 이동우	신경정신과 김동원
신경정신과 김대혁	신경정신과 장봉철
방사선과 권삼옥	마취과 김은미
한방원장 김동선	한방내과 김판준
한방침구과 임성철	한의사 이성훈
한의사 박건용	한의사 이주일

■ 대구시 달서구 본동 1144번지 우 704-350
전화 : 053) 655-0300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사) 대한불교 청년회 전북지구

총 재 도영 스님
지도법사 각진 스님
지구회장 정인택(혜산)

지구회원 일동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에 목탁소리

스님 모신 '승당' 섬주민 안식처

목포에서 뱃길로 162㎞.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우뚝 선 한반도 최서남단 가거도(소흑산도). 시인 조태일이 '너무 멀고 험해서 오히려 바다 같지 않은 거기,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모르던 섬'이라고 표현했던 최서남단 낙도에 불교의 꽃이 피고 있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스님을 마을 수호신처럼 모신 승당을 갖고 있는 가거도. 그래서 딱히 불교교리를 정식으로 배운적은 없었지만 승당의 영향 아래 살았던 탓에 '태어날 때부터 불자였다'는 자부심을 간직해 온 주민들. 지난 1910년대 들어온 기독교 영향으로 승당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던 불자주민들은 지난 90년 다시 살아난 불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애정이 눈물겹도록 지극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열흘 앞둔 4월



◇한반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불교가 다시 살아날수 있었던 것은 용궁사가 창건되면서 부터다. 사진은 박성금 보살과 신도들이 독경하는 장면.

22년전 용궁사 창건

초파일엔 마을 큰잔치

20일, 가거도 대리마을 선녀봉 자락에 위치한 용궁사에서 박성금(75) 주지보살이 김윤순(74) 최상덕(66) 이춘단(60) 임향단(51) 박부자(50) 김월자(48) 총무보살들과 연등을 만들며 등놀이 및 마을잔치 준비 얘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보살들은 지난달부터 시작한 연등 200여개를 부처님오신날까지 완성해야 한다며 익숙한 손놀림을 계속했다.

다음날인 21일, 아침부터 용궁사에 신도들이 트럭을 타고 왔다. 박성금 보살과 김명후(전남도 무형문화재 22호 멸치잡이노래 보유자) 선생 그리고 4명의 보살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마을 뒷산 삿갓재 후박나무숲에 2평 남짓한 승당을 참배하러 왔다.

가거도에 전해오는 얘기로는 수백년 전 한 스님이 가거도에 표류하자 이 터에 절을 짓고 수행하다 입적했다고 한다. 외떨어진 낙도에 불교를 전파한 스님이 입적하자 마을 주민들은 스님을 기려 승당을 지어 마을 수호신으로 모셨고 매년 정월 초하루 전체 섬주민이 제사를 지내 왔다고 한다. 이 제사는 가거도 주민을 하나로 묶고 섬의 평안을 기원하는 공동체 행사로 자리잡



◇인간문화재 김명후선생이 가거도 승당을 설명하고 있다.

았었다.

그러나 1917년 전래된 기독교세가 득세하면서 어촌공동체의 상징적 행사였던 승당 제사가 중단되고, 건물도 무너져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스님을 수호신으로 모신 승당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살았던 일부 불자 주민들은 부처님을 염원했다. 한 보살은 승당이 폐쇄되고 개신교인들이 입교를 권했지만 뿌리치고 '부처님과 조상님들은 아실 것이다.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막연한 발원을 몇 년간 되뇌었다고 했다.

드디어 1974년 방파제 공사를 위해 입도한 삼부토건의 공사가 5년간 해풍으로 인해 모두 유실되는 등 진척이 없자 독실한 불자였던 2대소장 채희복씨가 가거도 현장으로 부임해왔다. 채소장 부부는 가거도에 오자마자 방파제공사 원만성취를 발원하며, 1979년 해수관음보살입상을 모신 4평짜리 옹자 용궁사를 건립했다. 방파제 공사는 이후 3년만에 순탄하게 완공되고 1990년 삼부토건 채희복소장이 본사 전무로 승진해 서울로 가며 용궁사 관리를 당시 부녀회장이었던 박성금보살등 불자주민 4명에게 위임했다. 박보살등 4명의 보살은 용궁사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10년만에 불교세를 4가구에서 40가구로 늘렸다.

용궁사는 스님도 없이 4평의 작은 법당 하나만 존재하지만 가거도 불교를 일으키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중심지가 되고 있다.

용궁사가 제 역할을 찾으면서 불심이 점차 살아나 1995년에는 마을 부녀회에 의해 무너진 승당도 재건립됐다.

가거도 불교의 맥이 끊기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은 박성금 보살을 중심으로 한 불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의 공덕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용궁사가 창건되고 몇 번이나 스님을 모셨지만 절 규모가 워낙 작고 신도도 별로 없다 보니 1~2개월을 못 넘기고 떠나 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런 속에서도 가거도 불자들은 스님을 계실 때 어깨너머로 열심히 집전 방법과 불경을 외웠다. 그런 뒤 박성금 주지보살과 5~6명의 보살들은 매일 아침 4시면 절에 올라와 2시간 30분 동안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위한 축원기도를 한다.

10여년간의 끊임없는 보살들의 정진에 부처님도 응답했다. 용궁사 불자들도 대폭 늘어나고, 부처님오신날에 용궁사가 개최하는 '등놀

10년째 새벽 축원기도

불자 40가구로 신장

이' 행사는 이제 마을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축제가 됐다.

박성금 주지보살은 "염불 태일을 스피커로 틀다가 개신교 목사의 신고로 2번이나 파출소에 가고, 목사가 새로 부임해 올 때마다 절까지 찾아와 방해하는 그들의 배타성 때문에 한바탕 싸움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다만 신도들을 위한 독경 · 법문테잎과 경전 불교의식집 등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061)246-5454.

마을청년인 조운천(남해여관 대표)씨는 "고유의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승당의 마을제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용궁사 총무인 김월자보살도 "용궁사가 더욱 발전되도록 뜻 있는 스님이 와 주셨으면 한다"며 "종단등록이 빨리 됐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박성금 주지보살은 "현재 용궁사가 사유지에 건립돼 있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한 뒤 종단에 등록하여 사찰이 영원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가거도=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4월22일 새 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새법당 준공

사부대중 4천명 참석…유치원도 추진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4월 22일 5년만에 새 법당 준공법회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 정각원장 법산스님, 김태호 국회의원 등 4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는 경과보고, 대통개발 윤낙성 이사에 대한 공로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행스님은 "마음의 작용은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다함없는 정진으로 내면에 구족되어 있는 자성을 밝혀 자유스러운 삶을 누리길 바란다"는 법문을 했다. 대지 3500평 건평 9백평 규모로 대웅전, 요사채, 후원 강당을 완공한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앞으로 유치원 건립을 위한 불사를 계속하게 된다.

울산=천미희 기자

"가야산 순환도로 반대"

해인사 환경위 발족

조계종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세민)는 4월 25일 방장 법전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산환경위원회(위원장 정원스님) 발족식을 갖고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일원에서 가야산 순환도로의 개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스님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해인사의 수행환경과 가야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도로 개설에 반대한다"며 "경남도의 토지 보상 협의에 절대 응할 수 없다"며 도로 개설 예정부지에 해인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둘러쳤다.

가야산 순환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중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성기리 5.18㎞의 구간으로 경남도가 지난해 3월 착공, 오는 2000년에 완공할 예정이지만 토지 소유주인 해인사 등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정이 4%에 그치고 있다. 특히 경남도가 오는 6월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최근 밝혀 도로 개설에 반대하는 조계종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경주남산지도 새로제작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경주남산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따라 새로운 남산지도와 경주문화유적전도를 제작했다.

송재중 교사(경주 야화중)가 만든 기존의 남산지도를 토대로 이후 새로 발견된 유적을 추가하고 유적들이 소재한 해발고도를 표시해 남산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했다.

또 경주문화유적전도는 흔락이를 은 물론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문화유적을 망라했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향토자료까지 수록했다. 경주 남산지도는 휴대하기 간편하게 포켓용으로 제작되어 있다. 054)774-1950

이경숙 기자

제주 제9회 분다대상

김문자 · 이수여 · 김경매씨

'분다 제주중앙클럽' (총회장 양천익)은 4월 22일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갖고, 제 9회 '분다 대상'에 이수여(78 문화예술부문) 김경매(58 효행부문) 김문자씨(63 사회봉사부문)를 각각 선정했다.

4급 지체장애인인 효행부문 수상자 김경매씨는 100세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봉양하며 어려운 살림에도 노인공경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화제가 되었다. 김재경 기자

군부대 · 노인에 위문품

전북 봉축위원회 전달

전북봉축위원회는 전북군불교진흥회(회장 강평등심) 주관으로 4월 23일 9군단, 35사단, 제7공수여단, 부사관학교, 임실 특약탕 등에 경전 및 합장주, 과자 등을 담은 위문품 3000 박스를 전달했다. 봉축위는 또 4월 27일 전주 시장실에서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쌀 150가마를 전달했다.

한편 전북불교대학 총동창회는 4월 26일 전주교도소에서 담양 정토사 주지 한탑스님을 법사로 재소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종종사 임직원들은 "장인정신"이란 一心으로 법종불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종사 임직원일동 합장
중량 3,300관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복장유물 도난 '애타는 불심'

현황파악조차 안돼…대책마련 시급

전국 사찰의 불상 안에 봉안된 복장유물이 마구잡이로 털리고 있으나 '부처님 몸' 안에 들어있는 특성상 도난 여부조차 파악이 안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월부터 문화재 도난과 밀거래를 전국적으로 수사해온 검찰의 최근 발표는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서울지검 형사7부는 4월 24일 전국 사찰의 복장유물 등 국보 · 보물급이 포함된 문화재 1000여 점을 훔치거나 밀거래해 온 36명 중 2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명을 수배했다.

■회수된 문화재=이들이 훔치거나 유통시킨 복장유물 중에는 〈해인사 판당고 중수발원문〉 〈능엄경언해활자본〉 〈묘법연화경〉 〈대란야바라밀다경〉 등 국보 · 보물급 문화재가 수두룩하다. 해인사 장경각 불상 안에서 나온 〈해인사 판당고 중수발원문〉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판당고 건축 연혁 및 대장경 간행사실을 담은 귀중한 자료로 부식되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보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봉원사에서 도난당했던 〈능엄경 언해본〉도 중국의 〈수능엄경요해〉 10권을 조선 세조 때 한글로 구결을 달고 번역한 것으로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다. 이 밖에도 〈불설아미타경〉을 비롯해 수백 점의 불경이 회수됐다.

■심각성=이들 대부분이 복장유물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99년 한 해만도 경북 김천 직지사를 비롯해 5건 50여 구 불상 복장유물이 털리거나 파손됐다. 지난 해 발생한 성보도난 사건 11건 중 3건을 차지한다.

이처럼 복장유물이 도난범들의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불상을 봉안할 때 경전과 각종 귀중품을 함께 넣어 문화재급 유물이 많기 때문이다.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나온 불경, 직물류 등은 국보 제282호로 지정되었고, 보물 제745호는 장흥 보림사 목조사천왕상의 복장유물인 〈월인석보〉다.

최근에는 새로 조성된 불상 안에 봉안된 금불경 등을 훔쳐내 금은방에 팔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복장유물 도난범들의 경우 불경을 해독하거나 가치를 평가할 만한 능력이 없어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문제점=문제는 복장유물의 경우 도난 여부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어느 사찰의 어느 불상에 얼마만큼의 복장유물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 때문에 도난문화재를 회수해도 소유주를 몰라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해 3월 검거한 문화재밀매단에게서 압수한 61건 152점의 문화재 가운데 7건 31점만이 소유주가 밝혀져 해당 사찰에 반환됐다.

■대책=복장유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복장유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국보급, 보물급인 경우 박물관에 보관하는 등 도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도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복장유물 내부를 촬영하는 등의 다양한 조사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 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아직 종단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자스님은 "복장유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장비와 전문인력, 보존처리 준비가 갖춰질 때 가능한 부분이기에 조심스럽지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이와 함께 불교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와 문화재보호법 강화, 문화재 전담 수사반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4월 24일 적발된 문화재 밀매단이 사찰에서 훔친 불상, 탱화 등 국보 · 보물급 문화재.

"사찰 비지정 문화재 조사 국고 지원"

고흥길의원 등 성명

각 사찰에 소장된 비지정문화재 도난 및 밀거래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4월 26일 "사찰소유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 국고지원비를 조속히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고흥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9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찰 소유 비지정문화재 8만여 점 가운데 3만5천여 점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록조차 조사되지 않아 문화재 도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지난 해 예결위에서 삭감된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 지원비 5억원을 올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 실태조사

한편 문화재청은 늘어나고 있는 전국 사찰 소장 문화재의 도난 및 밀매를 막기위한 전국 사찰문화재 실태일제조사 시행,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날을 이웃과 함께

사찰·단체 자비행사 잇달아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교계 사찰과 단체들이 불우한 이웃 및 지역 군부대 등과 부처님 오신날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조계사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종립학교 진선여중 김진선 양의 신장이식수술비 마련을 위해 '이웃을 위한 등 달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김 양의 쾌유를 비는 문구를 적어 넣은 등을 달면서 후원금을 내는 방식의 이 모금행사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온라인 계좌(국민은행 023-01-0563-150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로도 후원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 청량리기관차불교법우회는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백전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어린이대공원, 청와대, 경복궁 등을 견학하는 '꿈과 희망을 실은 사랑의 열차' 행사를 갖는다.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도 구로 관내의 무의탁노인 80여명을 초청, 7일 여주 신륵사, 목아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행사를 갖는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21일과 22일 복지시설 관계자 및 불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비의 릴레이 철야정진법회'를 갖고 이날 모금한 600여만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운불련 대구지역회는 1일 16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또 제주불교연합봉축위원회는 재소자 돕기및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제주불교사회봉사회도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26일 각각 열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24일부터 30일까지 실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소망의 연등을 달아주고 후원하는 '무차연등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과 30일에는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등의 자비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와 영남불교대학은 27일과 29일 각각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한명우 기자

"마이산 돌탑 관리자 '탑사주지'"

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마이산 탑(전라북도기념물 제35호)의 관리인은 탑사 주지 '이왕선스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은 4월 26일 왕선스님이 전북도를 상대로 청구한 관리자 교체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관람료 징수위한 관리자 교체는 위법"이라며 "전북도지사는 마이산 탑의 관리자 교체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왕선스님이 나한전, 종각, 요사채, 화장실, 안내판 등을 신축함으로써 마이산 돌탑의 주위 환경을 잘 정비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부이며 마이산 돌탑을 조성한 이갑룡 거사에 이어 돌탑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잘 관리해 오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문화재관람료 배분문제를 놓고 마이산탑사와 갈등을 빚자 지난해 6월 돌탑 관리인을 진안군수로 교체했고 이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한 탑사 측은 탑 관리인교체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이경숙 기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생협' 추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최근 '(가칭)인드라망생협 주비모임'을 구성하고 생협의 이념과 목적, 합당한 체계와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주비모임은 향후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회원이나, 귀농학교 동문(7회 동안 졸업생 250여명)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발기인을 모집할 방침이다.

한편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5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수 · 토요일 오후 7 · 3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8기 귀농학교를 연다. (02)733-1884

김재경 기자

"원각사지 발굴조사후 탑골공원 성역화"

불교계, 서울시에 요구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성역화 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가 원각사지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이 달 중순부터 시설물 이전과 조경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월 16일부터 탑골공원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4월 23일 현장설명회를 갖고 창건 당시의 건물지로 보이는 석렬과 대형 초석 2점, 범어 문양 수막새, 기와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도위원으로 참석한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초석 등 외에는 뚜렷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금당지는 탑골공원 울타리 밖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성역화 사업을 끝내면 다시 발굴 조사하는 것이 힘든 만큼 이에 앞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념물과 구조물 재배치, 조경 위주의 사업이라 추후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형진 기자



합장하는 동자승 4월 26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상인과 동자승이 연꽃등을 주고 받으며 합장하고 있다. 조계사는 이날 조계사에서 명동까지 시민들에게 봉축엽서와 컵등을 나눠주는 거리포교를 실시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성역화된 종교권력 "자성하자" 한목소리

NGO 네트워크 세미나

'개혁을 위한 NGO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4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의 종교권력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상을 향한 목탁과 소금이란 본연의 기능보다 최후의 성역으로 권력화된 종교권력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한국학)는 '한국사회 관점에서 본 한국종교의 내부개혁과제'란 발제를 통해 "한국 종교계야말로 구조조정 대상 1순위지만 스스로를 성역시함으로써 외부의 모든 비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자정 노력도 보이지 않아 종교의 구조조정은 난제중의 난제"라고 비판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최승천 편집위원장은 사례발표에서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의 잇따른 발언 파동과 관련, "기왕에 주어진 종교권력은 잘 쓰면 중생을 이롭게 하지만 잘못 쓰면 종교를 망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정치권력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며 종교계와 정치권을 함께 비판했다.

김재경 기자

가정에서 환자를 잘 봉양 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희소식!!!
중풍! 치매!
정성껏 간호하고
내 가족처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전원같은 이곳에서
가족 모든분들께
행복을 안겨 드립니다.
■ 병원 전경
■ 병원 내부 복도
■ 환자 치료
정성을 다하는 병원
동림한방병원
대표전화 : 054-338-6100 / 휴대폰 : 011-829-6979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 - 17시까지 촛불명회등 갖고 있습니다 청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참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내용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일의 시간과 결과 보면 손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을 보듬. 四柱로는 라인의 앞뒤는 작중 육임비법들을 모두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학관이나 사람이나 무슨집이나 학의래에 사람이 찾아오거나 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러해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친성이 악한지 선한지, ●너에게 이익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찾아내면 보일 수 있도록 해두해 놓아, 만일 그 책도 없이 점쟁이로써 묵시의 촉발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휴대 가능으로서의 간리스마, 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책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할 수 있는 병인지 불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자도가 맞게 될 것인지 치료기 종종될것지 다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회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책값이 他 책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회득 될 영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박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18989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大韓佛教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朴德水 敎務部長 邊春光
敎育部長 金勇岩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金務元 糾正部長 趙珍德
宗正司書室長 李門德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張道正 副議長 朴魯昇

監査院 監査院長 朱正山
監査委員 李德海 監査委員 金景遷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救仁寺專門講院 金智福
金剛佛敎大學長 李載昌 救仁寺專門講院 金奉式
宗典研究院長 金煐泰

忠北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132-1
☎ 043) 423-7100~8 / FAX : 043) 420-7399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安德菴

司書室長 鄭尋眞

■ 總務院長 崔慧草
副院長 金大雲
總務部長 鄭大隱 企劃部長 朴龍潭
敎務部長 文學鉉 社會部長 李雪山
財務部長 劉智弘 糾察部長 金越海

■ 中央宗會議長 朴芸谷
副議長 柳旺潭·金雲毗

■ 中央司正院長 金蓮雲
副院長 李白牛

우 540-800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 061) 754-5247 / FAX : 061) 754-5043
서울종무처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 02) 745-2030 / FAX : 02) 745-1615

온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되어 즐거움을
나누는 2001년 만다라 세상
진각종이 함께합니다.
(JGO : The Joy of Genuine Oneness)

總印 覺海
統理院長 省超

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http://www.jingak.or.kr

136-13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번지
전 화 : 02) 913-0753 / FAX : 02) 913-0755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總務院長 李泓坡
副院長 金智攝

總務部長 黃法明 敎務部長 洪智默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李法炫
監察部長 金垈弘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朴松月 副議長 金性哲

敎育院長 金東靈
修敎部長 尹祿峰 譯經部長 權宗一

布敎院長 鄭法性
布敎部長 柳牛耕 組織部長 趙法護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 02)763-3345,0054 / FAX : 02)763-5851

大韓佛教 普門宗

宗正 千慧眼

元老院長 崔慧月
總務院長 鄭慧日
總務院副院長 崔智性
宗會議長 李智環
護戒院長 曺法綜
總務部長 李法善
敎務部長 金眞雨
財務部長 吳仁太
布敎部長 李明浩

宗徒一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번지
☎ 02) 928-3797 / FAX : 02) 926-9752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권한대행 각 화

승정원장 신 수 총무원장권한대행 법 진

중앙종회의장 혜 공 포교원장 진 봉
사정원장 대 운 수선원장 지 원
교육원장 청 봉 문화원장 택 봉

총무원

사 서 실 지 겸 감찰부장 달 봉
총무부장 청 봉 홍보부장 지 겸
교무부장 혜 각 교학부장 혜 안
재무부장 혜 명 수련부장 도 연
사회부장 지 원 문화부장 지 경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인류에게
평화와 광명의 행복한 삶이 영위되기를 기원합니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2동 4-8
전화 : 02)3216-0165~6 / FAX : 02)3216-0166

한국불교 정토종

종 정 : 김노지산 총무원장 : 정영춘 회암

부 원 장 성일 포교부장 현공
종회의장 법보 교육부장 원행
원로원장 혜원 감찰부장 효현
포교원장 자현 규정부장 설정
호법원장 보덕 사회부장 혜심
선관위원장 혜산 복지부장 혜공
법규위원장 완경 재무부장 성담
선 원 장 육허 조직부장 성은
사 서 실 장 법성 교무부장 법진
중앙종회의원 혜명 호법부장 봉운
중앙종회의원 현수
중앙종회의원 도승

인천 교구원장 불광 동해 교구원장 석범
부산 교구원장 보국 감찰국장 석산
충남 교구원장 향림 부산교구법사원장 불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 2동 926-27(새나드리프라자 4층)
☎ 032) 543-2693-5 / FAX : 032) 543-2695

大韓佛教 元孝宗

宗正職務代行 碧松

總務院長 無盡
宗會議長 清隱
糾正院長 慧修
敎育院長 青雲
布敎院長 道哲

宗徒一同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43 광성빌딩 301호
☎ 02)735-0501, 736-3509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輪宗

宗正 靈山正覺

宗正 禮敬室長 : 釋 慈 明

■ 元老院長 : 釋 慧 牛
元老 : 釋 錦 岩 釋 慧 眼 釋 碧 松
釋 用 明 釋 慧 明

■ 總務院長 : 釋 德 山(昌法)
副院長 : 釋 普 明
·總務部長 : 釋善宗·敎務部長 : 釋法常·社會部長 : 釋度光
·文化事業部長 : 釋道明·財務部長 : 釋奉安·糾正部長 : 釋明觀

■ 宗會議長 : 釋 慧 眼
副議長 : 釋 聖 陀 釋 度 昇
司正院長 : 釋 琮 鍾 敎育院長 : 釋 法 泉
研修院長 : 釋 明 眞 布敎院長 : 釋 度 昇

中央宗會議員 및 宗徒 一同

總務院 : 서울特別市 鍾路區 壽松洞 十三
전화 : 02)733-4445~6 / 팩스 : 02)733-4447